



8

주체98(2009)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8(2009)년 제8호

(루계 제 742 호)

## 차 례

그날은 8월 25일이였다 .....	3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	4
필승의 신념 .....	4
모두가 영웅이 되라 .....	4
나의 평양, 선군수도여 .....	5
주체문학의 대강 .....	8
선군시대 여성의 노래 .....	9
시인의 생은 명작과 함께 영원히 빛난다 .....	11
희천땅의 메아리 .....	18
땀방울 .....	23
《컴퓨터정보전》 .....	23
《메주풍경》 .....	24
수령의 내면세계를 파고든 새로운 시형상 .....	25
안해의 웃음 .....	27
꿈이 펼쳐여지는 세월에 .....	28
남새의 푸른색을 보존하려면 .....	29

선군령장과 아이들의 혈연관계를 깊이있게 그리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	30
내 고향의 별바위 .....	33
동해의 새 제염소에서 .....	44
앞서가는 발자욱 .....	45
나는 영예군인의 딸 .....	54
영웅의 위훈 .....	55
나의 벗들에게 .....	55
내 어디서 떠나왔는가 .....	56
공감이 가게, 진실하게... ..	57
전자도서관 .....	60
스무차량의 화물 .....	61
눈물로 한생을 산 시인 .....	70
청춘시절과의 약속 .....	71
시인 김상훈의 시집 《흙》에 대하여 .....	78

# 그날은 8월 25일이였다

윤 두 만

그날은

레년에 없던 무더위가 쏟아져내려

새들도 그늘찾아 날아들던

8월 25일!

그날은 바로

선군령도의 시작 47돛을 맞던 날

그리움의 나래펴고

우리 마음 달려가던 삼북철강행군길에서

꿈같은 소식 마중해올줄 누가 알았으랴

공화국창건 60돛을 맞으며

**김일성**종합대학에 현대적인 수영관을 지어

나의 선물로 주겠다고

우리 장군님 하신 사랑의 그 말씀

아, 쌓였던 그리움을 눈물로 터쳤어라

못 잊을 고난의 그해 겨울

장군님 대학을 다녀가시며

남기신 사랑의 약속이

금시 수영관의 물소리에 실려오는것만 같아

허나 그때 우리 다는 몰랐구나

장군님의 깊은 그 심중을

전화의 날 백송리를 찾으시여

목욕은 어떻게 하는가고 심려하시던 수령님께서

이제 수영관의 물소리를 들으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하시며

몸소 자리까지 잡아주신줄

다심하신 어머니심정으로

수영장의 물깊이를 알아보시며

로학자들을 위한 물놀이장도 함께 지어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신 우리 장군님

태양의 존함을 모신 종합대학을

세계에 보란듯이 빛내여주시려는 높이신 뜻

인재를 위함이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장군님마음엔

만족이 없었나니

언제나 그 언제나

주시는 그 사랑 첫 시작이신듯

강성대국의 면모에 맞게

전자도서관도 3호교사도 본때있게 꾸려주자고

삼북철강행군길에서 펼치신

웅대한 설계도여!

그날은 8월 25일이였다

백두산총대우에

신념의 맹세 비껴드시고

우리 장군님

마흔일곱해전 선군령도를 시작하신

민족대행운의 날

아, 조국만대의 밝은 운명을 장군님께 맡긴

8월 25일!

내 걱정 of 붓을 들어 력사에 쓰고싶어라

우리는 8월의 그날에 별써

오늘의 수영관을 보았다

선군이 준 만복을 안았다

##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 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일본의 패망은 우리의 선대들이 눈을 감으면서도 바라던 념원이었고 우리 인민이 수십년동안 무서운 고통과 희생을 당하면서도 피를 물고 즐기치게 뿜아온 항쟁의 종착점이었습니다.》

《일본의 패망소식을 들은 날은 온 나라가 다 울었다고 합니다. 평양의 련광정과 을밀대 앞에서는 하루종일 춤판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국권을 강탈당한 때로부터 40년, 국토를 병탄당한 때로부터 36년, 기나긴 암흑의 밤과 지루한 노예살이를 끝장낸 민족의 환호가 삼천리를 진감하였습니다.》

《조선의 해방은 20성상에 걸치는 항일혁명투쟁의 총화인 동시에 해내외의 광범한 반일애국력량이 수십년동안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며 희생을 무릅쓰고 거족적으로 벌려온 영웅적인 항전의 결산이라고도 말할수 있습니다.》

### 혁명실화

## 필승의 신념

조국해방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장구한 항일혁명투쟁의 전기간 어버이수령님의 가슴속에는 언제나 조선인민혁명군은 절대로 굴하지도 않고 패하지도 않는다는 필승의 신념이 자리잡고계시었다.

주체29(1940)년 봄 어느날 저녁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대원들과 함께 우등불곁에서 밤이 지새도록 혁명에 대한 이야기, 조국에 대한 이야기, 고향의 부모형제들에 대한 이야기, 승리할 때일에 대한 이야기로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제를 타도한 다음 평양에 가서 조국해방을 뜻깊게 기념하자고 하시면서 지금 적들이 우리를 어떻게보겠다고 발악하고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굴하지도 않고 주저앉지도 않을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우리모두가 때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조선민족의 자부심, 조선혁명가의 자부심도 드높이 일체침략자들을 때려부시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었다.

그 어떤 곤난앞에서도 드놀지 않는 강철의 배짱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에서 필승의 신념을 더욱 깊이 간직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중첩되는 시련을 락판과 용기로 이겨내고 빼앗긴 조국을 기어이 되찾고야말 맹세로 가슴 불태웠다.

적들이 지금 우리를 자지도 먹지도 쉬지도 못하게 하면서 진드기처럼 따라다니지만 조선인민혁명군은 절대로 굴하지도 않고 패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 수령님의 그때의 배짱이시었다.

이 신념과 배짱이 있었기에 위대한 수령님을 진두에 모시고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수십년간의 장구한 투쟁끝에 조국해방의 승리를 안아올수 있었던것이다.

### 혁명일화

## 모두가 영웅이 되라

몇해전 겨울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부대의 한 중대를 찾으시었다.

그 중대로 말하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7명의 공화국영웅들을 배출한 영웅중대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중대가 낳은 영웅들의 사진이 붙은 게시판앞에서 중대군인들이 준비한 사랑송모임을 보아주시었다.

중대군인들은 리수복영웅의 시를 읊고 노래를 부르면서 저마다 영웅들의 뒤를 이어 영웅이 됨으로써 영웅중대의 위훈을 더욱 높이 떨쳐갈 맹세를 다지었다.

그들을 사랑넘친 눈길로 바라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온 중대가 영웅이 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중대군인들의 훈련도 보아주시었다. 군인들은 훈련을 통하여 위대한 선군령장의 품속에서 일당백의 용사들로 자란 자기들의 모습과 함께 준엄한 결전의 시각이 닥쳐오면 공화국영웅들의 뒤를 이어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고 조국을 수호하는 길에서 영웅중대의 위훈을 더 높이 떨쳐갈 신념을 뚜렷이 보여 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들이 영웅이 되겠다는것은 빈말이 아니라고, 이들은 다 영웅이 될수 있다고 하시며 중대군인들을 고무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때에는 7명의 영웅이 나왔다면 이제 또다시 결전의 시각이 오면 온 중대가 다 영웅이 될것이라고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에 고무된 군인들은 선군시대에 모두가 영웅이 될 의지로 심장을 불태웠다.

시 초

## 나의 평양, 선군수도여

송 찬 응

### 모란봉의 산울림아

모란봉 푸른 언덕에 내 올라서니  
못 잊을 어릴적 추억 떠오르는가  
총대로 해방의 봄을 안아오신  
전설적인 백두령장을 우러러 터친  
그날의 환호소리 메아리쳐와라

바다처럼 설레이던 개선의 광장  
모란봉도 움실움실 진동하던 그 시각  
내가 나서 처음 뵈은 수령님의 영상은  
칠칠이 드리웠던 어둠을 밀어내며  
동산에 솟아오른 눈부신 아침해였다

그날에 열렸어라, 조선의 새아침이  
빛이 없고 힘이 없어 외세에 짓밟히고  
수난속에 시달려온 설움받던 약소국이  
존엄높은 주체의 강국으로 치달아올랐으니  
수령님 건국업적 새로운 뜻을 깨우쳐주는가

물어보자, 세월의 풍상 겪어온  
을밀대의 이끼덮인 성벽들아  
또 한분의 백두령장을 높이 모시여  
오늘처럼 군력이 강한 일심의 나라  
유구한 민족사에 너 언제 본적 있는지

개선의 환호성으로  
내 한생을 떠밀어준  
모란봉의 산울림아!  
너도 력사의 메아리되어  
세상에 아뢰고있어라, 승리의 철리를

소리쳐 아뢰고있어라  
우리 수령님 총대로 안아오시고  
우리 장군님 총대로 지켜주시는  
아, 내 조국의 복된 만년세월이  
선군, 선군으로 세기를 이어 길이 빛나고있음을

### 사연깊은 평천길

해방된 가을  
아직은 당도 정권도 없던 그날에  
가셔야 할 곳 많으셨던 우리 수령님  
어이하여 고향길, 강선길에 앞서  
평천길, 평천길부터 먼저 가시였던가

총이자 새조선의 운명임을  
누구보다 깊이 헤아리셨기에  
파벽돌이 나뒹굴던 빈터우에  
첫 병기공장을 일떠세우려  
갈대숲 무성한 평천길 헤쳐가셨나니

여기서 고고성 터치였구나  
신식총으로 나라를 빼앗고  
우리 인민을 무참히 학살한  
일제놈들도 만들지 못했던  
자랑스러운 조선의 첫 기관단총이

여기서 버리어졌구나  
전화의 날, 내 틀어잡고

미제원썹들을 쓸어눕힌 총  
조국결사수호전의 억센 무장이  
군자리로 이어진 여기 평천길에서

그때엔 황량하던 진펄길이  
포장도로로 넓게 뻗어있어도  
수령님 옷자락에 감겨들던  
그날의 갈숲이 눈에 밝혀와  
내 선뜻 가벼이 걸을수 없어라

우리 수령님, 일찌기 해방년에  
부강조국의 먼 앞날을 내다보시고  
자주국방의 만년초석 굳건히 다지셨기에  
미제의 침략을 단호히 짓부신 그 터전우에  
핵보유의 군사강국이 거연히 일떠섰거니

아, 총에 대한 피어린 숙망이  
어디서 어떻게 꽃피여났는지  
오늘에 더더욱 사무치게 새기여주는  
우리 총이 태어난 사연깊은 평천길, 평천길이어!



## 내 한생 오르는 언덕

내 중학시절

사랑하는 모교가 있던 곳  
칠성문거리로 예도는 길이 멀어  
가파른 지름길로 달음쳐오르며  
꿈나래 펼치던 만수대언덕이여

너를 떠나 멀리 불타는 전호에서도  
포연너머 어려오던 평양의 하늘과 함께  
내 고향의 언덕인양 정답게만 안겨오더니  
언제부터 네 이름 온 나라 온 세상이 다 아는  
그리움의 언덕으로 숨엄히 솟아올랐던가

흘러간 70년대

우리 장군님의 뜻 인민의 뜻에 받들려  
아버이수령님동상 높이 모신 그날부터  
축원의 꽃물결 때없이 올랐거니

기쁨안고 오르던 그땐 다 몰랐어도  
쏟아지는 피눈물속에 가슴을 치며  
수령의 귀중함을 절감한 7월을 넘어  
간절한 그리움안고 경건히 오를 때면

내 작은 인생도 점점 커지고 빛나는듯

봄꽃이 피는 태양절 아침이라  
축포오르는 전승절 그밤이라  
아들이 군복입고 초소로 떠날 때도  
손녀가 교복입고 학교에 입학할 때도  
흙모의 꽃을 안고 내 함께 오르던 언덕

나라마다 제나름의 언덕들은 많아도  
세상에 이런 언덕 예박에 더는 없어  
만민의 뜨거운 마음 굽이쳐오르는 곳  
네가 있어 우리의 평양은 수령님모습으로  
우주의 한복판에 높이 솟아 빛을 뿌리거니

오, 만수대 만수대  
천세만세 수령님 길이 모시고  
우리 장군님 따르는 오직 한길에  
전사의 순결한 량심과 의리 안고  
내 한생 오르는 신념의 언덕이여  
네우엔 후손들의 물결 그칠새 없어라!

## 땅속에서 땅우에서

평양을 재더미에 파묻으려고  
미제가 줄폭탄을 퍼붓던 그때  
나는 들었다, 여기 지하극장에서  
폭음을 짓누르며 지심천리 울려퍼진  
우리 병사들의 노래소리 화선악기소리

세월은 흘렀어도  
그날의 기상 솟구쳐올랐는가

나는 듣고있다, 여기 지상극장에서  
우리 식의 멋들어진 배합관현악소리

땅속에서 락판을 안겨준 화선의 노래  
땅우에서 내 심금 흔드는 교향악소리  
오, 그것은 영웅도시 평양의 거센 숨결  
선군승리의 장쾌한 우뢰소리여라!

## 장산의 소나무는 무엇을 속삭이는가

전후의 봄날 나무심으려  
장산에 오르신 우리 장군님  
상처입은 벌거숭이산밭  
가슴아프게 바라보셨네

돌틈에 뿌리내린 애솔포기를  
뽑자거니 말자거니 떠들어댔 때  
포화속에 용케도 살아남았다고  
정을 담아 애어린 솔잎 쓸어주시며  
푸르청청 아지 펼 앞날 그려보셨네

애국의 그 뜻 그 사랑  
돌기돌기 년륜에 감았는가  
그날의 애솔포기 락락장송으로 자라  
수도의 북쪽산에 푸르름 한껏 펼쳤거늘  
장산의 소나무는 무엇을 속삭이는가

그날처럼 우리 장군님  
전호가에 나무를 심으시며  
애국으로 장약된 총대만이  
내 나라를 지키고 빛낼수 있다고  
병사들 가슴에 조국애를 심어주셨거니

아, 숭고한 그 뜻 그 사랑에 받들려  
공원도시 평양은 갈수록 아름다워지고

장군님 다녀가신 조국땅 그 어디라  
신군의 하늘아래 푸른숲 설레인다고  
장산의 소나무는 오늘도 속삭이고있어라

## 그리움의 불야경

장대재, 남산재의 불장식도  
현란한 황홀경을 펼쳤는데  
수도의 야경을 바라보는 이 가슴  
왜 이리 뜨거움에 젖어드는것인가

시련 많던 고난의 해  
눈바람 사납던 겨울밤  
가로등도 꺼진지 오래고  
전차마저 멎어선 거리로  
미끄러운 눈을 밟으며 퇴근길 걸을 때  
내 오늘의 이 야경을 그려나 봤던가

불꺼진 수도를 뒤에 남기고  
령넘어 떠나면 전선길 이어  
북방의 눈보라길 헤치여가신  
장군님심중에 회오리친 세계를  
내 알고 그밤 단잠에 들었던가

내 한생 수도에 살며  
때로 출장지에서 날과 달이 흐르면  
떠나온 정든 집이 못 견디게 그리워  
이 마음 때없이 달려오던 평양!

수도를 멀리 떠나  
한해를 하루와 같이  
눈비도, 무더위도 가림없이  
애국헌신의 험한 강행군길  
쉽없이 이어가신 우리 장군님

그렇게 가고가신 밤길, 새벽길우에  
강성번영의 새봄이 꽃피어나고  
불빛바다 불빛절경이 펼쳐진 오늘  
아, 이밤만이라도 이밤만이라도  
저 야경을 바라보시며 편히 쉬시었으면...

간절한 그 소원안고  
이제나저제나 들어설  
장군님의 야전차를 기다려  
교통보안원도 초소를 뜨지 않고  
수도의 관문을 지켜 서있는가

그이의 안녕을 바라며  
기다려 잠 못드는 이밤  
아, 그리움, 그리움의 불야성이  
반짝이는 무수한 별무리처럼  
평양의 밤하늘가득 빛발치여라!

## 대동강에 묶여있는 전리품

어디서 나타났는가  
대동강 여울목에  
려객선도 화물선도 아닌  
총탄구멍 숭숭 난 철선 한척

오래전에 붙잡힌 《푸에블로》호  
미제의 흉물스런 무장간첩선이  
어떻게 되어 멀리 동해, 남해를 에돌아  
여기 대동강에 못박히게 되였는가

어느해 2월  
동해의 해군부대를 찾으신 장군님  
군항에 억류되어있는 간첩선을 보시며  
여기에 두지 말고 《서먼》호가 수장된  
대동강에 끌어다 놓아야겠다고 말씀하셨거니

하여 30년만에

또다시 포로의 신세가 되어  
백여년전, 미국침략선이 수장된  
여기 대동강에 끌려오게 되였어라

내 오래전 력사박물관에서  
《서먼》호의 검은 포신을 보며  
미제의 뿌리깊은 침략을 저주했더니  
오늘은 간첩선 《푸에블로》호를 보며  
미제의 변치 않는 본성을 다시금 실감하노라

어느 누가 말했던가  
저 뉴욕의 허드슨강변에 서있는  
거만한 《자유의 여신상》이  
바로 미국의 상징이라고

진짜 미국의 《상징》을 알려거든  
선군령장의 비범한 지략에 따라



## 주 체 문 학 의 대 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대를 선도하고 인민대중을 불러일으키는데서 혁명적인 노래가 노는 역할은 매우 크다. 투쟁이 있는 곳에는 노래가 있고 노래가 있는 곳에는 혁명적량만이 차넘치고 전투적열정이 끓어번지기마련이다.》

《가사는 한편의 정교한 시로 되여야 한다.》

《가사에는 독창적으로 찾아진 총자가 있어야 하고 시인이 노리는 뚜렷한 주장과 개성적얼굴이 있어야 하며 발견이 깃든 새롭고 품만한 서정이 있어야 한다.》

《가사가 한편의 정교한 시로 되여야 한다는것은 정서가 있어야 한다는것을 말한다.》

대동강에 묶여있는 우리의 전리품  
《푸에블로》호의 가련한 저 물골을 보라  
《푸에블로》호, 너 미국의 수치여

너는 물우에 떠있는 《박물판》으로  
오늘도 말없이 세계에 보여주고있어라  
누구든 조선의 하늘땅, 바다에 기여들면  
이같은 치욕의 신세를 면치 못한다는것을

## 강성번영하라, 평양이여

내 안겨자란 요람의 도시  
불수록 환희로운 내 사랑 평양  
절세의 위인들을 여기 모시여  
동방에 빛나오른 조국의 수도여

존엄높은 평양의 목소리 울려퍼지며  
포성없는 대결전에서 편승떨칠 때  
얼마나 뜨거운 심장들이 여기 모여들고  
얼마나 장엄한 일심대오 여기 파도쳤던가

만경대기슭에서 금수산언덕까지  
수령님 한평생을 네가 다 새겼는가  
선군의 표대처럼 붉은기 높이 날리는  
혁명의 수뇌부가 여기에 자리잡고있어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내 마음 엮고사는 곳

목숨같은 혁명의 수뇌부 지켜 고동치는  
주체조선의 숨결 높은 심장 나의 평양  
네 불빛 환히 비쳐 내 앞길 찬란하고  
네 활기 차고넘쳐 온 나라 약동해라

진정 너와 나 우리에게  
신념의 이 성새가 없었다면  
피눈물의 언덕에서 분연히 일떠나  
신심높이 만남을 헤쳐올수 있었으랴

나서자란 고향이여서  
여기에 가까운 혈육들이 있어  
남녘의 형제들도 못 잊어 찾고  
이역의 동포들도 그리워 찾아오는가

우리의 운명이신 김정일장군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2월의 환호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한 4월의 환호성도  
여기서 온 나라 온 전선에 울려갔어라

위인이 있는 곳에 민심이 모이고  
민심이 모인 곳에 승전고 높이 울려  
산넘어 구름너머 이 하늘끝에서도  
동경의 마음들이 끝없이 달려오거니

봄빛같은 선군해발 예서 퍼지고  
하늘같은 당의 구상 예서 내려쳐  
인민들의 행복넘친 삶이 꽃피고  
내 조국에 천지개벽, 기적 솟나니

오, 언제나 정다운 평양  
사랑하는 선군수도여  
사회주의 불패의 위력으로 영광 펼치며  
만사람의 경탄속에 후손들의 축복속에  
강성번영하라, 평양이여!

## 선군시대 여성의 노래

럼 형 미

1

두번 다시 태어난대도  
나는 여성으로 태어나고싶어라  
선군의 이 시대  
사랑깊은 이 대지에  
존엄높은 아버지의 딸로...

한줄기 바람도 나를 위해 따뜻하고  
한송이 눈꽃도 나를 위해 깨끗한  
이 맑은 하늘아래  
하냥 행복히 살고싶어서

어머니 나를 이 땅에 낳아준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이나  
세상을 둘러보면 아직도 여성은 천덕꾸러기  
돈과 권세에 짓밟히는 노예  
그러나 나는 산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성의 락원에서

어디를 가봐도  
여성박사 여성지배인 여성당일군...  
우리 여성들 그 누구에게나  
150일간이나 산전산후휴가를 주며  
특대우의 사랑에 떠받들어주는 나라

평범한 근로여성들의  
아름다운 보석빈침을 위해  
칠칠야밤에 야전차가 달리고  
나라의 수령이 시간을 내어  
축복이 홍단이...  
딸들의 이름까지 지어주는 땅

엄혹한 시련의 날에도  
조국이 녀인에게 준 사랑을 알려거든  
물어보라,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의 주인공들  
에게  
우리 장군님 빠짐없이 보아주시며  
《선군혁명의 제2나팔수》들이라고  
믿음과 은정 다 안겨주신 군관의 안해들에게

물어보라, 천만금의 비행기를 띄워  
상했던 얼굴을 다시 찾아주신  
그 아름다운 녀인에게  
정든 포전길에서 장군님을 만나뵈옵고  
꿈같은 영광을 다 받아안은  
한드레벨 애국농민 여성에게

그러면 알수 있으리  
이 나라 녀인들이 어찌하여  
행복한 날에보다 어려운 날에  
이토록 강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조국과 그리도 정깊어졌는가

안해를 더없이 사랑하는 남편들도  
꿈에도 미쳐 생각지 못했던 일  
어찌다 안겨주는 한송이 꽃에도  
귀뿌리 붉어지는 소박한 녀인들에게  
지난해 3.8국제부녀절에는  
얼마나 큰 행복 파도쳐왔던가

위대한 선군령장 김정일장군님께서  
그 많은 일, 그 먼 전선길 다 미루시고  
여성근로자들의 친아버지가 되시여  
명절경축공연을 함께 보아주셨나니  
봄향기화장품까지 한아름 안겨주셨어라

그 하루 여성들의 기쁨을 위해  
화장품을 실은 특별열차가 밤을 달리고  
새벽 3시에 우리 장군님께서 마중나오셨던줄  
아, 그 시간 남편과 아이들곁에  
단잠들었던 이 나라 녀인들 어이 알았으랴

녀인의 심장은 눈물주머니인가  
분크림 향긋한 두볼로 때없이 흐르는 눈물  
진달래빛연지찍은 입술로 끝모르는 흐느낌  
온몸에 마음에 목메이게 풍기는  
그윽하고 유별한 봄향기  
어디서 쉽없이 뿜어오는가

하늘에서 구름에서 강남에서 오는가  
뽕죽뽕죽 움트는 파아란 잔디에서 오는가

녀인들의 이 봄은 뜨거운 이 훈향은  
망울벌린 꽃들의 속삭임에서  
지지배배 노래하는 제비에게서  
보슬보슬 함박이 내려젖는 봄비에서 오는가

아, 봄  
눈비젖은 야전복에서  
성에 불린 야전차에서  
폭풍도 막는 열애의 심장—  
쉽없는 인간사랑의 박동에서  
아지랑이인양 뜨거이 퍼져오는  
이 땅의 봄 사랑의 봄이어

목메이게 풍기는 이 가슴의 향기는  
산천의 향기가 아닌  
아버지가 준 봄향기!  
따스히 이 몸을 품어주는 온기는  
자연의 열기가 아닌  
아버지의 그 체온!

사시절 전선길 눈비에 젖으며  
한몸바쳐 지켜주는  
후더운 그 숨결에 싸여  
이 나라 녀성들은 언제나 화창한 봄날에 살며  
아름다운 생의 향기 한껏 뿜나니

그 아버지가 바로 나의 조국!  
햇빛이 있어야 꽃이 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우리들이기에  
운명으로 받드는 태양도  
세상에 오직 한분 **김정일**장군님!

아, 조국이 없으면 제일 먼저  
노예의 사슬 천대의 멍에에 묶이울 녀인  
위대한 내 조국이 있어  
세상에 제일 아름답게 꽃피나니  
준엄한 날에도 제일 먼저 내대리라  
조국과 한운명 녀인의 심장을!

## 2

말하고싶구나  
가슴 헤쳐 노래하고싶구나  
이 나라의 이름없는 녀성시인 나의 붓  
태양아래 한가닥 초불갈고  
바다앞의 한줄기 시내갈고  
대지우의 한그루 애술갈대도...

나라없던 그 세월엔  
열두폭치마 눈물에 썩이면서도  
끌방에서 한번 뛰쳐나지 못하고  
제 이름 석자조차 못 부르던  
소심하고 나약하던 그 녀들이  
오늘은 어떻게 세상의 강자로 솟구치는것인지

마라손녀왕 그 처녀는 말했어라  
나는 장군님을 그리며 달렸다!  
세계의 유술녀왕  
4중선수권보유자는 단언했다  
내 힘의 원천은 장군님이시다!

신화적인 련전련승을 기록하며  
붉은 운동복의 축구녀왕들  
조국을 우러러 목청껏 터치는 함성도  
장군님! 장군님!  
우리가 이겼습니다!

아, 어찌하여 이 나라 딸들은  
기빠도 슬퍼도 무력  
제일 먼저 아버지부터 찾는것인가  
혈육의 부모형제에 앞서  
장군님을 부르고부르는것인가

피눈물의 언덕에서 고난을 함께 하며  
장군님과 제일로 가까워지고  
장군님을 충정으로 받아들온 이 나라 녀인들

천만운명 무거이 실린  
야전차의 운전대 틀어쥐시고  
구름우에 솟은 철령을 넘고넘어  
길길이 솟구치는 초도의 날바다에도  
한몸 대고 뛰어드신 우리 장군님

태양처럼  
일년 삼백예순다섯날  
현신의 열과 빛으로  
하늘땅을 가득 채우시며  
발산하는 뜨거운 정의 온기로  
고난의 얼음장을 녹여가셨나니

아  
장군님만 믿고서 고난을 이겨왔어라  
남편도 부모도 자식도 다 알수 없는  
녀인의 마음속 행복의 소망  
우리 장군님 고이고이 지켜주심을  
시련속에 웃음으로 깨달았거니

## 시인의 생은 명작과 함께 영원히 빛난다

—혁명시인 조기천의 시창작을 두고—

리 동 원

혁명시인 조기천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신 재능있는 시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한편의 혁명적인 시는 천만자루의 창검을 대신할수 있다. 우리 혁명은 천만자루의 창검을 대신할만 한 훌륭한 시를 더 많이 창작해낼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시인의 생애는 비록 짧았지만 주체의 시문단을 빛내인 주옥같은 시들은 우리 조국과 인민의 사랑속에 그의 이름과 함께 영원히 빛난다.

그는 조국에 돌아와서 짧은 기간에 위대한 수령님의 천출명장의 위용과 불멸의 업적을 최상의 경지에서 형상한 첫 장편서사시 《백두산》을 비롯한 여러편의 서사시와 서정서사시들 그리고

조국해방전쟁의 가렬한 불길속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들이 널리 애송한 장시 《조선은 싸운다》를 비롯한 다양한 주제의 서정시들과 독특한 정서적 색깔을 가진 생활적인 시들, 송시와 찬가, 정론시와 풍경시 등을 수많은 창작하여 자기의 창작생애를 빛내였다.

### 수령형상서사시 《백두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시문학의 특출한 창작성과에 대하여 강조하실 때마다 서사시 《백두산》의 높은 사상예술성을 두고 조기천의 창작활동을 높이 평가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조기천이 해방직후에 서사시 《백두산》과 같은 좋은 작품을 쓴것을 보면 정말 훌륭한 시인이라고 말하는것이 옳다고 하시

-----

다시는 망국의 땅에서  
노예를 낳지 않기 위해  
다시는 피눈물의 천대속에  
짓밟히지 않기 위해  
장군님의 선군만을 사랑하고  
꿈에도 선군만을 믿고 사는 우리

우리의 조국이고 태양이고 심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을  
목숨바쳐 옹위하는 그 길에서만  
우리 말하리라  
아버지의 딸이라고!

아, 값비싼 평화로 아름다운 이 땅에  
화려한 조선옷고름 꽃잎처럼 흩날려도  
마음속엔 누구나 조여매는 군복혀피  
군인은 나이를 묻지 않고  
군복은 성별로 입지 않거니

이 나라 룡해공군의 무력  
그것으로만 보지 마시라  
그뒤에 선 어머니들의 대군단  
결사옹위의 총폭탄들을 수풀처럼 떠올리는  
병사의 어머니도 이 나라의 병사!

위대한 선군령장을 모신  
위대한 조국이 있어  
무궁무진한 힘과 영광을 펼치며  
선군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자주적녀성의 본보기 녀성해방의 표대로  
찬란히 솟아오른 선군시대 조선녀성들

아름다우시라  
저 하늘의 달처럼  
태양의 무궁한 사랑속에  
밝게밝게 웃으시라  
강성대국 조국과 더불어  
길이길이 빛나시라 행복하시라!

면서 이런 명작은 아무나 쉽게 쓸수 없으며 오직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흠모와 충실성의 열정이 뜨겁게 끓어넘치는 혁명적인 작가, 재능있는 시인만이 써낼수 있다고 밝혀주시였다.

조기천이 첫 수령형상서사시 《백두산》을 최상의 대걸작으로 써낼수 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35(1946)년 작가들과의 접견석상에서 조국해방을 위하여 몸바쳐 싸운 항일혁명투사들의 투쟁위훈과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사적 같은것을 수집발굴하여 형상할데 대한 교시를 심장으로 받아안은것과 판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고 백두산장군의 천출위인의 기상에 매혹되어 한가슴 들먹이던 조기천은 《백두산》에 대한 영웅서사시를 쓸것을 결심하고 저물어가는 그해말에 백두산혁명전적지, 사적지답사의 길에 올랐다.

그는 항일혁명투쟁의 피어린 발자취를 따라 답사하는 과정에 수많은 감동적인 투쟁이야기와 사적자료를 수집하느라고 때로는 때식도 잊은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는 배낭을 메고 답사의 길을 실지 항일전에 참가한 항일투사들의 행군길로 이어가며 보천보에 이르렀다. 낮에는 가파로운 곤장덕에 올라가 보천보시가를 부감하였으며 밤에는 승리의 화불이 활활 타오르는 가운데 백두산장군이 연설하는 장면을 실지 목격하는듯 무한한 경모심을 안고 그려보며 시형상을 무르익혀갔다.

백두산답사의 길에 올라서는 멀리 혁명의 성산이 바라보일 때마다 소리높이 백두산을 불러보며 사람들과 연신 이야기를 나누었는가 하면 그것을 되받아 시로 읊어내려가기도 하였다. 원래 조기천은 시를 글로 옮기기 전에 먼저 즉흥시로 읊어보곤 하였다 한다. 당시로는 백두산답사길이 개척되지 않은 초행길인데다가 무두봉으로 올라가는 길은 좁은 발구길이나 다름없었고 천고밀림속에서 《따웅.》하는 백두산호랑이를 금시라도 만날것만 같았다. 그래서인가 조기천은 밀림이 설레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는 백두산을 바라보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가 하면 백두산아! 말하라고 불러내고 그에 화답하는 즉흥시를 읊어내려갔다고 한다. 이렇게 백두산답사과정은 취재과정이자 한장면씩 서사시를 익히고 실지 읊어가는 창작과정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백두산답사길에서 구상이 완전히 무르익었을뿐아니라 많은 장면들이 즉흥시적으로 속사되었다. 하기에 답사에서 돌아와서 정열적으로 창작전투를 벌려 다음해 2월에 장편서사시 《백두산》을 창작하여 처음으로 《로동신문》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기천은 오래동안 다른 나라에서 살면서도 언제나 떠나온 조국에 대하여 잊지 않았을뿐아니라 일제의 구두발에 짓밟혀 신음하는 조국땅 인민들에게 민족재생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조국해방의 새날을 안아오신 천출명장은 다름아닌 위대한 수령님이시라는것을 누구보다도 가슴뜨겁게 절감하였으며 백두산답사과정에 더더욱 마음속깊이 다져지게 되었다. 하기에 시인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흠모와 백두산장군의 천출위인상과 불멸의 업적을 충정으로 불타는 깨끗한 심정을 담아 이렇게 토로하였다.

3천만아여!  
오늘은 나도 말하련다!  
《백호》의 소리없는 웃음에도  
격과 솟아 구름을 삼킨다는  
천지의 푸른 물줄기로  
이 땅을 파몰아치던 살풍에  
마르고 탄 한가슴을 추기고  
천년 이끼오른 바위를 버루돌삼아  
곰팡이 어렸던 이 붓끝을  
육박의 창끝인듯 고무며  
이 땅의 이름없는 시인도  
해방의 오늘 말하련다!

...

조기천은 이렇듯 진심으로 되는 창작적충동을 충정의 열정으로 분출시키면서 천출명장 **김일성**장군님의 청사에 길이 빛날 조국해방위업을 만천하에 소리높이 노래하는것을 시인의 필생의 사명으로 여기었다. 하기에 시인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에서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민족재생의 서광을 비쳐주시고 피어린 영웅적 항일무장투쟁을 통하여 조국해방의 새날을 안아오신 영원불멸할 위대한 업적을 암흑의 땅우에 태양이 다시 솟은 천하의 일대사변으로 칭송하면서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불러 그 진정을 토로하였다.

...

동방의 줄기줄기들  
선축인양 한줄에 걷어쥐고  
만리창공에 백발을 휘날리며  
아득한 태고로부터  
이 나라 풍상의 나날을 날날이 곱어  
천산성악아, 백두산아!

오늘은 이 땅에 날이 밝아  
 오늘은 너의 천지에 채운이 서리우고  
 오늘은 너의 머리우에  
 창창한 대공이 열렸거니  
 너 백두야! 조선의 산아 말하라—  
 어떻게 떨어졌던 태양이  
 이 나라에 솟았느냐?  
 떨어졌던 태양이 다시 솟는 그때  
 네 누구를 맞이했느냐?

...

시인은 백두산혁명전적지, 사적지답사시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보고 감격에 겨워 불러보며 화답하듯 백두산장군별을 우러러 칭송의 승엄한 시세계를 펼쳐갔다.

...

백두의 주인공 삼가 그리며  
 3천만이며, 그대에게  
 높아도 낮아도 제 목소리로  
 가슴헤쳐 마음대로 말하련다!

...

이렇듯 시인은 백두산장군을 끝없이 흠모하며 해방된 조국땅우에 다시 솟아오른 민족의 태양으로, 민족의 의지와 신념, 희망을 한몸에 체현하신 불세출의 빨찌산대장으로 진정에 넘쳐 심장을 불태우며 칭송하고있다. 조기천은 천출명장의 위대성을 심장깊이 간직하였기에 해방직후 당의 령도체계가 확고히 선 수령형상서사시를 대결작으로, 옥으로 다듬어낸 첫 시인으로 되었던것이다.

해방직후로 말하면 조국땅이 북남으로 갈라져 정치정세가 복잡한데다가 지방마다 지방할거주의자들이 제노라고 머리를 쳐들고 초 《혁명》을 부르짖었으며 문학분야에서는 《응향》, 《문장독본》과 같은 변색된 잡지들과 출판물들이 제 나름으로 발간되었지만 조기천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대불변의 흠모심을 안고 그이께서 제시하신 새 문화 건설로선을 받들어나갔고 항일혁명투쟁을 형상화할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받아안고는 겨울철도 마다하지 않고 눈길을 밝으며 용약 백두산답사의 길에 올랐던것이다.

오늘 우리 시문학에는 해방직후 창작된 장편서사시 《백두산》에 이어 수많은 수령형상서사시들이 창작되고있지만 그 어느 작품이나 례외없이 백

두산의 정신, 백두산장군들의 천출위인상을 심장으로 받아안고 절대불변의 신념으로 간직하고 절절한 체험의 세계를 심장의 목소리로 터친데서 오는 웅당한 결실인것이다.

장편서사시 《백두산》이야말로 조기천과 같이 수령관이 투철하고 백두산위인에 대한 끝없는 존경과 흠모심을 안고 실지 답사과정에서 그 위대성을 심장으로 체득한 창작가, 시인만이 창작할수 있는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기념비적인 명작인것이다.

## 크나큰 조국을 한가슴에 안고

조기천의 시세계에는 그의 남다른 경력과 체험으로 하여 잃었던 조국의 그날에 대한 회포와 해방된 조국의 새생활에 대한 찬양과 광만적지향세계, 뜨거운 조국애의 시정신이 남달리 뜨겁게 맥박치고있다.

조국에 돌아와 그가 쓴 여러편의 서사시와 서정서사시들, 례하면 《생의 노래》, 《땅의 노래》, 《우리의 길》 등에서는 이 땅, 내 조국, 우리 인민의 어제날과 오늘날이 시인의 절절한 생활체험에 비껴 대조적으로 형상되어있으며 조국과 함께 희비애를 체험한 서정적주인공, 시인의 얼굴이 뚜렷이 안겨온다. 특히 새생활창조로 들끓는 보람찬 조국의 현실을 노래한 《보퉁에서》와 짧고 다감한 생활정서를 경쾌하고 색갈있게 노래한 《그네》, 《흰바위에 앉아서》, 《회파람》과 풍경시 《수양버들》 등에는 해방된 조국의 자랑스런 현실에 대한 찬양과 함께 시인의 절절한 조국애의 세계가 펼쳐져있을뿐아니라 민족적정서가 시줄마다에 색갈있게 철철 흘러넘치도록 다듬어지고 세련되어있다.

조기천은 그의 성장경력과 시창작의 길에 들어선 동기로 보아 언제나 조국을 한가슴에 안고 살아온 시인이였다.

그는 회령땅에 태를 묻고 어린시절 두만강가에서 소꿉놀이도 하였건만 일제강점으로 하여 한때기의 부침땅마저 빼앗긴 사람들이 남부녀대하고 두만강을 건너갈 때 아버지의 손길에 이끌려 바람세찬 이국땅 씨비리로 가야 했던 눈물겨운 그날의 모습을 잊을수 없었다. 하기에 산설은 이국땅에 갔어도 항상 고향산천과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리별의 서러움을 안고 살았으며 그것이 열정과 희망의 불꽃이 되어 일찌기 열의 시인으로서의 초행길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는 당시 쏘베트정권하에서 사범전문학교과

정을 마치고 이어 문학에 대한 끝없는 열망을 안고 움스크 고리끼사범대학 어문학과에 입학하여 문학공부에 전념하면서 조선현대문학과 민족시가들을 열독하였고 모국어를 능숙하게 습득하여 시창작과 습작도 정히 익혀나갔다. 그는 습작품도 먼저 조선말로 쓰고 지방신문에 발표할 때에는 로어로 대역하여 발표하곤 하였다.

그는 언제나 조국을 한가슴에 안고 문학수업을 근기있게 해나갔기에 고리끼사범대학과정을 마치기 바쁘게 그 초지를 더욱 완숙시키기 위하여 중앙아시아에 있는 크실-오르다 조선사범대학에 가서 모국어를 능숙하게 써가면서 교육활동과 시창작활동을 활기차게 벌려나갈수 있었다.

원래 문학수업과 학습에서 지구성이 있고 시작한 일은 열밤을 새워도 끝장을 보는 열정적인 성미를 가지고있는 조기천은 체격은 체소한편이었지만 이전 쏘련청년들속에 조선사람으로서의 강기와 민족성을 인상깊게 남겨주었다.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목적지향성있게 중앙아시아에 있는 조선사범대학으로 진출하여가는 그와 송별하는 석상에서 동창들은 저저마다 미래의 훌륭한 조선의 시인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축복해주었다.

원래 조기천의 시창작은 그가 17살되던 주체 19(193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당시 쏘련의 지방신문들에 여러편의 시들이 발표되었다.

그는 해외에서 교수활동과 시창작활동을 벌리면서도 일제식민지기반에서 조국해방이 이룩될 날을 그려보며 자신의 세계관적, 사상예술적자질을련마해나갔다.

잊을수도 떨어져서도 더더욱 살수 없는 조국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살아온 조기천이었기에 주체34(1945)년 8월 대일작전을 위한 원동군사령부가 조직되었을 때 용약 제1전선군에 탄원하여 일제관동군을 쓸어눕히면서 조국이 한눈에 안겨오는 두만강가에 이르렀던것이다. 그는 고향땅, 조국을 떠날 때 어린 나이에도 눈물을 쏟으며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보던 조국에 대한 잊을수 없는 감회와 걱정을 누를 길이 없었다. 이런 정서적체험을 조국에 돌아와 첫 서정시에 옮긴것이 《두만강》이다.

...

원한의 강, 피의 강  
이 땅의 눈물과 고통의 강 두만강  
이제야 그대는 와아 와아 자유롭게  
번쩍이는 파도의 칼로 앞길을 헤치며  
하늘을 떠받는 대해로 흘러흐르누나!

...

그는 일제강점으로 하여 찢기우고 짓밟혀 몸부림치며 눈물을 쏟던 조국인민들의 원한을 신고 흐르던 피의 강, 두만강이 오늘에야 자유롭게 격랑을 일으키며 해방의 기쁨을 알리는듯 소리치는 장쾌한 모습을 처음으로 보았던것이다. 첫 장편서사시 《백두산》을 쓰게 된것도 그렇듯 귀중하나 잃었던 조국을 항일혁명투쟁의 승리로 해방을 안아오신 천출명장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흠모와 감사로 하여 솟구치는 격정을 백두산바위돌을 벼루로 삼고 천지물에 붓을 찍어 열두밤을 새우며 단 몇달사이에 최상의 대결작으로 써낼수 있었던것이다. 이국땅에 가서는 조국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시를 익혔고 해방된 조국에 돌아와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랑만과 희열에 넘쳐 새 사회 건설에 일떠서는 창창한 조국의 열기찬 모습을 직접 심장으로 받아안고 시줄을 엮어나갔다.

그는 모란봉의 올밀대에 올라가 평양의 전경을 감회깊이 부감하면서 해방된 조국의 희망찬 모습과 새 사회 건설에 일떠선 우리 인민의 충천하는 기세를 감득하고 그 자리에서 붓을 대어 《올밀대에서 부른 노래》를 써냈는데 시줄마다에는 그가 그렇게도 그려보던 해방된 조국땅, 뿜어넘치는 혁명적열기와 생활랑만을 그대로 펼쳐보였던것이다.

조국이야말로 이국땅에 있었을 때나 귀국하여왔을 때나 그의 심장깊이 자리잡고있었기에 지난날의 회포도 나누고 오늘의 열기찬 랑만의 세계를 펼쳐주기도 하는 둘도 없는 시창작의 원천이었다. 하기에 그의 시세계에는 그것이 짧은 단시이건 중간형의 서정서사시나 긴 형식의 장편서사시이건 조국의 어제와 오늘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그려져있으며 조국과 잇닿아진 시인의 얼굴이 비쳐지지 않는데가 없다.

그는 조국에 돌아와서 첫 5.1절을 맞으며 쓴 서정시에서도 짓눌리고 철창속에 갇혀살던 지난날을 불사르며 해방된 조국의 큰거리에 나와 새 사회 건설에 떨쳐나선 인민대중의 장쾌한 대하의 흐름과 그 열기를 민주의 세계를 향하여 나가는 조국의 거세찬 모습과 결부시켜 노래하고있다.

조기천은 새 조국 건설의 벽찬 모습을 열렬한 조국애의 분출로 첫 서정서사시 《땅의 노래》를 단 며칠사이에 완성시키는 열의의 시인이었다.

발가는 소리 들려라  
북조선천지에 발가는 소리 들려라!  
이것은 천만의 흥금을 치는



빛나는 미래의 서곡이다  
 밭고랑도 기름 흐르리  
 이삭도 흥겨워 머리숙이리  
 어린이도 송아지같이 뛰놀고  
 부녀의 두어깨 잔디언덕마냥  
 동그렇게 포근하리  
 행복과 운명이 이 마을을 둘러싸고  
 자유의 신묘한 놀음을 베풀리!

...

이 서정서사시는 지난날 설움 많던 농민들이 토지개혁의 혜택속에 땅의 주인되어 제 밭에서 소를 몰아 봄밭갈이를 하는 농촌의 새 역사를 지난날 땅이 없어 눈물겹고 한 많던 머슴군의 과거와 결부시켜 대조적으로 엮어주고 있다. 나아가서는 지난날 땅을 빼앗겨 류량의 길에 올라 타향살이를 해왔던 자기 체험세계를 융해시킴으로써 조국을 한가슴에 안고 살아온 시인의 절절한 심정이 봄을 안고온 시세계로 맥박치며 흘러넘친다.

조기천이 조국에 돌아와서 쓴 농촌물들에는 이런 감정정서가 흘러넘치고 있다.

서정시 《보퉁에서》 하나만 보아도 그것을 잘 알 수 있다.

시인은 보퉁에 서서 벼포기 자라는 소리를 들으며 눈 들어 가없이 펼쳐진 푸르싱싱한 논판을 바라보니 그것이 하늘에 닿았다고 노래함으로써 시인의 가슴속에도 조국의 풍요한 땅이 한가득 차 있는 것이다.

눈 들어 바라보면  
 푸른 논판이 하늘에 끝나고  
 눈 들어 바라보면  
 줄져 선 새 기와집이 보란듯이 나서고  
 어디선가 노래소리 들려라!  
**김일성** 장군 노래소리!

내 마을 내 사람들이  
 새 삶을 찾는 이 보퉁!  
 내 이곳에 오르기만 하면  
 초소에나 선듯  
 온 마음에 서슬이 일거니

지키리라 우리의 보퉁  
 인민의 보퉁을!  
 내 영원한 초병으로  
 길이 지키리라!

시인의 심장깊이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그이의 령도밑에 새생활이 꽃피어나는 내 조국이 그렇듯 귀중하고 온 심장속에 한가득 채워져 있었기에 조국의 참모습을 안고있는 인민의 보퉁을 영원한 초병으로 길이 지켜가리라고 결구를 여운 있게, 힘차게 맺어줄 수 있었다.

그는 새 조국 건설에 펼쳐나선 인민들의 열기찬 투쟁과 생활량만, 그속에서 우러나오는 애국주의 정신과 다감한 정서를 언제나 현실에 나가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서는 조국으로 분출되는 시상을 농칠세라 백지에 시줄로 편속 옮겨갔다. 하기에 주체36(1947)년 한해만 하여도 정론시 《우리의 노래》를 비롯하여 《동해바다》에서 위용떨치며 새 조국 건설에로 나가는 우리 인민의 자랑찬 모습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는가 하면 다정다감한 정서를 한쪽의 그림마냥 정가롭게 펼쳐보인 사색적인 시 《흰바위에 앉아서》, 《휘파람》, 《그네》, 《수양버들》 등을 생활량만의 샘줄기마냥 시줄에 오리오리 엮어나갔다.

시인은 봄빛을 한가득 안고 줄줄이 드리운 수양버들이 자기 가슴속에도 푸르게 싱싱 자라난다고 하였는가 하면 흰바위에 앉아 개울물과 다정히 속삭이며 쉽없이 즐기치게 흐르는 물길에 낭떠러지가 있으면 천야만야 떨어져 산산이 부서진다고 해도 너와 같이 인생길을 맑고 쟁쟁하고 즐기치게 쉽이 흐르겠노라고 화답한다.

조기천은 하나의 짧은 서정시나 긴 시를 쓰는 경우에도 책상머리에 앉아 시줄을 골라가며 기교를 부리는 탁상문학을 해본 일이 없다. 그는 새 생활창조로 들끓는 공장과 농촌현실에 나가 새 조국 건설의 참모습을 언제나 흥분속에 받아안고 조국의 오늘과 래일을 보았으며 인상깊은 생활단면을 포착하는 경우에도 내 조국, 내 나라를 빛내여가는 사람들의 깊은 심중을 파고들어 그것을 조국의 창창한 미래와 결부시켜 량만적으로 서정화하였다.

그는 첫 2개년인민경제계획수행에 펼쳐나선 흥남지구공장을 찾아가 휴가기간을 보내면서 창조로 들끓는 조국의 비약하는 발구름소리, 로의 열풍으로 달아오른 로동계급의 심장의 박동소리를 들으며 장편서사시 《생의 노래》도 써나갔다.

그는 소탈하고 불임성도 좋은데다가 열정적이고 이야기도 잘하기에 인츰 로동자들과 휩쓸려 출근길도 같이하고 로앞에서 성수나서 즉흥시를 읊어 주기도 하였다.

참으로 조기천이야말로 이국땅에서 남다른 체험을 안고 시창작의 길에 들어섰고 조국에 돌아와서는 새생활창조로 들끓는 현실에 나가 조국의 어제

날과 오늘, 창창한 미래와 숨결을 같이하면서 분출되는 서정의 씨앗을 비옥한 조국의 토양속에 묻어왔기에 것처럼 짧은 시기에 우리 문학사에 빛나는 많은 시가작품들을 창작할수 있었던것이다.

## 전투적인 서정과 개성, 시인의

### 빛나는 삶

조국에 돌아와 새생활창조로 들끓는 이 땅, 이 제도를 마음껏 노래하던 시인 조기천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이 발발되자 창작사업도 전시체제에 맞게 전투적으로 하게 되었다. 그는 조국에 귀국한지 5년만에 또다시 군복을 입고 남진하는 인민군 대오와 함께 종군의 길에 올라 불덩이같이 달아오르고 산악같이 일떠서 싸우는 인민군대와 인민들의 피끓는 심장의 목소리를 담아 수많은 전투적인 시들을 련속 써냈다.

조기천은 준엄하고 가렬치절한 전쟁현실에서 분출되는 수많은 일화들을 잡아쥐고 남들처럼 전투실화에 담기에는 너무나도 아쉽고 열정이 북받쳐 올라 첫 서정시 《불타는 거리에서》를 5단락으로 된 긴 서정시로 써냄으로써 처음으로 우리 문단에서 장시형식을 개척하였으며 이어 그해 12월에는 《죽음을 원쑤에게》를 장시로 훌륭히 완성하였다.

조기천은 조국해방전쟁이 한창 가렬하였던 주체40(1951)년 새해의 첫 새벽을 맞으면서 판가리싸움에 필사의 각오를 안고 영웅적으로 떨쳐나설것을 호소한 서정시 《첫 새벽을 맞으면서》를 창작하였고 이어 2월에는 시 《조선은 싸운다》를 우리 군대와 인민모두가 불비속에서도 전쟁을 이겨가며 애송하는 걸작품으로 창작완성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우리 청년들과 인민군용사들은 누구나 시 《조선은 싸운다》를 잘 알고있었다고 하시면서 이 시는 싸우는 우리 인민의 영웅정신과 불굴의 기상을 시적으로 폭넓게 일반화함으로써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 필승의 신념과 멸적의 투지를 북돋아주었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싸우는 조선의 영웅적기상과 불굴의 투쟁정신을 가장 폭넓게 일반화한 《조선은 싸운다》는 장시창작의 집대성으로 될뿐아니라 시대의 한복판에 서서 항상 조국의 귀중함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살며 창작해온 시인의 전투적이며 애국적인 시정신의 최고의 분출이다.

그는 장시에서 물음(호사)과 대답(해답)의 형식으로 서사적요소를 적당히 안반침하면서 단락과 련을 기승전결의 론리에 맞게 호방하고 열정적으

로 터쳐나가다가 감정의 분출기점, 전환의 대목에 가서 《조선은 싸운다》는 표현을 강조해줌으로써 미제와의 판가리싸움에서 영웅조선의 전투적인 기상과 위용을 폭넓게 일반화하여줄뿐아니라 종자도 뚜렷이 살려내고있다.

#### —첫번째 단락(시적정황, 물음제기)

세계의 정직한 사람들이여!  
지도를 펼치라  
싸우는 조선을 찾으라

...

#### —두번째 단락(감정의 환기부분)

...

하지만 사람들은 살아있다  
불속에서도 연기속에서도  
인민은 살며 싸운다  
조선은 싸운다!

...

#### —세번째 단락(승화부분)

...

만일 하늘에 하느님이 있어(첫행)  
낮과 밤을 내었다면  
조선사람을 보고 놀라리라  
...  
싸우는 조선의 밤 모르는 후방(마지막행)

#### —네번째 단락(재승화)

...

동틀무렵 그는 홀로 남았다(첫행)  
...  
마지막탄환으로 원쑤를 찾았다(마지막행)

#### —다섯번째 단락(다시 재승화)

...

싸우는 조선의 전방아!(첫행)

...  
모든것을  
생명도 사랑도 청춘도  
조국에 바치여  
인민은 싸운다!(마지막행)

—여섯번째 단락(감정의 전환)

...  
세계의 소박한 사람들이여!  
싸우는 조선의 말을 들으라(첫 두행)  
...

—일곱번째 단락(감정의 고조와 맺음)

불타는 조선  
싸우는 조선의 이름으로(첫 두행)  
...  
조선은 싸운다!

조기천의 이런 시적구성의 솜씨는 일찌기 장편서사시 《백두산》에서 능숙하게 구현되었으며 이 장시에 와서는 시어의 선택과 표현수법, 시문장조직과 운물조성에서도 독특한 문체적인 개성을 보여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조기천이 자기 문체를 가진 재능있는 시인이라고 할수 있는것은 그가 쓴 시적표현이 매우 독특하고 기발하기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모방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작가들은 자기의 얼굴, 자기 고유한 언어발을 가지고 문단에 나서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일찌기 이국땅에서도 떠나온 조국을 심장속깊이 간직하고 우리 말 언어훈련과 시창작기능을 꾸준히 련마해온 조기천이기에 첫 장편서사시 《백두산》에서 개성적인 문체를 가진 언어명수로서의 시인의 얼굴을 뚜렷이 드러내보였다면 그런 재능, 문체적개성이 장시 《조선은 싸운다!》 한편의 시에도 축도되어 그대로 표현되어있다.

...  
태양도 검은 연기속에서  
피같이 타고있는 조선!  
폭격에 참새들마저 없어진 조선!  
...  
깜깜한 밤길!

시한탄에 밤이 뒤는 신작로  
죽음이 목숨을 틀어잡는 여기서  
무슨 그림자이나 말소리냐  
《치기영—어기영—치기영  
...》

...  
북구대인가 로력대인가  
전동기소리 기대소리 마차소리

시는 강렬한 호소성과 격정을 터칠수 있게 거센소리, 된소리 단어들과 형용어들을 능숙하게 다루고있는가 하면 강한 비유와 상징, 과장법, 언어운물적기교를 자유자재로 활달하게 씌으로써 전투정황과 영웅적기상에 맞게 긴박하면서도 강렬하고 견인력있게 전투적인 서정을 격조높이 이끌어나가고있다.

실로 조기천은 시의 정서와 격정에 맞게 언어를 선택하고 표현수법과 운물성을 살려씀으로써 시인으로서의 자기 언어발과 함께 문체적개성을 뚜렷이 한 시인이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비행기사냥군조》 운동이 벌어졌을 때에는 직접 전투현장에 배낭을 메고 내려가 적비행기와 직접 싸우면서 서사시 《비행기사냥군조》를 쓰다가 완성하지 못한채 영웅적으로 전사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력사적인 로씨야방문의 분망하신 그 나날 뽀슈깁명칭 움스크국립과학도서관을 참관하실 때이다. 이곳 일군들은 자기들의 도서관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릴 마음으로 움스크고리끼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세계적으로 이름난 조선의 시인이 된 조기천의 성적증을 전시해놓고 해설원은 조기천을 《조선의 마야콥스끼》라고 말씀올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때 수행한 도서관일군들을 정당게 둘러보시면서 조기천이야말로 조선의 뽀슈깁이라고 정정하여 새로운 평가를 주시였다.

시인 조기천은 애국렬사릉에 안치된 《혁명시인 조기천》의 묘비와 함께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사랑을 받는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시인, 세계적인 문호로서의 창작생애를 영원히 빛내여가고있다.

시 초

## 희천땅의 메아리

맑고 좋은 날은 모두 인민에게 주시고  
찬바람불고 눈비뿌리는  
희천땅의 험한 산비탈길로  
기적의 기념비를 세우시려 여기 오신  
불멸할 개척의 그 자욱...

만년세월에도 씻기지 않고  
억년 해와 달이 가도 잊음이 없을  
아, 그 자욱 젖어드는 마음속에 부여안고  
가슴 닳도록 쓸어보고 또 쓸어보며  
우리 삼가 이 붓을 드노라

## 《희천에서 다시 만납시다》

한 광 춘

10년 또 10년  
녕원의 언제를 쌓아올린  
미더운 근위부대—  
장군님은 수고많은 부대장의 손을  
꼭 잡아주신다  
—희천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러시고는  
아무 말씀없이  
녕원땅의 눈비가 수십년세월 스쳐간  
대좌의 어깨우에  
생각깊이 없으시는 아버지의 손길

아, 그이께선 그렇게  
조국의 지도에 또 하나의 언제를 새겨넣을  
수많은 병사들의 젖은 어깨를  
오래도록 쓸어보고 또 쓸어보시는것이다

순간 대좌의 마음속에  
옥— 치밀어오르는 격정  
귀전에 다시금 메아리치는  
그이의 말씀  
—희천에서 다시 만납시다

가슴에  
산악이 무겁게 실리었다  
그것은

그이의 산같은 믿음의 무게

틀어진 주먹에  
피줄이 일어섰다  
그것은  
그이 주신 힘의 용솟음

그 말씀 한마디로  
그이는 떼어주시었다  
희천땅을 타고앉아 언제를 일떠세울  
병사들의 그 장한 첫걸음을 떼어주시었다  
가슴벅찬 승리를 벌써 눈앞에 보게 하시었다

이제 그 어떤 천연암벽이  
장군님의 용맹한 근위병들  
폭풍쳐 열어나가는 돌격로 가로막을수 있으랴  
이제 그 어떤 강줄기가  
병사들의 억센 그 손에 길들여지지 않으랴

오, 묻지 말라  
강성대국의 돌파구가 열리는 이 땅에  
병사들이 무엇을 안고왔는가를 묻지 말라  
—희천에서 다시 만납시다  
불붙는 가슴에 피끓는 가슴에  
오직 이 말씀 한마디를  
병사들은 심장처럼 지니고 왔다!

## 여 기 로!

차 영 도

거룩한 령장의 손길이  
푸른 번개 그으며  
이 땅의 한 지점을 가리키자  
삼천리에 피줄뻗친 내 조국강토가  
힘을 모으듯 부르르 떨며

강성대국대문의 손잡이를  
주저없이 덥석 틀어잡은 여기 희천!

눈길들어 더듬어보자  
이 나라 곳곳에서 위훈떨친

건설장의 호랑이병사들  
최고사령관이 가리키신 화살표따라  
군화에 묻은 젖은 몰탈 털새도 없이  
주먹쥐고 달려온  
철의 사단들과 근위려단들

금야강발전소건설부대는 어디  
송원언제건설부대는 또 어디  
오, 포화속을 달려온 군용렬차마냥  
격전을 치른 기중기며 혼합기며 불도젤을  
차판마다 무겁게 실은 특별전용화차들이  
꼬리물고 들어서는 희천땅

어느새  
산발들에, 골짜기에 불은 일어  
무섭게 들이박히는 굴착기의 이발에서  
불꽃이 튀는 소리, 착암기소리...  
벌써 산판을 하얗게 덮은  
저 병사들의 돌격의 함성소리—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지척에서 멀리에서  
이 땅 한끝에서 방방곡곡에서  
사품치는 물길이 굽을 따라 모이듯  
천만군민의 가슴에 이는 격랑이  
와— 와— 소리치며 모여드는 여기!

이름모를 산간역  
갈래뿔은 철길을 지켜선  
단발머리 나어린 처녀도

폐속으로 달려온 세멘트차량을 받기며  
희천을 향해, 희천을 향해  
전철기를 힘껏 잡아제긴다

저 멀리 평양에선  
국가계획위원회 이름모를 국장이  
온밤 희천을 불안고  
이제 머지않아  
언제가 되고 물길이 되고 발전소타빈이 될  
그 많은 자재계획수차들과 밤씨름할 때

밤노을 불타는 강선의  
초고전력전기로 용해공들은  
희천이 기다리는 강재를  
차판이 휘도록 떠밀어보내면서도  
더 보내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무쇠가슴 두드린다!

오, 희천!  
조국앞에  
시대앞에  
혁명앞에  
결사의 각오안고 나선 땅!

오늘도 희천은  
강성대국을 받들어올릴 전기를 위해  
어깨무거운 짐을 떠메고  
천만군민을 소리쳐부른다  
여기로!  
여기로!

## 격전장의 웨침

### 문 용 철

아득한 산발들엔  
발파가스 자욱히 흐르고  
공격으로 부르는  
짧고 빠른 전선술어들이  
번개치듯 울리는 건설의 격전장

귀전을 때리는 그 부름들속에  
가슴을 치는 하나의 웨침이 있다  
불타는 화선의 고지들에 울려퍼지던  
50년대의 메아리  
—당원들 앞으로!

그 부름에  
공격전의 서렬을 맞추며

불꽃튀는 전투장들마다엔  
당원돌격대의 기발이  
군기처럼 나뭇긴다

그 어떤 전투명령도 가닿을수 없는  
무너진 막장속에서도  
심장의 이 부름은 명령을 대신한다  
하여 착암기의 동음은 다시 울리고  
대오는 암벽을 뚫고 전진한다

누구도  
구령을 내릴수 없는 그러한 곳  
도화선이 타드는 불길속  
사품치는 차디찬 얼음물속에

당원들은 자기의 심장에 구령을 내리며  
돌격의 첫번째 기수로 뛰어든다

산악을 허물고  
강줄기의 흐름을 돌려세우며  
격전속에 해가 뜨고 날이 저무는  
계곡과 산밭들에 메아리치는 웨침소리  
—당원들 앞으로!

최후공격전의 선두에서 내닫는  
희천의 화선당원들이  
온 나라 수백만 당원들의 가슴을 두드리는  
진격의 퇴성, 심장의 부름  
—당원들 앞으로!

그 소리 총탄처럼 날아간다  
쇠물이 사품쳐끓는 용광로와  
탄전의 막장으로  
이랑이랑 푸르러가는 전야를 지나  
당원들이 지켜선 초소와 일터에로

오, 당원들 앞으로!  
최후승리의 격전장  
희천은 부른다 웨친다  
피끓는 이 부름과 함께  
결전의 고지  
준공의 언제를 딛고 넘어  
조국은 강성대국의 대문으로 들어서리라  
2012년의 봄을 맞으리라

## 에 돌아갈수 없는 땅

장 명 길

제대배낭 가볍게 메고  
병영을 나선 병사  
그는 고향으로 갈수도 있었으리  
그러나 조국의 아들은  
희천! 이 무심히 지날수 없는 땅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고향과  
조국이  
서로 부르는 갈림길에서  
그가 멈춘 걸음  
—희천의 언제를 쌓고 가리라!  
병사의 가슴속엔 비장한 결심이  
바위처럼 들어앉았다

아, 애어린 어깨우에  
병사배낭지고 나선 그날부터  
이 나라 곳곳에  
건설의 기념비 많이도 세워온 병사  
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들 누가 탓하랴만  
차마 이 희천땅을 에돌아  
고향으로 갈수 없었다

복무의 기나긴 나날  
병사의 심장에 자리잡은 조국!  
힘겨운 건설장마다에서  
조국과 너무도 진한 땀으로 인연 맺어왔기에  
고향보다 어머니조국의 부름을  
더 소중히 받아들일줄 아는 병사—

우리 장군님  
찬눈을 맞으며 오시여  
위대한 력사의 전환점을 찍으신 땅  
너무도 할 일 많은 이 땅을  
병사는 에돌아갈수 없었다

오, 조국이어  
그대의 삼천리에  
기어이 강성대국을 일떠세우실 단호한 결심  
여기 희천땅에 새기신  
최고사령관동지의 그 거룩한 자욱을  
병사는 에돌아가지 않았다!  
에돌아갈수 없었다!

## 병사의 이야기

문 용 철

저길 보라고...  
아득한 산정에 나뭇기는

붉은 기발을 가리키며  
저것이 쌓아야 할 언제의 높이라고

웃으며 말하는 병사

벌써 몇개의 산악을 허물었다고  
푸른 산맥을 꺾질러  
물길굴은 뻗어간다고  
장자강, 청천강  
태고의 두 강줄기가  
사나운 갈기를 숙이기 시작했다고

건뚫 불어오는 산바람에  
땀을 흠치며  
걸어붙인 팔뚝을 허리에 얹고 선 병사  
그는 대자연의 정복자  
전설의 거인인듯

찍 벌어진 그 구리빛가슴은  
물도 불도 암벽도 뚫고 헤쳐온 가슴  
온 조국땅을 트랙처럼 밟으며  
땅우에도 땅밑에도  
무수한 창조물들을 안아세운 가슴

소소리높은 산발들  
그의 담찬 가슴앞엔 어깨를 낮추고  
엎들며 굽이치는 여울물도

그의 발치에 어리광치며 흐른다  
무수한 저 하늘의 별들이  
땀젖은 그의 어깨에 내리어  
위훈깃든 령장우에 빛을 뿜는다

저길 보라고...  
이제 3년후면  
지도에 없었던 새 호수가 펼쳐진다고  
물보라를 휘뿌리며 수문이 열리는 그날  
우리의 구슬땀이 행복의 불빛으로 흐르리라

산도 강도  
흐르는 세월도  
장알박힌 두손에 틀어쥔듯  
2012년의 첫 설을  
준공의 언제를 타고앉아 쇠리라  
주먹을 흔들어보이는 병사—

착암기를 닮은 돌러메고  
그는 활개쳐 걸어간다  
그의 가슴속엔  
눈뿌리 아득히 치솟을 그 언제가  
개선의 병사마냥 딛고 넘을  
강성대국의 문턱인듯—

## 전설장소묘

### 리 창 식

#### 1

잡자던 심산계곡이 번쩍 눈을 뜬게다  
불달린 착암기소리 이골저골 메아리치고  
이산저산 발파소리 산촌의 잠을 깨우니  
어허— 회천땅에 큰 변이 났나부다

접어드는 그 기세 만만치 않은 두 러단장  
물길굴을 마주하고 맞불을 걸었거늘  
결판 못낸 씨름경기 에서 다시 겨룬다니  
이 산도 머지않아 맞창이 날게다!

#### 2

짜르릉— 온 산발을 들었다놓는 소리—  
앞산의 허리가 몽청 잘리웠다  
발파연기 자욱한 벼랑턱에 걸터앉아

공로많은 발파공아바이 담배쌈지 퍼드시네

마라초를 매만지는 태평스런 저 줌안에서  
허리잘린 큰 산이 한평생 얼마나 될가  
대령강과 폐성강을 길들인 건설의 로병  
삼년안에 휘여잡을 청천강을 굽어보네

#### 3

밤하늘엔 별이 총총  
애슬가지엔 이슬이 반짝  
한바탕 일을 제깎 돌격대의 막병이  
바위돌을 베개삼아 군잠들었네

가설막도 치기 전에 첫 격전을 벌렸으니  
설사 한지에 누울지언정 탓함이 있으랴  
이슬젖은 바위를 언제처럼 베고 누운듯  
못별아래 꾸는 꿈도 언제우에 없었다네



# 희천의 150일!

리 창 식

해가 뜨고 달이 저서  
흘러가는 날이 아니다  
가벼이 일력을 번저  
세일수 있는 날이 아니다  
이 땅의 불같은 150일이  
여기 희천에도 흐르고있다

온 나라 폭풍치는 비약의 열풍을 안고  
거치른 산덕 단숨에 헐어내는  
굴착기의 무쇠팔뚝에  
불이 당겨 내닫는 차바퀴들에  
번개를 일으키며 흐르고있다

흐르고있다  
아름찬 10년과제를 3년에 끌어안고  
쪽잠의 꿈에조차 전투일지를 더듬어 찾는  
부대장의 터갈린 입술에도  
돌격로 열여가는 피어린 자욱마다  
메아리쳐 울리는 결사전의 노래에도

오, 희천의 150일  
그 하루하루는 불을 토하며 흐르고있다  
이 땅에 흘러가는 낮이여 밤이여  
한껏 달아오른 시대의 숨결이여  
부디 여기 격전의 산발들을 거쳐 흐르라

가슴끓어오른다  
우리 장군님 지퍼주신  
150일전투의 불길을 안고 달리는 내 조국  
화광이 충천하는 전기로들과  
상원과 순천의 회전로들이  
거세찬 불바람을 일으킨다

수천척 지하막장 탄전들이여  
너의 발파시간을 다시 재이라  
푸른 이랑 살찌우는 전야의 주인들이여  
배미마다 흘린 땀을 량심으로 헤아리라

이제 결전의 150일로 이어지고 이어질  
희천의 3년  
2012년으로 육박하는 내 조국의 3년  
무엇이 다르랴  
피로써 전승을 안아온 전화의 그 3년과

오, 한몸 불덩이가 되어서라도  
승리의 돌파구 열어제껴야 할  
우리의 150일  
락원에도 내닫는 영웅조선의 150일이  
여기 희천에서도 흐르고있다  
불같이 흐르고있다!

## 2012년을 향하여 앞으로!

차 영 도

강산에  
초목에  
그리고 우리의 생각깊은 가슴에  
수령님의 끝없는 생애의 그 해와 달이  
어느덧 백년세월의 년륜을 감아올릴  
2012년!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으시고  
이 력사의 해를  
5천년 민족사우에  
가장 눈부신 해로 빛내이시려  
우리 장군님  
이 나라 천만군민의 가슴속에  
강성대국의 이정표로 우뚝 세워주신 2012년!

피가 끓는다  
그날이 벌써 눈앞에 보인다  
이 땅 삼천리를  
온통 무지개로 휘감고  
2012년의 해돋는 지평선우에

신기루마냥 우뚝이 솟아오르는  
주체의 강성대국!

이제 그날까지  
우리앞에 놓인 3년세월은  
천만군민이 주먹쥐고 달려야 할 직선주로!  
력사가 것처럼 오랜 세월 넘겨다보던  
그 숙망의 기슭에  
우리 장군님 거인의 손길로  
세기를 끄당겨 놓아주신 기적의 다리!

우리앞에  
구슬처럼 꿰어진  
이 3년세월의 날과 날중에  
어느 하루라도 단 하루라도 헛되이 잃으면  
그 다리는 못 건너  
2012년으로 못 가!

아, 우리 수령님  
이 땅에 세워주신 내 조국이

기어이 가닿아야 할 이 길!  
걸음이 모자라면  
날아서라도 가야 할 길  
바치는 땀이 모자라면  
피를 뿌려서라도 가야 할 길

이 나라 공민들이여  
애국의 더운 피 한껏 끓이라  
지금 여기 회천에선 결사전이 벌어지고있다  
2012년앞에  
산악같이 쌓아야 할 언제  
기어이 뚫어야 할 수십리 물길...  
잠을 잊은 두눈에 피발이 일어서고  
착암기를 틀어쥔 손엔 피가 흐르고있다!

당원들이여!  
그대들 이날까지  
자기 안해에게조차 꺼내보인적 없는  
조선로동당원증을

이 2012년앞에  
심장을 맡기듯 내놓아라!

피끓는 청년들이여, 병사들이여  
사랑하는 어머니조국을 위해  
꽃다운 생의 마지막구간을  
피젖은 열다섯걸음으로 서슴없이 마감지는  
리수복영웅의 그 고귀한 생을  
2012년앞에 거울로 놓고 살라!

오, 2012년은 우리의것  
강성대국은 분명 우리의것  
결전의 길에 높이 날리는 최고사령관기는  
우리를 승리로 인도한다  
이 나라 천만군민이여  
2012년을 향하여 총돌격 앞으로!

[주체98(2009). 5. 27]

## 땀 방 울...

### 심 복 실

더운 입김 하야니 날리며  
장자강 맑은물 한초롱 퍼올리니  
그속에 비치는 내 모습우에  
구슬지며 떨어지는  
땀방울!

그것이 옥이라면  
건지여냈을가  
가없는 바다우에 떨어진 예쁜 진주인양  
물속에 스르르 사라져 없어지는 땀방울!

내 마음엔 지금 밝은 해살이 무늬를 짠다

사람의 땀은 구슬보다 비싸...  
하지만  
물에 풀려 못 건지는것 아니다  
혼합물에 쏟아 번뜩이는 샵날로 걸싸게 이겨갈 때  
조각조각 물탈속에 개여지는 나의 모습이여

옥이라도 그냥 쏟았으리  
금이라도 그냥 이겼으리  
그보다 귀한것 있다 해도 아깝지 않으리라...  
장군님 기뻐하실 새 발전소언제 되고 물길굴되어  
집집의 창가마다 행복의 밝은 빛 뿌려줄  
아, 땀방울!

### 상 식

## 《컴퓨터정보전》

《컴퓨터정보전》이란 컴퓨터망을 리용하여 상대측 컴퓨터에 보관된 정보자료를 뽑아내거나 파괴하는것을 말한다.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컴퓨터들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인터넷으로 련결되어있는데 이것은 상대측 컴퓨터에 침입할수 있는 조건을 지어준다.

우선 합법적인 리용자로 가장해서 상대측 컴퓨터의 암호해독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정보자료에 대한 암호열쇠를 알아낸다. 다음 정보자료를 뽑아내고 상대측 정보를 파괴하기 위해 파괴작용을 하는 프로그램을 상대측 컴퓨터에 넣어준다.

높은 프로그램기술을 요구하는 《컴퓨터정보전》은 오늘 세계적범위에서 맹렬히 벌어지고있다.

## 《 메 주 풍 경 》

조 인 영

풍경이라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생각할것이다.

하지만 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도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취재길에서 자연의 경치가 아닌 인간생활의 이채로운 풍경을 볼수 있었다.

그것이 바로 준공을 며칠 앞둔 원산청년발전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만나주셨던 한 제대군인부부의 가정에서였다.

눈부신 햇빛이 공간을 짝 채운 봄날에 살구나무와 추리나무, 감나무 등 과일나무들로 둘러싸인 로동자주택지구의 한 정원에 들어섰을 때 온 세상에 선보인 그 메주를 빚은 당사자 윤명순동무가 미소를 지으며 달려나와 반갑게 맞아주었다.

가름한 닭알형의 얼굴에 검고 평평한 두눈이 인상적인 포병출신의 제대군인새각시였다.

우리는 스스럼없이 통성을 했다.

그가 철령이 바라보이는 고산중학교 졸업생이라는데로부터 대뜸 나이의 간격을 넘어 허물없이 의사소통이 되었다. 나역시 그보다 수십년 앞선 고산중학교 졸업생이었던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며 칭찬해주신 메주이야기부터 듣자고 하자 명순의 얼굴에 그날의 추억을 떠올리는듯 감회깊은 표정이 어리었다.

그 메주는 윤명순의 첫 솜씨라 했다.

명순이는 처음 하는 일에 장맛이 나지 않으면 어쩌나 근심도 했다고 한다.

예로부터 장맛 단 집은 마음씨도 곱고 말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고 했는데 글썽한 집안의 인격과 가풍이 비껴지게 될 장을 맛있게 담그지 못하면 어찌겠는가.

안해의 근심을 헤아린 남편이 말했다.

《여보, 우린 다 제대군인이요.

우리에게야 〈하면 된다!〉는 배짱이 있지 않소. 선군시대에 제대군인가정에서 담근 장맛이 쏠리야 있겠소.》

호기있게 내치는 남편의 말에 안해의 마음도 흥그러워졌다. 그래서 안해는 콩을 담그었다가 메주를 빚었다고 했다.

빚어놓은 메주덩이의 길면이 꾸둑꾸둑해지자 남편은 익숙한 솜씨로 새끼를 꼬았다.

신혼부부는 다정하게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새 집의 벽면을 장식하듯 정성스레 메주를 달아매었다.

텅 비였던 옷방벽이 때없이 눈길을 끌었다.

그들부부에게는 날마다 메주를 바라보는것이 하나의 즐거운 정서로 되어버렸다.

《잊을수 없는 그날 옷방에 올라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안색이 대번에 환히 밝아지시였습니다.》

남편인 김광춘의 이야기였다.

...

기꺼우신 눈길로 벽에 주렁주렁 걸린 메주를 띄여보신 그이께서는 거 정말 보기 좋다고 즐겁게 웃으시었다. 그이께서 기뻐하시자 방안에는 대번에 화기가 넘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메주를 잘 빚었다고 주부의 솜씨를 칭찬하시고는 어떤 집들은 꽃무늬화보로 벽을 치장하는데 여기서는 메주로 장식해놓으니 얼마나 볼만 한가, 지금 군대에서나 사회에서 흔히 보게 되는 메주풍경이 아주 이채롭다고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메주를 쑤어 띄우는 법과 장 담그는 법이며 간장을 내는 일에 이르기까지 친정어머니의 심정으로 다심하게 가르쳐주시였다. 장군님께서 활달한 손세를 쓰시면서 유력사람들이 우리 조선사람들의 체질이 어떻게 되어 그렇게 강한가 하는것을 연구하던 끝에 그 비결을 메주장에서 찾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손수 메주덩이를 만져보시고 메주가 잘 뜨는걸 보니 장맛도 좋을것이라고 치하해주시였다.

그날 파분한 그 치하에 김광춘, 윤명순부부는 너무 기뻐서 어쩔줄을 몰랐다고 한다.

이야기를 듣는 나의 마음도 마냥 후더워졌다.

조선민족만이 지니고있는 고유한 맛과 향취, 미풍양속을 그토록 귀히 여기시여 선군장정의 드바쁜 여가에 메주앞에서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신 민족의 아버지의 자애깊은 헌신의 모습에서 한없는 격정을 느끼였다.

범상히 스쳐보낼수 없는 《메주풍경》!

이것 역시 선군시대가 낳은 이채로운 정경이 아닐가.

그러고보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현지도의 길마다에서 만나주시는 사람마다, 들려주시는 가정마다 들어주시고 보아주시는 저런 인상적이고 감동적인 장면, 풍경들이 얼마나 많고 많은가.

이런 전설같은 이야기, 이런 아름다운 풍경들이 모이고 쌓여 경애하는 장군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내 나라는 일심단결의 크나큰 대화원을 이루고있는것이다.

나는 선군시대가 낳은 또 하나의 이채로운 풍경을 마음속에 깊이깊이 담아두었다.

# 수령의 내면세계를 파고든 새로운 시형상

—시 《전쟁》을 두고—

김영순

시대를 선도하는 시인들에게 있어서 수령형상문제는 중요한 과제로 나선다. 더우기 수령의 고매한 품모를 보여주는 덕성자료들을 시화하는것은 매우 필수적인 문제이다.

우리 시문학력사에는 수령형상주제의 시들이 많다. 그런데 수령의 업적을 시로 형상한 일부 작품들에서는 일정한 도식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경향을 찾아보게 된다.

지금까지 창작된 수령형상시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우선 수령의 천제적안목을 격찬하는데 주도적 힘을 넣고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걸린 문제를 두고 고민하는 민들의 형상, 바로 이런 때 어버이수령님께서 오시여 천리혜안의 예지로 손쉽게 풀어주시는데 대하여 형상한다. 그리고 마감에는 《아무렴, 우리수령님이 아니시구야 누가…》하는 식으로 끝을 맺고있다.

또한 뒤집기수법으로 수령의 위대성을 형상하고있다. 다시말하여 예상을 뒤엎는 뜻밖의 사실을 펼쳐보이면서 수령의 위인적품모를 형상하고있다.

례를 들어보자.

전쟁이 한창일 때 어버이수령님께서 어느 군수공장을 찾으신다.

포탄… 탄약때문에… 전쟁의 운명을 한몸에 안고계시는 수령님께서 이제 어떤 과업을 주실것인가 하는 호기심에로 독자들을 끌고간다. 그런데 뜻밖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 아이들의 세발자전거를 만들라고 과업을 주신다. 그때에야 노동자들은 《우린 벌써 이겼다.》라고 마음속으로 웨친다.

이렇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실앞에서 수령의 위대성을 부각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품에서 수령의 인간성은 행동이나 대사에서도 나타나지만 보다는 내면세계를 펼쳐보여주는데서 뜨겁게 발현된다. 하나의 문제를 놓고도 사색

하고 또 사색하며 행동하는 수령의 풍부하고도 심오한 내부적체험세계를 깊이 펼쳐보여주지 않고서는 수령의 위대한 인간적품모를 생동하게 드러내기 어렵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바와 같이 수령을 형상하는데서 수령의 내면세계를 깊이 펼쳐보여주는것은 수령의 위대한 인간적품모를 생동하게 보여주는 뚜렷한 방도이다.

시는 역시 시다와야 한다.

덕성자료를 기계적으로 옮겨놓는것은 시의 생리를 무시한 그릇된 창작태도이다.

아무리 감동적사실을 소재로 하여 시를 썼다고 해도 시인의 뉘이 없으면 그것은 《자료》일뿐이지 결코 시가 될수 없다.

시 《전쟁》〔럼형미 작, 《조선문학》잡지주체96(2007)년 7호〕은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한 인민군군관의 안해가 후퇴도중 세살난 아이를 잃어버린것을 아신 어버이수령님께서 명령을 내리시여 아이를 찾게 하신 감동적인 사실을 소재로 하여 쓴 시이다. 그러나 시는 사실을 기계적으로 옮겨놓은것이 아니라 그 사적자료에 감동된 시인의 끓어오르는 심장에서 용해되어 뿜어져나온것으로 하여 시는 감동적이며 매혹적이다.

작품의 첫 시작부터 다른 시들에서와 같이 사실자료를 객관적립장에서 설명투로 이야기한것이 아니라 전후사연을 어버이수령님의 심리세계를 통해 펼쳐보여주고있다.

아장아장…

전쟁인줄도 모르고

세살난 어린것은

엄마엄마 울며 찾다가

어느 락엽무지속에 쓰러져 잠들겠지

…

시는 이렇게 엄마품에서 떨어져 풀송구리속에서

울고올다 잠들었을 애어린 아기를 그려 보시는 우리 수령님의 마음속 생각을 섬세하게 그려보이고있다. 다시말하여 기성적으로 내려오던 정황, 사건을 조성하지 않고 수령의 내면세계를 펼쳐보이고있는것이다.

그 다음 시에서는 그 아이가 바로 한 인민군군관의 아들이며 올망졸망 세 어린것을 데리고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길에 오른 한 녀인이 잃어버린 아이라는것을 보여준다.

...

최고사령부 작전도  
끓고푸른 무수한 화살표들에  
어롱어롱 보이는것은  
오직 아이뿐

...

작전도에 표시된 끓고푸른 무수한 화살표들은 그대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고계시는 수령님의 형상을 부각시켜주고있다. 결코 한 어린애의 아버지로서만 될수 없는 긴박한 정황을 숨가쁘도록 느끼게 하고있다.

민족의 운명이 우리 수령님의 어깨우에 짊어져 있다.

왜? 바로 그때가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였던것이다. 그런데도 그 운명적인 화살표들에서 어롱어롱 보이는것은 오직 아이뿐이신 아버지수령님의 그 인간적인 심리세계를 깊이 파고들고있다.

그렇다. 우리 수령님께서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기 전에 인간이시였던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수령님께서 시급히 기다리는 수많은 작전적구상을 앞에 두시고 그 애 어린 아이때문에 《심장을 저미는 아픔을 느끼시며》 피로와하신다.

얼마나 진실하고 생동하면서도 감동적인가.

위인의 인간적품모가 아무런 설명이 없이도 독자들의 심장을 틀어잡는다. 바로 여기에서 시인의 얼굴이 보인다.

《가만, 애를 잃은 지점이 어디라구?》

아버이수령님께서 물으신다. 드리지 말아야 할 보고를 안고온듯 차마 말쑥드리지 못하고 런락군관은 눈길을 떨군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엄혹한 시련이 앞에 놓여있다.

삶과 죽음의 도가니속에서 무슨 일인들 없으랴.

삶중에도 가장 거대한 삶, 승리중에도 가장 격렬한 승리만이 판가리되는 여기 작전도앞에서 최고사령관의 붉은 색연필에 엄마읽은 세살난 어린애가 천만근의 연추를 끄울게 될줄을 어

이 알았으랴.

시인은 서둘지 않았다. 다른 시각으면 즉석에서 구원명령을 내리시는 우리 수령님을 형상할것이다. 이것으로서는 아버지수령님의 위대성은 나온다. 하지만 작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수령이 지닌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보여주는데서 형상을 격식화하거나 기정사실화하지 말아야 한다. 일부 작품에서 수령의 형상이 딱딱하고 격식화되어 무미건조하게 안겨오는것은 수령과 주위 인물들사이의 인간적인 관계를 깊이 파지 않고 공식적인 관계로 그리기때문이다. 때문에 하나의 문제를 놓고도 사색하고 또 사색하며 행동하는 수령의 풍부하고도 심오한 내부적체험세계를 깊이 펼쳐보여주지 않고서는 수령의 위대한 인간적품모를 생동하게 드러내기 어렵다.

수령의 형상에서 어떤 결과만 강조하고 그 결과를 이룩할 때까지의 체험세계와 심리적굴곡과정을 진지하게 파고들지 않거나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 즉석에서 척척 결론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나가는 수령의 외적모습만 그려나가려 하여서는 안된다.

경애하는 수령님은 인간적으로 볼 때 어느 누구보다도 어려운 시련과 마음고생을 많이 겪어오신분이다. 우리의 문학작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그 깊은 심리세계를 생동하게 펼쳐보여야 한다.

아버이수령님께서 남다른 인간적품모를 지니고계신다. 작가는 우리 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시는 인간적품모를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형상하여야 한다.

시인은 바로 아버지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시는 남다른 인간적품모, 《전쟁》이라는 큰 짐을 짊어지신 긴박한 정황속에서도 적구에 홀로 남은 한 아이의 운명을 두고 피로와하시며 마음쓰시는 뜨거운 인간사랑의 세계를 깊이 파고들고있다.

...

벌써 몇번째  
그이께선 자신에게 되물으신다  
전쟁이란 무엇인가

...

그렇다  
나의 전쟁은 아이를 되찾는 전쟁  
나의 포탄도 아이를 지키는 포탄  
나의 군대도 아이를 싸안는 군대  
적구의 아이를 구원하지 못한다면  
포탄도 군대도 최고사령관도

무의미하다!

...

바로 이것이다. 《나의 전쟁》, 위대한 수령님의 전쟁, 이것이 작품의 핵이고 종자이다.

전쟁이란 무시무시한 대명사로 일러왔다. 전쟁은 모든것을 파괴하고 죽이며 여기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것은 바로 아이들이다.

그런데 《나의 전쟁은 아이를 되찾는 전쟁》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전쟁관점, 후대관점을 값높이 형상하였으며 위인적품모를 새로운 경지에서 감동적으로 보여주고있다.

그 다음 시에서는 30리밖에서부터 포위작전으로 아이를 구원할데 대한 최고사령부의 명령이 전선을 날르는 전설같은 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 끝난다.

...

아, 전쟁

이것이 1950년 10월

준엄한 조선의 전쟁이었다

시인의 격렬한 주정토로로 끝나던 종래의 시들과는 달리 이 시는 전쟁의 의미를 조용히 속삭이며 끝났다.

그러면 시인의 웨침, 주정토로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작품전반에, 벌써 독자들의 심장 속에 있었다.

시는 마지막련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전쟁을 조선의 전쟁으로 승화시키며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이 어떤 전쟁이였는가를, 우리 인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낸 얼마나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전쟁인가를 여운있게 실증해주고있다. 다시말하여 한 아이의 운명을 구원해주신 자그마한 력사적자료를 통해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전쟁의 포화속에서 건져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전쟁에 대하여 격찬하고있다.

파괴와 도살의 대명사인 전쟁이라는 의미를 새롭게 철학적으로 해명한 여기에 시의 매력 이 있다.

시인은 또한 적중하고도 생동한 여러 시어들을 통해서 위대한 수령님의 심리세계를 감동적으로 보여주고있다.

《나의 전쟁》, 《적후의 빨간 동그라미》, 《어룡어룡》, 《풀송구리》, 《천만근의 연추를 끌을다》, 《짜악- 아이의 숨결을 그러안는 듯》, 《삶과 죽음의 도가니》, 《격렬한 승리》, 《거대한 삶》, 《판가리되는... 작전도》...

이런 시어들은 다른 말로 바꾸면 어색해질 정도로 딱 알맞는 시어들이라고 본다. 어버이수령님의 심중을 보다 정확히, 생동하게 표현하고있다.

이밖에도 시에서는 시작부터 마감까지 작품전반에 작가의 설명이 없고 위대한 수령님의 심리세계에 대한 묘사가 기본을 이루는 독특한 구성형식을 보여주고있다.

이와 같이 시 《전쟁》은 수령형상주제의 시에서 찾아볼수 있는 고정격식화된 틀을 마스고 보다 진실하고 새롭게 참신한 시적형상을 창조한것으로 하여 수령의 고매한 품모를 시로 형상하는데서 일련의 전진을 가져왔다고 본다.

## 가 사

# 안 해 의 웃 음

## 방 성 학

자식들에겐 사랑을 붓고 남편에겐 정 고이며  
한가정 알뜰히 돌보는 살뜰한 안해  
검은 머리 회도록 사랑만을 바쳐가며  
아 밝게 짓는 그 웃음에 우리 가정 기쁨이 있네

자식들을 키울 때도 남편을 내세울 때도  
따뜻한 정으로 살피주는 정다운 안해  
곳은일 마른 일 남모르게 말아안고서

아 밝게 짓는 그 웃음에 우리 가정 화목이 있네

그 언제나 변함없는 안해의 그 정성은  
내 한생을 애국의 한길로 떠밀어주네  
지켜선 일터에 창조의 꽃 피우라고

아 밝게 짓는 그 웃음에 우리 가정 행복이 있네

# 꿈이 펼쳐지는 세월에

김 은 희

사람들은 누구나 꿈과 현실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들 말한다.

그리고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꿈과 세월이 든다고도 말한다.

이 말은 옳다. 나역시 그렇게 생각한다. 꿈과 현실의 차이는 무척도 크다고.

가정부인이라면 누구나 그러하겠지만 나는 결혼 후 줄곧 부엌에 설 때마다 부엌일의 현대화에 대하여 많은 공상을 펴곤 하였다.

물론 우리 할머니세대와는 달리 우리 세대는 번영하는 세월에 살아오면서 참으로 분에 겨운 행복한 생활을 하고있다. 전기밥가마로 밥을 하고 세탁기로 빨래를 하고...

여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시켜주 시려는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자심하신 사랑에 의하여 수도의 곳곳마다에 있는 아침저녁매대에서는 완제품과 반제품가공식품들을 많이 봉사하고있다.

이런 혜택속에 살면서도 나는 말 타면 견마잡히고싶다는 속담 그대로 보다 식생활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꿈을 품고있었다.

아, 이런 꿈이 현실로 꽃피어나는 세월에 나는 살고있다.

언젠가 아들네 집에 가계시는 친정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던적이 있었다.

어머니의 낯색은 몹시 기쁘고 흥분된 빛이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생겼어요?》

《일이 생겨도 아주 기쁜 일이 생겼지. 애야, 내가 동무네 집에 나들일 갔던 길에 그 동무가 삼일포특산물상점에 들러보라고 잡아끌길래 들어가봤더니 아니, 글썽 그 상점이 정말 희한하더구나.》

그 말에야 나는 어머니의 흥분된 심정이 리해되는가싶었다.

삼일포특산물상점이라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현지도하신 삼일포특산물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판매하는 상점으로서 그곳에도 장군님의 사랑의 자욱이 찍혀져있다.

우리 조국땅에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된 소식이 더없는 환희의 열풍속

에 전해진 그 직후에 원자재로부터 상품생산과 포장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우리의것, 우리의 식으로 생산되는 종합적인 식료품생산기지로 일떠선 삼일포특산물공장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찾아주셨다는 소식은 온 나라 인민들, 더우거나 여성들의 가슴가슴을 충격적으로 두드렸다.

어디서나 여성들이 두셋만 모이면 그 공장 얘기, 그 상점 얘기가였다.

그 흥분이 오늘 나의 어머니에게서 또다시 나에게로 옮겨지는듯 했다.

《정말 100프로 우리것인데도 가지수가 많고 포장도 얼마나 희한번쩍한지 입을 다물지 못하겠더라. 강성대국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게... 참, 넌 그래 삼일포상점에 가봤니?》

《저, 바빠서 못 가봤어요.》

《아니다. 아무리 바빠도 꼭 가봐야 한다. 오늘이 마침 휴식날인데 나와 함께 가지 않으련?》

《할머니, 나두 갈래요.》

내가 미처 대답을 하기 전에 팔애가 앞질러나서며 대답을 한다.

온 가족이 즐거운 웃음을 터뜨리며 삼일포특산물상점에서의 저자길에 나섰다.

150일전투의 약동하는 분위기속에 날에날마다 새라새로이 멋들어지게 달라지는 수도의 거리를 부감하며 우리는 걸었다.

가는 길에 어머니는 지난 세기의 70년대 일을 감회깊게 화제에 떠올렸다.

... 어버이수령님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 보고에서 여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시킬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신 후 그 관철에 펼쳐나선 평양 시내 급양봉사망들과 식료상점들에서는 아침저녁매대를 성의껏 운영하고 봉사하였지.

새벽이면 딸랑, 딸랑하는 청아한 종소리와 함께 김이 문문 오르는 국과 찬거리들 봉사해주는 삼륜차들이 다충주택지구들을 찾곤 했다. 밥공장들에서는 밥과 빵, 국수들을 봉사해주고.

어머니도 너무 바빠 시간이 모자랄 때면 뛰어나가 국과 찬을 받아다 먹고는 출근길에 오르곤 했다.



출근에 바쁜 여성들의 일손을 덜어주는 그 판매원들이 얼마나 고맙던지.

새벽봉사길에 오른 한 판매원을 만나주시고 국통까지 열어보시고 친히 국맛을 보아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다심한 사랑에 대한 일화도 바로 그 나날에 생겨난것이였지.

이 어머니 삼일포특산물상점을 돌아보면서 왜서인지 그때 일을 돌이켜보고 어버이수령님 생각을 떠올리게 되더군요. ...

어머니의 말씀이 옳았다.

삼일포특산물상점은 정말 새 세기의 면모에 맞게 여성들의 부엌일을 보다 개선시켜주는, 그야말로 눈이 번쩍 뜨이는 곳이었다.

100프로 우리의 것이었다.

헤아릴수 없는 그 가지수로부터 내용, 포장 등 어디에 내놓아도 짝지지 않을 각종의 식품들이 내 눈앞에 펼쳐졌다.

저 북방의 산나물로부터 각 지방의 농토산물, 동서해의 수산물가공품에 이르기까지 없는것이 없고 주식물로부터 부식물, 그 가지수가 실로 다양하였다. 사다가 손대지 않고 그대로 식탁에 내놓으면 진수성찬을 이룰, 즉시 식용으로 리용할수 있는 훌륭한 가공품들이었다.

상점안의 매대들을 둘러볼수록 탐나지 않는 상품이 없었고 통채로 사고싶은 생각이 강렬할만큼 상품의 수준이 최상이었다.

입을 다물지 못하고 서있는 나에게 어머니는 다시 감개한 어조로 말씀하셨다.

《이 어머니대에는 어버이수령님께서 가정일의 고달픈 부담을 덜어보려는 여성들의 꿈을 실현시켜주셨다면 너희대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녀인들의 식탁에 올릴 식찬가지수 걱정까지 헤아려주셨구나.

정말 우리 녀인네들이 대대로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 고마움의 인사를 올려야겠다.》

그렇다. 나의 어머니나 나나 이 땅의 녀인들은 대를 이어오며 마음속 소원이 이루어지고 꿈이 꽃피어나는 로동당시대, 선군시대의 세월에 살고 있다.

강성대국건설의 총진군길에 오른 우리 인민들과 여성들에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또 하나의 은정깊은 사랑의 결정체—삼일포특산물공장 상점.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은 우리 인민을 식생활까지도 남부럽지 않은 강성대국의 휘황한 세상의 주인으로, 창조자뿐 아니라 향유자로서의 삶을 누리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한 사랑이 가슴뜨겁게 안기여온다.

나는 여기서 강성대국의 그날은 멀지 않았다는 신심을 더욱 굳게 갖게 되었다. 그날을 위해 더욱 힘차게 돌진하려는 강렬한 의욕과 욕망을 다지게 되었다.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가 성과적으로 날아올라 저 하늘을 누비고있고 인민생활의 획기적 변혁의 불씨로 되는 삼일포특산물공장의 생산소식에 이어 또 한차례의 지하핵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소식이 온 나라 강산에 전해졌으니 이 모든것이 다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겠는가.

우리 인민이 꿈속에 그려보던 세상,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조국땅 방방곡곡에서 일어나는 경이적인 사변들로 세차게 울려 퍼지고있으니 그 대문은 이제 곧 열리리라.

그 대문안에 우리는 첫 주인들로 당당히 들어서서 생각하리니.

꿈과 현실의 차이는 크다고 생각해왔지만 우리는 꿈을 품기만 하면 현실로 꽃피워주는 벅찬 시대, 선군시대의 세월에 살고있다고.

## 상 식

### 남새의 푸른색을 보존하려면

남새음식은 제 색깔이 나야 눈맛도 좋고 입맛도 당긴다.

남새의 색을 살리는데서 중요한것은 푸른색인데 가공을 잘못하면 시꺼멓게 죽게 되므로 음식의 볼품이 없어진다.

남새음식의 색을 살리려면 열가공 특히 데치기를 잘해야 한다.

미나리, 배추 등 푸르싱싱한 남새를 색깔곰게 데치려면 우선 남새의 3배가량 되는 물을 펄펄 끓이다가 줄거리쪽부터 넣고 줄거리가 절반쯤 익었을 때 일쪽을 마저 푹 담그는 식으로 하면 잎과 줄거리가 알맞게 데쳐진다. 이때 반드시 뚜껑을 열어놓아야 한다.

남새를 1% 소금물에 넣고 데치면 남새의 푸른색이 더 선명해진다.

# 선군령장과 아이들의 혈연관계를 깊이있게 그리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장헌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은 시대와 인민대중을 대표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최고전형이다. 수령은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의 품모와 자질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있는 위대한 인간인것으로 하여 주체문학에서 높이 내세워져야 한다.》

최근년간에 아동소설문학분야에서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베풀어주신 아버지장군님의 숭고한 사랑의 세계를 깊이있게 형상한 우수한 작품들이 창작발표되어 독자들의 눈길을 끌고있다.

작품들에서는 선군길에서 만나주신 아이들에게 베푸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친어버이사랑을 조국의 찬란한 미래, 후대들의 밝은 앞날을 펼쳐주기 위한 그이의 심오한 철학세계와 련관시켜그림으로써 아버지장군님 이어가시는 선군길의 의미를 깊이있게 해명하고있다.

단편소설 《첫물팔기》 [민경숙 작, 《아동문학》잡지 주체96(2007)년 6호]에서는 원군의 길에 나선 기특한 소녀의 모습을 통하여 선군혁명위업수행의 힘있는 무기이고 우리 사회의 참모습인 군민단결과 그 무한대한 위력에 대해 절감하시는 아버지장군님의 철학적인 사색의 세계를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한알의 첫물팔기를 보시고도 우리 장군님께서는 샘물처럼 깨끗하고 꽃처럼 아름다운 학생소년들의 원군의 마음을 읽으시고 바로 거기로부터 오래지 않아 역세계 자라날 또 하나의 강력한 혁명무력을 내다보시면서 군대와 인민이 하나로 뭉친 군민단결의 위력이 있어 선군조선은 승승장구할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가지신다.

바로 여기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엄한 철학적사색의 깊이가 있는것이다.

작품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심오한 철학적사색의 세계를 보여주는것과 함께 간밤에 내린 큰비로 못쓰게 된 딸기밭앞에서 안타까와 눈물짓는 은숙이와 함께 딸기도 몸소 따주시고 그와 그의 동무들을 발전소건설장의 군인들을 찾아가는 인민대표단

속에 망라시켜 내세워주도록 하시는 크나큰 사랑을 감동깊게 형상하고있다.

작품에서는 선군길에서 베푸신 아이들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을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키고 빛내이기 위한 그이의 심오한 철학적사색과 결부시켜 깊이있게 보여줌으로써 아버지장군님 가시는 선군길은 미래를 위한 길, 아이들의 기쁨과 행복, 희망을 지켜주고 활짝 꽃피워주며 더 좋은 래일을 앞당겨오는 길이라는 사상주제적내용이 예술적형상으로 안겨오게 생활적으로 잘 그려주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친어버이사랑과 위대한 품모를 깊이있게 형상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아버지장군님 지니신 인간적품모와 위인적천품을 어린이들과의 관계에서 있을수 있는 계기를 옹계 포착하여 진실하게 그리는데것이다.

단편소설 《첫물팔기》에서 나어린 소녀의 안타까운 하소연도 들어주신 아버지장군님께서 그와 함께 한알두알 팔기도 따서 소중히 봉지에 담아주시는 생활적계기들을 잘 포착하여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펼쳐나갔다면 단편소설 《소중한 싹》 [량철수 작, 《아동문학》잡지 주체97(2008)년 2호]에서는 학교영웅소개판의 자그마한 빈칸에 락서처럼 써넣은 이름자도 무심히 스쳐지나지 않으시는 생활적계기를 통하여 그 주인공을 끝내 찾아 만나주시고 그의 소중한 포부도 크게 내세워주시고 자래워주시려는 아버지장군님의 세심하고도 따뜻하며 웅심깊으신 모습을 진실하게 형상하고있다.

최근 발표된 작품들에서 긍정적으로 찾아보게 되는것은 또한 선군령장의 품속에서 시대정신을 체현한 주인공들로 성장해가는 우리 어린이들의 모습을 전형화하여 동심적으로 잘 형상한것이다.

수령형상문학을 높은 수준에서 훌륭히 창조하기 위해서는 다른 인물의 형상에도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수령형상문학작품에서 수령의 형상은 일정한 사회적계층의 지향과 요구를 대변하는 전형적인물과 관계를 맺을 때에만 사회적집단을 통

술하고 인도해나가는 최고지수로서의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원만히 그려보여줄수 있다.

이러한 생리를 잘 살려 작품들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길에서 만나주시는 아동주인공들이 선군시대와 함께 성장발전해가는 우리 어린이들모두를 대표할수 있는 전형적인물들로 탐구형상됨으로써 아버지장군님 지니신 위인적품모를 더욱 두드러지게 하고있다.

앞날의 영웅병사가 될 꿈을 안고 다음번 영웅의 자리에 자기 이름을 살며시 써보기도 하는 단편소설 《소중한 싹》의 주인공 용철이, 인민군대가 없으면 우리의 사회주의도, 자기들의 행복과 미래도 없다는것을 실생활을 통해 깊이 체험하고 인민군군인들을 친오빠로 따르며 《우리 초소-우리 학교》운동의 앞장에 선 단편소설 《첫물딸기》의 주인공 강은숙...

이들모두는 아버지장군님 펼쳐주신 위대한 선군시대와 더불어 나이에 비해 사상정신적으로 몰라보게 성장발전하고있는 선군동인들의 전형적인 성격들로서 선군조선의 미래가 무엇을 토대로 하여 비약의 나래를 펴고 휘황찬란하게 펼쳐질수 있는가를 감명깊게 보여줄수 있는 인물들로 선택탐구되었다.

또한 작품들에서는 수령형상작품으로서의 격을 높일수 있도록 감정조직을 밀착시키고있다.

수령형상창조의 격이 높은 작품일수록 감정조직을 잘하는것은 형상의 효과성을 높이고 예술적감흥과 여운을 보장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단편소설 《첫물딸기》에서는 이야기줄거리가 짙이도록 구성조직, 감정조직을 잘하였다.

작품은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며 사랑하는 전사들에게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가지 못한듯 한 아쉬움을 안으신 아버지장군님의 내면세계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여 산속 오솔길에서 만난 나 어린 소녀의 밝지 못한 얼굴을 보시고 사연을 물어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으로 이어지며 초소병사들을 위해 정성다하는 소녀의 마음이 가뭇하시여 못쓰게 된 딸기밭에 함께 가시여 손수 딸기를 따주시는 이야기로 발전해간다. 작품은 절정에 이르러 은숙이네의 원군길을 더 크게 넓혀주시기 위한 조치도 취해주신 아버지장군님께서 은숙이의 소행을 통해 천만군민의 단합된 힘을 보시고 그 힘으로 승리와 영광 펼칠 내 조국의 앞길을 그려보

시며 전선길을 이어가시는 이야기로 끝맺고있다.

작품은 별로 크지 않은 이야기이지만 감정조직의 견지에서 이야기줄거리가 치밀하게 짜이도록 함으로써 사상적핵이 생활묘사를 통해 해명될수 있게 하였다.

특히 처음에 아버지장군님의 마음속에 깃들었던 아쉬움이 은숙이와의 관계에서 이야기가 전개됨에 따라 만족감으로 바뀌도록 체험세계속에서 승화시키게 한것은 선군령장의 두리에 군대와 인민이 굳게 뭉쳐 혼연일체를 이룬 우리의 일심단결의 위력과 그 거대한 힘을 무기로 선군의 멀고 험난한 길을 헤쳐가시는 우리 장군님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깊이있게 보여준것으로 하여 작가의 재치와 기교를 엿볼수 있게 하고있다.

작품은 주제사상을 감명깊게 해명할수 있는 인상깊은 생활을 세부화하여 깊이 파고들으로써 이야기의 예술적감흥도 돋구어주고있다.

실례로 손에 묻은 딸기물을 닦으시려고 손수건을 드신 아버지장군님께 당황해하며 잘 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올리는 은숙이에게 《딸기물이 묻었다고 그게 무슨 흠이 되겠느냐. 좋은 기념으로 뒀텐데... 딸기물이 쉽게 지지 않는것처럼 나도 너를 쉽게 잊을것 같지 않구나. 딸기밭을 가꾸며 자기들의 마음도 자래워온 기특한 너의 동무들도 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은 작가의 깊은 사색과 탐구가 깃든것이라고 할수 있다.

하얀 손수건에 곱게 묻든 연분홍색딸기물!

아버지장군님께서 손수건에 묻든 그 딸기물에서 첫물딸기처럼 그렇게 생신하고 깨끗한 은숙이네의 진심을 보시고 그토록 대견해하시는것이다.

이처럼 작품에서는 하나의 세부를 통하여 선군길에서 알게 되신 소녀의 마음을 기특히 여기시고 거기서 힘을 얻으시는 아버지장군님의 모습이 감동깊게 펼쳐지고있다.

작품에서 수령의 위대성은 행동이나 대사에서도 나타나지만 보다는 내면세계를 펼쳐보여주는데서 표현된다. 사소한것에서 큰것을 찾아내며 하나의 문제를 통하여 전반사업을 꿰뚫어보는 예리한 통찰력으로 사색하고 또 사색하며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는 수령의 빛나는 예지와 심오한 내부적 체험세계를 깊이있게 펼쳐보여주지 않고서는 수령의 위대성과 고매한 인간적품모를 생동하게 그려내기 어렵다.

수령형상창조에서 나서는 이러한 본성적요구를 구현하여 이미전에 발표된 단편소설 《해님은 눈부시다》(최치성 작)에서는 두 꼬

마재간둥이의 보다 휘황한 앞날을 축복해 주시며 어버이수령님께 드리려고 마련해두셨던 귀중한 서예도구들을 선물로 안겨주시려 할 때의 아버지장군님의 내면세계에 대한 묘사를 다음과 같이 하고있다.

《바다처럼 크나큰 그리움의 물결이 가슴가득 사무쳐드시었다. 태양처럼 환하신 웃음을 담은 대원수님의 영상이 우렁이 떠오르시었다.

(그래, 참 좋은 생각을 했소. 그 붓대는 이제 꼭 세계적인 인재들의 대무대를 날을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며 크게크게 고개를 끄덕여주시는듯 한 대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

아버지장군님께서도 마음속으로 뜨겁게뜨겁게 아뢰이고계시었다.

(수령님, 우리의 선군조선은 세계의 맨 앞장에서 영원히 빛을 뿌릴것입니다!))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안겨오는 서예도구, 대대손손 길이 전해야 할 나라의 국보를 아이들의 자그마한 손에 쥐여주실 때 우리장군님의 가슴속에 뜨겁게 파도쳐 밀려오는 그리움의 세계, 어버이수령님 안겨주신 사회주의 내조국을 세계의 맨 앞장에 내세워 **김일성** 조선의 영예를 온 세상에 떨치시려는 아버지장군님의 웅대한 사색의 세계가 절절하게 안겨오고있다.

단편소설 《룡구바람》(민경숙 작)에서는 인민군대에서 시작되어 아이들속에 흘러든 룡구바람을 통하여 온 사회에 위대한 선군바람이 거세차게 불어치게 하시려는 아버지장군님의 심원한 세계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불어예는 봄바람이 어리팡스럽게 차창가에 매달리며 남기네를 안고 가시는 장군님의 가슴에 차분히 안겨들었다. 봄바람... 이 순간엔 자연의 봄바람마저도 무심히 맞게 되지 않으시었다. 크나큰 생명력을 지니고 무한대한 자연을 싹틔우고 꽃피우는 저 봄바람처럼 이제 룡구바람도 온 나라를 혁명적군인정신이 나래치는 일심의 화폭으로 더 아름답게 꽃피워갈것이었다. 일심의 그 화폭을 과연 그 어떤 강적이, 그 어떤 핵폭탄이 깨뜨릴수 있단 말인가. ...》

어린 나이에 선군의 의지를 신념으로 새겨안고 선군길을 따르는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기특하게 여기시고 뜨겁게 안아보시는 아버지장군님의 아이들에 대한 사랑의 세계가 방불하게 안겨 온다. 그러면서도 아버지장군님께서 쪽잡과 췌기밥을 드시며 사나운 칼벼랑과 바람세찬 풍랑길을 헤치시며 가고

가시는 선군길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기상을 온 세상에 떨치고 우리 조국을 세계앞에 우뚝 일떠세우는 가장 숭고한 애국애족의 길이라는 심오한 사상과 그 길을 따라서며 아버지장군님의 참된 아들딸로 자라고있는 우리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최근 창작된 작품들은 선군길에 맺어진 선군령장과 아이들간의 혈연관계를 심오한 철학적사색속에서 생활적으로 치밀하게 짜인 구성조직과 생동한 묘사, 세부형상들을 탐구하여 깊이있게 보여줄 때 아버지장군님께서 오늘도 쉬임없이 새겨가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의 자욱, 선군의 자욱이 담고있는 거대한 의의, 선군의 길우에 우리의 행복도 희망도 있다는 철의 진리와 그를 가슴속에 새기고 선군길에 자기 마음도 따라세우는 우리 시대 어린이들의 높은 사상정신적품모를 웅당한 수준에서 원만히 형상할수 있다는 좋은 경험을 시사해주고있다.

수령형상문학일수록 문학의 일반적창작원리를 지키면서 수령형상문학의 고유한 생리를 살려야 예술적가치와 품격을 보장하며 감화력을 가지고 강한 여운을 남길수 있다.

그런데 일부 작품들에서는 문학화수준이 높지 못하다나니 사적전달에 머무르고 인간관계에서도 수령과 아이들간의 인정관계로 그리지 못한다로부터 예술적감흥이 없고 웅당한 수준에서 감동을 주지 못하고있다.

또한 일부 작품에서는 수령의 한없이 숭고하고 비범한 내면세계를 동심에 맞게 그리기 힘들다는데로부터 수령의 체험세계를 깊이 파고들지 못하여 격식화되고 개념화되었으며, 하여 아버지장군님과 아이들간의 혈연관계를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그리지 못하고있다.

이것은 수령형상작품창작이 우리 문학의 정수를 이루며 기본의 기본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지 못한다에서 오는 무책임이고 불성실한 자세라고 말하지 않을수 없다.

우리의 모든 아동소설작가들은 천만군민의 무한대한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로 강성대국건설의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야 할 올해에 더 많은 수령형상아동단편소설들을 훌륭히 창작함으로써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을 선군령장의 참된 아들딸로, 선군조선의 믿음직한 주인공들로 역세계 키우는데 적극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 내 고향의 별바위

김 남 호

머 리 시

산마루에서 굽어보면  
채 펼치지 못한 부채모양  
주름주름 아홉골짜기 잇달아내려  
쫄골, 도토리골, 진달래골...  
골마다 이름도 아홉개  
산이름도 마을이름도 아홉골  
아홉 골짜기 흘러내려 끝난 곳에서  
조금 나가면 흰히 트인 길  
북으로 뻗어 평양길  
남으로 뻗어 원산길  
이 분기점에 솟아있어라  
열길잡이 나지막한 벼랑이

한줄 흠도 없이 한그루 나무도 없이  
한겨울에도 한여름에도  
숙일줄 모르는 그 뉘의 기개인양  
이마를 치켜든 도도한 모습  
이마우엔 군모런듯 집채같은 바위 하나  
바위벽엔 오각별이 뚜렷이 새겨진  
예가 바로 내 고향의 자랑 별바위!  
열세용사바위!

지나는 길손이 보아도  
모르는 사람이 그 이름 들어도  
네앞에서는 생각깊이 걸음 옮기려니  
별바위여 무엇때문이나  
산도 골짜기도  
모양대로 이름을 단 고장이전만  
높지도 수려하지도 못한 네게만은  
세월의 눈비에도 닳지 않도록  
깊이깊이 별을 쏘아 새기며  
내 고향 사람들  
그렇듯 뜻깊은 이름지어 너를 부른것은

그 사연  
그 위훈  
그 삶이 참으로 값높은것이어서  
고향의 이 아들도  
너를 위해 무엇인가 바치고싶어  
나는 노래하련다  
노래는 내 심장의 전부이거니

조국위해 아낌없이 생을 바친 이들에게  
심장을 바침은 후대의 참다운 의리 아니라

가자 노래여  
내 고향이 전설처럼 전해가는 이야기  
렬사들의 성스러운 자욱자욱을 안고  
온 나라의 마음속으로 가자  
온 나라의 마음속에서  
월미도와 함께 1211고지와 함께  
내 고향의 별바위도 높이 솟아 빛나게 하자

1

나지막한 벼랑  
그아랜 흙먼지 날리는 좁은 달구지길  
길을 건너서면  
가을별에 말라든 키를 넘는 새초밭  
그 뉘를 바래우듯 잎새를 스적이고  
그앞으론 상원천강물이 출렁이며 흐른다  
어디로?  
파연 어디로?—

×

문득 길가에 흐르는  
억한 흐느낌소리—  
그 소리 베여내치듯  
—전사 그치지 못하겠는가  
싸움이 두려우면 이제라도 가라  
서리비낀 노성에  
단술에 물젖듯 흐느낌소리 사라지고  
허나 리정표를 부여진 전사의 두손은  
그냥 떨린다  
색날은 리정표엔  
단박 심장을 끌어당길듯 새겨진 글발  
《평양 40km》  
그것이면 쓰러졌던 사람도  
죽음을 박차고 일떠서리  
그것이면 새힘이 사뭇 뻗치고  
마음엔 훨훨 희망의 나래 돋칠  
오, 평양은 었디면 코담을 바로 지척에—  
하물며  
평양을 등대처럼 마음속에 받들고온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의 길  
 걸음걸음 막아서는 죽음의 첩첩고비를  
 이겨내며 넘어온 사람들에게라  
 —군관어른 그만하시우다  
 지긋한 음성이  
 전사의 팔을 붙잡아 일으킨다  
 일으키며 제 눈굽도 쑥 문지른다

—그래 이걸 보면서 울지 않으면  
 우리가 무얼 바라고 고생고생 왔겠소  
 이걸 보면서 울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공화국사람이겠소

그 말에 소좌는 돌아선다  
 머리 들어 푸른 하늘 우러러본다  
 습벽이는 두눈  
 허리의 권총집을 짜악 눌러잡는 손  
 울지 않으려  
 그도 울지 않으려 모진 말을 한줄  
 뉘 모르랴 여기 모인 사람들이

×

열세명이었다 그들은  
 첫사람은 소좌  
 날카로운 눈우에 거뭇한 눈썹이 하늘을 나눈  
 그는 왼팔에 붕대를 감아 메었다  
 그담 중사, 상등병, 애어린 전사...  
 일곱명의 병사결엔 서있다  
 쇠물이 익어 끓는듯 한 눈빛 어글어글한  
 그는 서해안의 어느 제철소 로장  
 모루처럼 단단해 보이는 또 한사람  
 그는 어느 기계공장 선반공...  
 이렇게 여섯명의 평장없는 병사들이  
 엄숙히 서있다

병사!  
 그렇다 그들도 병사였다  
 몸엔 비록 로동복을 걸쳤을망정  
 등엔 비록 공장설비 지였을지언정  
 최고사령관의 명령에  
 총대로 생사를 같이한  
 그들도 병사였다  
 누가 이 땅에 병사가 따로 있다더냐  
 은혜론 해방의 봄빛에  
 너도나도 시름 털고  
 그늘없는 마음으로 부림없이 살았으니  
 수호의 결전장—이 땅엔 병사가 따로 없었다  
 태양이 빛나는 하늘에 별은 많아도  
 오직 별! 그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처럼

×

방금전 그들은 명령을 받았다  
 련락군관이 가져온  
 무거운 임무를

—오만한 원수들  
 우리 조국 단숨에 동강내려  
 우리 행복 송두리채 씹어삼키려  
 온 세상 딸라의 노예들을  
 다 끌고 덤벼든다  
 허나 월미도에서  
 개꿈이 산산이 깨여지고  
 행여 미련의 황당한 꿈을 꾸며  
 평양으로 평양으로 미친듯 달려든다  
 적은 교활하게도 공격방향 갑자기 바꾸어  
 아홉골 여기로 기여들려 피하거니  
 그런데 평양엔  
 우리 삶의 요람, 민주의 터전인  
 우리 모든 행복의 샘과 같은 평양엔  
 아직도 최고사령부가 있다  
 시민들의 후퇴를 지휘하며—  
 동무들의 임무는 여기를 지키는것  
 예비대가 방어계선을 차지할 때까지  
 후퇴해오는 사람들로 적을 최대한 견지하라!

명령은 무거웠다  
 허나 이는 그들의 삶이었거니  
 명령을 어기면 살아도 죽은 목숨  
 병사의 영예도 위훈도  
 명령을 지키는 길에 있거니  
 그들은 대답했다 오직 한마디  
 —알았습니다!

×

오, 명령!  
 인간을 허무한 존재로 여기면  
 그 명령은 이미 죽음을 안은것  
 인류력사의 자욱자욱  
 피비린 전쟁사의 갈피갈피엔  
 얼마나 많았더냐  
 인민우에 군림한 권력의 무리  
 저 하나의 명예와 향락을 위해  
 목취도록 성전을 부르짖으며  
 제 몸의 먼지를 털듯  
 쉽게도 내린 그런 명령이—  
 하여 평화로운 날  
 말하는 도구로

마소처럼 천대받던 인민은  
전쟁터에서조차  
명령을 내린자가 썩버린 총알처럼  
이름 모를 황야에 던지마냥 훑날렸거니  
인간이 인간을 멸시한 그 세월  
파연 명령을 지켜서 백성이 죽었던가  
그 명령자체가 죽음이 아니었던가

×

허나 인간이 참으로 아름답고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존재로 여긴다면  
그런 명령은 목숨바쳐 지켜야 할지라도  
그것은 삶을 위한것  
인간을 위한 참다운 인간의 세상에선  
《나》란 홀로라는 개념이 아니거니  
그것은 피를 나눈 부모처자  
다정한 형제  
그것은 하얀 연이 날으는 맑은 하늘  
종아리 걸고 들쭉던 누런 별...  
생은 이렇듯 크고 무한하거니  
어디서 죽음의 그늘을 찾을수 있으랴  
단 한점이라도  
하거니 명령은  
값높은 삶의 이정표!  
아름다운 생의 빛나는 노을!  
하여 크나큰 믿음을 심장에서 불러일으켜  
공포를 동요를 이기게 하고  
헛된 삶보다 값높은 죽음이  
백천배 숭고함을 확신케 하거니  
이런 명령 하나이면  
능히 천만을 영웅으로 자래우기도 하고  
길지 않은 한생을 후손들의 추억속에  
별처럼 유난히 새겨주기도 하더라

## 2

—도로에 차단물을 설치할것!  
모두에게 명령을 내린 뒤  
소좌는 벼랑을 툴아올랐다  
뒤로는 검푸른 산밭이 우중충  
앞에는 출렁이는 강  
길만 막으면  
오도가도 할수 없는 외통길—  
하지만, 하지만...  
지금 그의 가슴을 무겁게 누르는것은  
적과의 력량대비  
가늠못할 승패,  
열세명 대 한개 사단!  
파연 이것이 싸움일가

우리에게 있는것은  
오십발의 총탄과 열개의 수류탄  
한자루의 권총과 여섯자루의 보총  
적은 일만정의 총포와  
땅크까지 앞세우고 덤벼들리  
누가 보아도 이것은 상식 이전의 싸움  
닭알이 바위를 깨친적 없고  
풀잎으로 나무를 베인적 없거니  
하다면 승패는?...

×

생각깊은 소좌결으로  
누군가 다가선다  
눈길 돌리니 그는 로장아바이  
구리로 부은듯 한 얼굴은  
석양에 더욱 붉은데  
흔연히 소좌에게 건네는 말

—대장 무슨 생각 그리 하시우?

소좌는 잠시 바라보았다  
아바이의 눈빛을—  
자애와 강진함이 깃들어  
고향의 아버지처럼 믿음이 실리는 눈빛  
순간 마음속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소좌는 모든것을 더놓고싶어졌다

—아바이 정말 명령 하나로  
모든것을... 모든것을 해낼수 있을까요?

아바이는 말없이 입초를 붙여물고  
소좌의 생각을 빨아들이듯  
깊숙이 한모금 삼키더니  
호흡스레 연기를 내어뿜어라  
그리곤 탄소리하듯 조용히 이야기한다  
마치 자기자신과 말하듯

×

오년전만 해도 우린  
사람값에 못 가는 짐승과 같았지  
언제 죽을지 모를 불가마앞에서  
죽일놈이라는 왜놈감독의 욕을  
하루에 백천번도 남아 들었네  
결에 있던 친구가 전기에 붙어  
금시 숯덩이가 되여도  
어데 하소할데가 있더라구  
정말 영악한 세월이었어  
그런데 **김일성**장군넌께서

아침해처럼 우리에게 오셨네  
 땅도 웃음도 행복도 매일도  
 조상대대로 바라던 그 모든걸 다 가지고  
 꿈같이 우리에게 오셨네  
 장군님은 언제한번 우릴 탕한적 없으시고  
 우리 같은것과 글썽 무릎을 마주하시고  
 나라정사까지 의논하셨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앞이 환히 열리고  
 복이 넉쿨채 떨어졌네  
 참으로 해빛같고 하늘같은분이시야  
 그래서 그분의 당에도 선참 들었고  
 그분이 하라는것이면  
 죽어도 해내자고 욕육했지  
 그분의 말씀은 다 우릴 위한것이었으니까  
 대장 너무 걱정말게  
 여기 모인 열두명이  
 다 대장처럼 잘 싸울거네  
 평양을 지킨다는게 뭘겠나  
 우리 장군님을 지킨다는게 아니겠나  
 그분만 안녕하시면  
 나도 살고 우리도 살고 다 일없는거지—

×

복서풍이 분다  
 사위에 깃을 편 어둠을 꺾며  
 서늘한 가을바람 구름을 밀어  
 하늘엔 초롱초롱 희망의 밤별이 돋고  
 마음은 흰히 신심으로 띄여와  
 소좌는 주먹을 부르짖다  
 소박한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  
 저 뜨거운 심장들이 어찌  
 닭알이고 풀잎일것인가  
 바위면 이보다 굳건한 애국의 성돌이 어디 있고  
 나무면 이보다 뿌리깊은 의리의 거목이 어디 있  
 으랴  
 결코 누구에게나 강요할수 없는 애국을  
 생활로써 스스로 바칠줄 알게 해준  
 오, 우리 장군님은 얼마나 위대하신가  
 이길것이다 반드시 이길것이다  
 승리란 정황과 목적에 따라  
 그 개념이 달라지거니  
 지금 이 정황에선  
 평양을 지켜 일뿐이라도 더 견지하는것이  
 이기는것이다  
 그렇다, 이긴다는것은 명령을 수행한다는것  
 소좌의 가슴에 황황 타는 생각을 고무하듯  
 바람이 분다

복서풍이 분다

3

어둠이 깊어갈수록  
 흐르는 분분초초는  
 소좌의 가슴을 칼날같이 에인다  
 한밤을 새운대도  
 심장을 화불처럼 태워들고라도  
 도로에 버랑우에  
 돌을 더 쌓아야 한다는 생각  
 우리 새운 한밤으로  
 다문 몇분이라도  
 적을 더 견지할수만 있다면

시간은 가는것인가  
 전쟁은 무자비하거니  
 대가없이 차례지는것은 없다  
 힘을 들인만큼  
 귀중한 시간을 더 얻게 되리  
 하기 쉽다는것은  
 그만큼 가치가 적다는것  
 결코 적이 오길 기다려선 안된다

시간은 가는것이다  
 우리의 시간은 가야 한다  
 저 로장아바이  
 펄펄 끓는 쇠물가마를 기울여  
 평화의 보습을 버리고  
 저 꼬마전사  
 학원에서 못다 쓴 강의록을 펼치고  
 찬란한 꿈과 희망 꽃피워가고  
 미제를 쳐눅힌 조국땅우에  
 우리 장군님 더 좋은 락원을 펼치실  
 그날, 그날을 당겨오기 위해  
 우리의 시간은 가야 한다  
 우리의 피더운 심장에 감싸여  
 우리의 목숨같은 땀에 젖어  
 원수를 맞받아 불덩이같이  
 불덩이같이 가야 한다  
 전투는 이미 시작된것이다

×

—자, 동무들!  
 바위도 일으킬듯 한 소좌의 부름에  
 주먹밥 마지막덩이 깨물던 전사도  
 일초를 말던 로동자도  
 말없이 일어서고  
 돌과 나무 엉켜쌓인 바리케트우에



누군가 달아놓은  
 횃불이 타오르는 밤  
 땀젖은 숨결에 뒤채기며  
 피출선 맥박들에 툭툭 뛰며  
 한낮처럼 삶이 일어서는 밤  
 땅이 움썹 솟는듯  
 길우엔 성벽처럼 키쫂구는 차단물  
 벼랑우엔 무드기 쌓이는 돌무지  
 그래도 진해가는 힘 다시 또다시 모여며  
 억척같은 바위 또 하나 들어 일구며  
 —평양으론 못 간다

피뻘듯 부르짖는 불굴한 웨침이  
 소슬바람에 실려 실려  
 두메의 가슴을 흔드는 밤

×

문득 하늘에서 아기별이 떨어졌는가  
 소좌의 귀전에 들려오는 명랑한 목소리  
 (아이같은데)  
 짐작으로 짚어보는 어둠속으로  
 너울치는 불빛속에 어렴풋이 보여온다  
 중사의 손을 잡고 선 아이의 모습  
 (일여덟 됐을가)  
 땀발선 이마를 씻으며  
 흠발린 손들을 부비며  
 사람들은 지척지척 모여온다  
 아이결으로—  
 —웬 아이요?

의문실린 소좌의 물음에  
 껌썩 아이의 당돌한 대답  
 —난 요 뒤꼍쪽에 살아요  
 우리 집은…  
 —넌 좀 가만있어

중사가 아이를 뒤잡아끌며  
 사연을 이야기한다

×

주변정찰임무를 받은 중사  
 아이를 만난 곳은  
 벼랑 뒤쪽기슭이었다  
 약초캐러 갔다오는 아이를 따라서니  
 첫 골짜기에 솟은 동기와집 한채 나지여라  
 고마운 해방의 손길이 초가를 밀고

덩실 세워주었다는 집  
 추녀높은 문으로 평생 한을 풀었다는  
 땅의 주인된 벽찬 환희가 들어서고  
 해마다 풍작의 기름진 행복이  
 김장군 노래높이 쌓이고쌓이더니  
 가증한 원쑤 미제 침략의 불길에  
 날가리는 재가 되고  
 그 자리엔 죽음의 아구린양 꺼먼 구멍이  
 불먼지 날리는 프락  
 그래도 드높은 이 나라 기개인양  
 기둥만은 역세계 추녀를 받들어  
 곳곳이 선 집  
 거기엔 살고있었다 아이의 할머니가  
 할머니는 몹시 앓고있었거니  
 아들은 두달전에 전선으로 떠났고  
 원호미 나르러 간 며느리는 이틀후에 온다고  
 어둠만이 들어앉아 할머니를 위로할뿐  
 그속에도 할머니는 얼마나 반가워했던가  
 그립던 아들을 본듯  
 주름진 눈귀에 웃음을 흘리며  
 홀연 병을 가신듯 몸을 일으키더니  
 토방에 캐여놓은 햇고구마를 삶아주었다  
 중사의 거대한 만류도 뿌리치고  
 —보래야지  
 우리 평양만 지킬수 있다면  
 내 집 기둥이라도 뽑겠네  
 그 한마디 뇌이며…

×

중사의 이야기 들으며  
 아직도 더운 김 문문 나는  
 고구마팡주리를 보며  
 누구의 가슴에나 울렁이는것  
 그리운 고향생각  
 해마다 이맘때 시월 중순이면  
 고구마가을은 얼마나 흥겨웠던가  
 제땅에서 제 기쁨을 캐여내는 그 멋은…  
 서리맞은 념쿨을 걷어내면  
 땅도 흐뭇이 웃는듯  
 툭툭 빼개진 이랑을 들추면  
 목침같은 고구마가 디굴디굴 굴러나왔지  
 해저문 저녁이면  
 웃목에 엮여세운 수수대팡주리가  
 천정에 꼭 당게 고구마를 쌓고도  
 토방에 두툼히 퍼놓은것이  
 꿈만 같아 꿈만 같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던 그날  
 밤새도록 웃음질줄 몰랐던 그 저녁…

아, 고구마!  
 제땅의 즙을 빨며 자라서  
 그 맛 그리도 달디달던가  
 순후한 인정과  
 샘물같은 행복이 어우러진  
 못 잇을 추억을 새록새록 떠올리는 고구마  
 그 추억을 정녕 잊지 말라고  
 기어이 기어이 지켜내라고  
 이 단맛 꿀같은 행복을 앗으려는  
 원쑤에게 향한 타끓는 증오를  
 용사들의 가슴에 백배로 하여주는  
 평양고구마!

×

소좌는 성한 팔로 아이를 꼭 껴안았다  
 -고맙다 애야  
 할머니에게 우리의 인사를 전해다오

그리고 바라보았다 로장아바이를  
 오가는 눈빛에 실리는 말...  
 아바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소좌는 명령했다  
 -전사는 이제 당장  
 할머니와 아이를 피신시킬것  
 세간불이를 하나도 놓치지 말라  
 우리의 비상미를 다 가지고가라  
 거기서 할머니와 아이를 지킬것

전사는 떠났다  
 뒤돌아보며 손짓는 아이를 향해  
 잘 가라 바래우는 사람들  
 누군가 목갈린 소리로 조용히 뇌인다  
 -세상에... 이 판가리시각에  
 남을 생각할 겨를이 다 있다니...

×

그렇다  
 이제 날이 밝으면 싸움이 터지리  
 우리 죽을수도 있으리  
 그 어느때건  
 죽음이 삶을 보살핀적 없거니  
 하다면 생이 아름다운것은  
 죽음을 모를 때던가  
 오, 아니다  
 이제 한나절도 남지 않았을  
 생을 내다보면서  
 저 할머니와 아이를 살리려 함은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베풀고싶어지는  
 동정도 아니다  
 서글픈 은혜도 아니다  
 믿음!  
 이는 믿음의 분출!  
 우리 장군님을 믿고  
 우리 공화국을 믿고  
 그 품에 길이 살 이 땅의 래일을 굳이 믿는  
 그때문에 우리 목숨 바쳐도  
 그 품속에 영원히 죽지 않을  
 크나큰 생에 대한 열렬한 믿음!  
 그때문에 우리의 값높은 죽음은  
 후손들의 마음속에서  
 길이 받들고나가는 삶의 기발이 되고  
 불멸할 노래가 되리니  
 숭고한 목적으로 아름다운 우리의 삶은  
 생의 끝까지 아름다우리라  
 소좌는 혼신의 힘을 모아  
 어깨에 뻗친다  
 우썩 들리는 바위, 바위...

4

용사들의 타는 마음을 알아  
 깊어가던 밤도  
 하얗 끝없이 깊어질듯싶더니  
 끝내는 새날에 자리를 내주고야마누나  
 산발에 벼랑에 벼랑우에 쌓인 돌 새짚으로도  
 새벽기운은 확연히 뻗치여-  
 작은 산갈이 무독한 돌무지  
 여느때라면 스스로도 놀라웠으리  
 자기 힘이 이렇듯 크다는것이  
 허나 지금은 결전을 앞둔 때  
 하나하나의 돌마다에 생명을 부어넣는듯  
 어루만지며 쓰다듬으며 없어보는 생각  
 (파연 이 돌들이  
 총알이 되고 수류탄이 되어줄가?!)  
 그 모습들을 바라보던 소좌  
 옷자락 툭툭 털며 뉘게라없이 부탁한다  
 -누구 담배 있으면 한대 주오

그 말에 여기저기서 술렁거린다  
 도사린 마음의 긴장을 풀며  
 저마다 담배쌈지 꺼내들었건만  
 어이하라  
 온밤 피타는 삶의 노력에 부대껴  
 쌈지마다 후줄근해졌으니  
 어쭙게 자기를 바라보는 모습들에  
 통쾌하게 화답하는 소좌의 웃음소리

흐하하 뒤따르는 사내들의 걸찬 웃음소리  
순간에 벼랑가는 떠들썩해졌다

×

웃음뒤엔 여유가 따르는 법  
촉박한 시간에 쫓겨  
품놓고 통성도 못했던 사람들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눈다  
그중에도 선반공의 이야기는 활기를 띠어

—이제 이 벼랑은 유명해질거야  
—건 왜서?  
—우리가 평양을 지킨 벼랑이니깐  
—자넨 평양을 가보았나?  
—제길 그런것도 묻는담

그래도 따르는 지꿍은 물음

—간밤에 자넨  
원산서 나서자랐다질 않았나  
—이 사람이 정말  
아 원산은 평양땅이 아니여  
—?!...

그 말  
누구나의 흥금을 치는 그 소리  
불비속을 뚫고  
겹겹의 포위를 헤쳐온 사람들  
오늘은 또 평양을 지키자고  
한밤을 꼬박이 불같이 새운 이 사람들에게  
진정 그 한마디는 레사롭질 앓구나

×

오, 이 땅에 우리 민족의 시원을 열어놓은  
유구한 력사로 자랑높은 평양  
용용한 대동강 푸른 물결우에  
단군의 성자가 비껴  
건국창업의 대운이 서리우고  
고구려의 기치창검이 성벽에 나뭇겨  
천년강성국의 수도로 위상을 떨치더니  
어느놈이나  
임진용장 김응서의 장검을 녹썰리고  
삼천리강토를 외세에게 팔아먹은 무리  
민족의 자존심도 췌버리고  
반역의 쌍둥이  
사대와 매국만을 끌수에 짝 채운  
그 더러운 무리로 하여

《시일야방성대곡》에 강산이 몸부림칠 때  
도도창창하던 대동강 푸른 물도  
구슬피 울어 울고  
수려하던 평양도 빛을 잃었지  
허나 절세의 애국자 **김일성**장군  
《ㄷ. ㄷ》의 화불 높이 들어  
무겁게 드리운 망국의 암야를 밝히고  
열혈심장들에 끓어번지는 애국열을  
백두의 총대에 총알처럼 재워드시여  
좌우를 벼락치며 천하를 길들여  
강도 왜적에 멸망의 철추 내리셨거니  
오, 반만년력사에 처음 보는  
인민의 새세상  
자주의 새아침을 안아오신  
평양이 낳은 위대한 민족의 영웅  
만고의 빨찌산 김대장을 높이 모셔  
겨레의 마음속에 영명한 태양과  
그 낫, 그 뜻, 그 웅자가 하나로 안겨오는  
민족재생의 성지!  
백전백승의 기치!  
부강조선의 유일한 심장 우리 평양!

×

이 얼마나 크나큰 긍지이나  
높은 존엄이나  
이 무한한 긍지로  
오늘은 월가의 피서린 야망을 부시고  
이 높은 존엄으로  
오늘은 야수 미제의 먹을 꺾어려  
증오의 서리발을 세우거니  
통채로 들이밀라 피로 살진 그 몸뚱아리를  
평양의 풀 한포기를 지켜서도  
심장을 서슴없이 바치고싶어지는  
우리의 열화같은 사랑은  
기어이 침략자들을 산산이 짓태워  
민족의 가슴에 사무친 철천의 한을 풀리라  
이 땅 내 조국을  
영원한 승리의 기념비로 빛나게 하리

가슴에 성스러운 생각 화산처럼 끓어번져  
억제 못할 격정에 일어난 소좌  
주먹을 억세게 부르짖는데  
로장아바이의 음성이 무게있게 울린다  
—웁게 말했네  
원산도 청진도 온 나라가 다 평양땅이지  
장군님의 품이구말구  
우리 그 품을 지켜 잘 싸우자구

저 월미도 용사들처럼...

×

참으로 따스하구나  
꺼칠한 뺨을 어루쓰는 해살이  
그 한줄기 손에 쥐었을 때  
누가 생의 귀중함을 생각지 않으랴  
그 한줄기 뛰는 맥박에 닿을 때  
누가 래일을 생각지 않으랴  
불독같이 달아오른 용사들의 마음에  
찬서리도 지리눅는데  
누군가 아바이에게 조용히 묻는다  
—아바이 놈들이 정말  
이 좁은 골짜길로 오긴 올가요  
저기 황주쪽의 큰길도 있는데  
하필이면...  
—무슨 소릴, 여기로 온다면 오는것이지  
—원 아바이두...  
난 그저 만약을 말했을뿐이외다  
만약...

순간 말을 채 맺기도 전  
번개가 찼다  
천군같은 퇴성이 울렸다  
—그만하오  
만약이라구?  
누가? 무엇이?  
명령은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주신것이구  
그 명령은  
다름아닌 평양을 지키는 길  
바로 이 심장  
우리 장군님을 지키는 길이란 말이요  
만약이라구?  
설사 다른 일엔 만약이 있을수 있어도  
우리 장군님을 지키는 길엔  
추호의 만약도 있을수 없소  
장군님은 우리의 목숨같은 조국이기때문에!

×

벼랑이 드르륵 울렸다  
산발이 좌—아 설레었다  
불을 뿜듯 가슴을 터쳐전만  
그래도 참을수 없는듯  
소좌는 와락  
왼팔을 처맨 봉대를 풀어내쳤다  
순간 팔뚝의 아물던 자리에서

드러난 새살의 여기저기서  
방울져 샘솟는 피, 붉은 피...  
소좌는 사람들결을 지나  
벼랑우의 바위앞에 섰다  
숫아흐르는 붉은 피로  
바위벽에 새긴다 붉은...오각별  
어느새 뒤에 모여선 사람들  
그 모습 바라보며 어깨를 들먹인다  
—대장동무, 내가... 내가 잘못했어요  
—대장, 우리가 잘못했소

소좌는 돌아섰다  
말없이 열두명을 둘러보더니  
힘껏 전우들을 그러안는다  
안으며 뜨겁게 속삭인다  
—동무들, 길이 어디로 뻗었든  
그 길의 시작도 끝도  
평양으로 잇달아있소  
이 심장으로 말이요  
—알았습니다... 대장동무!

오, 억세인 사내들의 목메인 대답—  
말해보라 상원천 푸른 물아  
아홉골산발이어  
너 생겨 그 언제  
이런 장한 의리의 목메임소리 들어보았더냐  
이런 불같은 충정의 목메임소리 들어보았더냐

×

뜻과 정이 합쳐지는 격렬한 순간에  
귀전을 때리는 다급한 소리  
—소좌동지, 적입니다

심장이 후둑 뛴다  
온몸이 벼랑을 그러안는듯  
그것은 찰나  
소좌는 권총을 뽑아들었다  
—전투준비, 모두 자기 위치로

그리곤 총소리 들려오는 언덕너머를  
지그시 응시하는데  
누구인가?  
자기 손을 슬며시 잡는  
아니 이게?!  
소좌는 꼬마전사의 어깨를 흔들었다  
  
—누가 오랬소, 누가?

할머니와 아이는?...  
 -안전한 곳에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도...  
 -안돼, 절대로 안돼  
 당장 돌아가오  
 -못 가겠습니다

맞받아 소리친 전사의 눈에  
 눈물이 펴 솟는다

-못 가요, 나 혼자선... 못 가요  
 소좌동지, 나도 이렇게  
 이렇게 평양에 가고 싶습니다

웨이더 하소하고 살같이 달아가  
 아바이곁에 엮드린다  
 그 모습 바라보던 소좌  
 푸른 하늘 우러러 말없이 두눈만 습박인다  
 역세인 눈을...

## 5

벼랑을 뿌리채 태워버릴듯  
 몰방으로 쏟아붓는 불의 소나기  
 탄환이 어지럽게 대기를 찢고  
 기슭이며 중턱을 기승스레 물고뜯어도  
 닿는대로 뺨아버릴뿐  
 벼랑은 한마디 대꾸도 없다  
 길우엔 꺼질듯 늘어빠진 자동차행렬  
 개미떼같이 널린 적들  
 악마구리 끓듯 고아대는 웨침소리  
 어디서 죽음의 벼락이 치려나  
 서슬푸른 강물에, 도담한 벼랑에  
 공포를 힐끔 던지는 무리  
 아무리 빌어도 동전 한푼 준적 없는 하느님이  
 목숨인들 어이 지켜주랴만  
 그래도 연신 십자를 그으며  
 차단물에 엉기엉기 다가설 때  
 벼락이 쳤다  
 쿵-쿵 수류탄 터지는 소리  
 검고 흰 잡동사니 몸통이들이  
 길우에 얼기설기 걸레처럼 널렸다  
 적은 화들짝 놀란 메뚜기마냥  
 꺾충 뛰고 엮드리고 틀어박더니...  
 수천의 총구가 불을 토한다  
 철화를 들썩채 벼랑은 잠잠

×

누가 생각하랴

악몽같은 죽음의 탄막속에서  
 삶이 숨선다고  
 생이 웃고있다고  
 소좌는 벼랑을 성돌처럼 온몸에 그러쥐고  
 심장의 맥박을 시간처럼 세인다  
 (한초 또 한초...)  
 꼬마는 입술을 앙다문채  
 총알같은 눈빛을 적진에 쏘아박고  
 올챙이떼처럼 와글대는 놈들에게  
 쓴웃음을 던지는 로장아바이  
 (흠, 한남비에 쓸어담아  
 전기로에 처넣으면 후련하겠군)  
 선반공 그는  
 스위치를 넣은 선반처럼 속이 달아올라  
 막 수류탄고리 뽑으려는데  
 권총을 쥔 손이 덥석 누른다  
 -대장동무, 이젠?  
 -아끼오, 총탄은 곧 시간!  
 바쁜건 우리가 아니라 놈들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바이?  
 -웁쨌다 허허허  
 ...

웃음이  
 불을 안은 누그런 웃음이  
 조용히 허나 백천발의 포탄처럼  
 마음과 마음에 장약되는 이 시각  
 소좌는 또다시  
 (한초, 또 한초...)

×

별안간 전사가 텅기듯 일어섰다  
 -저 개놈들이!  
 하더니 나는듯 벼랑을 달아내린다  
 -꼬마 어딜 가는거야  
 -돌아오라구  
 소좌의 부르짖음도  
 아바이의 웨침소리도  
 쿵북듯 한 총성에 삼켜지고  
 어느새 전사는  
 차단물너머 길녘에 나타났다  
 거기서 무릎을 꿇더니  
 소중히 안아든다  
 적탄에 허리가 뭉청 부러진 리정표를  
 평양을 가리키는 리정표를!  
 우박치는 총탄도 아랑곳없이  
 다만 전사는  
 《평양》-두 글발에 덮인 흙을  
 팔소매로 정히 닦아냈다  
 이때 저주로운 흉탄이

그의 등을... 뿔었다  
 흠칫 일어난 전사  
 잠시 벼랑쪽을 바라보려 애쓰더니  
 말없이 길옆에 새초우에 쓰러졌다  
 그리도 평양에 가고 싶어  
 눈물로 적셨던 그 리정표를  
 꽃나이 가슴에 꽂 부둥켜  
 전사는 죽어서도  
 평양길을 원쑤에게 내어줄수 없었다!

×

—꼬마야!...  
 소좌는 너무도 절통해 바위를 쳤다  
 이제 열일곱,  
 채 피지 못한 그 나이를 아껴  
 그만은 살리려 했더니  
 뉘 알았으리  
 뼈대뚝은 열두명을 넘어  
 아름다운 삶의 기말이 될줄  
 (장하다, 우리 꼬마!)  
 피울음을 삼키고 이를 갈며  
 으스러지게 권총을 틀어쥔 때  
 어찌 그 혼자의 슬픔이고 분노만이라  
 —아바이는 왜 붙잡지 못했소  
 황소같은것들이 있으면서  
 꼬마를 먼저 죽게 하더니  
 에익, 저 죽일 놈들을  
 자리를 차며  
 분연히 수류탄 움켜쥐는 선반공을  
 아바이는 와락 끌어당긴다  
 —안돼  
 —이걸 놓수다  
 —이놈아... 그걸 누가 막느냐 말야  
 그게... 그게 진짜 군대야  
 하지만 쉽게 죽어선 안돼  
 하나하나가  
 천사람, 만사람값이 가게 죽어야 해  
 —아바이  
 쇠물같은 눈물을 삼키며  
 마음과 마음이 부둥켜안을 때  
 소좌는 피나게 입술을 깨물며  
 심장의 맥박을 시간처럼 세인다  
 (한초, 또 한초...)  
 오 심장의 붉은 태엽을 풀어  
 우리 평양의 빛나는 백년이 되라고  
 천년이 되라고  
 장군님시간의 태엽을 감는다  
 그리고 거연히 키쫂구며  
 바위벽에 새긴다 선혈로

붉은 오각별을

×

—쫂라, 굴러라  
 한껏 재운 용수철이 튕겨나듯  
 피발선 소좌의 명령  
 거마리같이 벼랑에 붙어오르는 원쑤들을 향해  
 벼랑을 통채로 무너뜨리듯  
 돌을 굴리고 복수탄을 퍼붓는 용사들  
 남먼저 기여오르려 돌코에 손톱을 박던 놈들  
 깨여지고 터지며 통쾌하게 나뒹어져 튕구는데  
 —칠컹, 칠컹  
 가슴 때리는 빈 격침소리  
 아, 이 무슨 실수런가  
 병사는 마지막총탄을 잘 써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외워왔건만  
 말없이 용서를 비는 눈빛들에  
 소좌는 태연히 미소를 보낸다  
 그 미소에서 들었다 용사들은  
 소좌의 목소리를  
 (아니요, 우리에게겐 아직  
 마지막한발이 남아있소...)  
 바로 이 순간  
 소좌는 보았다 그리고 들었다  
 수류탄고리를 뽑으며  
 아름답리 돌을 우쥔 안아들며  
 —이놈들아, 평양으로 못 간다!  
 불덩이같이 웨치며  
 서슴없이 벼랑을 뛰어내리는 선반공을  
 그가 이 땅에 남긴  
 영생의 크나큰 박동같이  
 벼랑을 뒤흔드는 자폭음...

×

오, 바위! 바위!  
 런던히 뻗어간 드높은 산발아래  
 홀로 뻗은 길을 지켜  
 허나 평양에 잇닿아  
 두메의 행복이 자랑이 넘나드는  
 마음의 큰길을 지켜 너는 솟았는가  
 한줌 흙도 없이  
 한그루 나무도 없이  
 허나 너는 두메의 심장마냥  
 억년에 뿌리박고 거세게 숨쉬누나  
 도도히 맥박치누나  
 누가 바위엔 정이 없다 하느냐  
 이 나라 이름없는 바위 하나하나도

몸이 찢기고 깨어지면서도  
 원쑤의 불질을 막아주었거던  
 깨어져도 그저는 못 깨어져  
 저주론 원쑤의 골통을 터쳐내치며  
 이 나라 원한에 복수를 보태였거니  
 그 어느 바위도  
 마음없는 돌이라 하지 말라  
 렬사들의 피를 안고 뜨겁게 솟은  
 이 나라의 바위를!

×

그들은 지켜냈다 한시간을  
 최고사령부안녕의 한시간을  
 끝내 최후의 순간이 와  
 원쑤들 벼랑을 에워싸고 덤벼들자  
 용사들은 거연히 일떠섰다  
 서로서로 굳게 잡는 손과 손으로  
 맥맥히 흐른다  
 말없이 다짐하는 결사의 의지!  
 불같은 믿음의 열화같은 고무!  
 그들은... 하나였다  
 —대장동무, 우린 이겼지요  
 신념에 찬 아바이의 그 말에  
 소좌는 힘주어 고개를 끄덕인다  
 —이겼습니다  
 우린 승리자들이지요  
 자, 동무들, 전우들의 피로 바꾼 시간이  
 참으로 평양의 피가 되게 하자구  
 —알았습니다!...  
 그들은 나갔다 결사전으로  
 원쑤를 노려 눈빛엔 불꽃튀고  
 온몸엔 증오의 서슬 돌치고  
 심장은 평양수호의 불길같은 녀트로  
 활활 타올라  
 한몸 그대로 육탄이 되었다  
 달려드는 원쑤의 멱 랑팔에 죄여들고  
 벼랑에서 떨어져내렸다  
 웃으며 지는 꽃과 같이  
 김장군 만세를 높이 웨치며—  
 아 아 억척같은 결사의 한시간  
 평양을 지켜 열세용사  
 한생과 바꾼 성스런 한시간이  
 하늘땅을 울리는 벼랑우에 바위벽에  
 꽃잎은 저도 열매는 남아있듯  
 선혈의 자욱 력력한  
 그 고귀한 심장같은 오각별 하나  
 해빛을 받아

태양의 열정에 물들어  
 고동치듯 붉었다

## 맺 음 시

내 고향의 별바위!  
 렬사들의 성스런 자욱을 지켜  
 세월의 찬눈비 다 막으련듯  
 아홉골산밭이 숲 무성히 키를 솟구고  
 서느러운 바람결도  
 정을 안고 왔다가 두고가는 곳  
 상원천 맑은물도 그저는 차마 못 가  
 전설같은 그 이야기 구슬처럼 품어안고  
 대동강으로 평양으로 씩없이 흘러흐르는

여기서 사람들은 나에게 묻고싶으리  
 열세용사의 이름을, 그 모습들을  
 오, 내 무엇이랴 말할것인가  
 참으로 아름다운 생을 살았건만  
 이름 한자 못 남기고  
 사진조차 없이 간 그들을 두고

오, 오 아니다  
 심산의 소박한 풀 한포기도  
 몇몇이 지어가진 이름이 있는데  
 어찌 이런 높은 삶들이  
 태양을 지킨 장한 삶들이  
 그 이름 남기지 않았으리  
 그 모습 남기지 않았으리

굳이 색날은 사진첩에서  
 그 모습 찾으려 하지 말라  
 땅우의 어느 봉분가에서  
 그 이름 찾으려 하지 말라  
 아름다운 생은 땅에 묻히는 법 없고  
 시작은 있어도 그 끝을 모르나니  
 그 이름은 별!  
 그 모습은 별!  
 그 삶은 별!

갈래많은 이 땅 굽이굽이에  
 산이 많은 이 나라 고개고개에  
 내 고향의 별바위에 깃든 녀과 같이  
 삶이 별로 빛나는 그런 영웅이  
 수없이 많아  
 이 땅은 필승불패의 보루로 솟고  
 천하무적의 강국으로 위용펼치는것 아니나

# 동해의 새 제염소에서

리 영 삼

그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저 소박한 웃음뿐  
이렇듯 크나큰 위훈을 남고도  
그저 조용히 한마디  
우리는 기어이 해냈다는

해냈다는  
조용한 그 한마디가  
나에겐 더 크게 들리누나  
하늘을 울리고  
땅을 두드린 것처럼

맨주먹으로  
세상이 보란듯이 창조의 전변을 펼쳐놓은  
그 힘과 열정  
그 위대한 정신력을  
승리자의 그 웃음이 다 말하누나

동해의 복단 외진 기슭  
모래벌에 홀린 땀은 얼마더냐  
장마철에도 드물게 젖던 그 땅에  
기어이 소금꽃 피운 그날에도  
그처럼 웃었지 울었지

간고한 날을 되짚어보면  
우리 식대로 끝까지 지켜낸 불변의 신념  
장군님 계시면 우리는 이긴다는  
오직 그 하나의 의지를  
실천으로 지킬 줄 아는 사람들

온몸이 비에 젖고  
폭설에 묻힐 때도  
광풍에 천막이 날려갈 때에도

햇빛받아 꽃핀 삶  
그 태양을 지켜 길이 빛나며  
푸른 하늘아래 이 땅우에  
낮이나 밤이나 오직 별!  
그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영웅들이여  
가장 뜨거운 애국의 심장이 되어  
가장 맑은 우리 삶의 거울이 되어  
오늘도 수천수만의 열세용사로  
끝없이 태어나는  
고귀한 녀의 참다운 영생이여

그 생의 뿌리를

오히려 호호탕탕 유쾌한 웃음발 날리며  
일감부터 찾은 그네들이여  
편안히 자신만을 돌보지 않은 그 마음에  
바다도 덜미를 잡혀 호락호락  
이 땅도 새로이 태어나 변모되고...

다섯해 꼬박  
다지고다진 모래판 진흙판에  
서슬이 끼고 염기가 내뿜힌 날  
사나이들 장알진 그 손길  
억세인 그 손길들이 것처럼 부드럽게  
쓰다듬고 떨리는것을  
하늘이여 너만은 보지 않았더냐

장군님 선견지명이 소금꽃으로 피어  
온 동해가 그대로 소금더미가 될 줄  
그 누가 생각이나 했던가  
그 누가 믿기나 했던가

서로서로 얼싸안고 나눈  
불같은 뜨거움이여  
장군님께 다진 맹세를 지킬 줄 아는 마음이  
진정 오늘의 애국임을  
조국청사에 새긴 창조의 거인들이  
이 땅의 평범한 사람들임을 알아  
저 도래앞에 파도도 머리숙이고 찾아오누나

아 푸르른 하늘가로 날으는 저 갈매기  
차판마다 실려 떠나는 소금을 뒤따라  
저 멀리 평양으로 나의 노래도 안고가거라  
불가능이란 말을 영원히 차던지고  
무엇이든 결심하면 해내고야마는  
선군시대의 숨결이 어린 나의 소박한 이 노래도!

영원한 수령님의 품, 평양에 내렸기에  
폭풍이 몰아쳐도  
불구름 밀려와도  
그 빛 꺼질 줄 몰라  
머리들어 승엄히 우러르는  
선군의 창창 푸른 하늘가에  
은혜론 햇빛 찬란히 비쳐가는  
아, 이 땅은 위대한 **김일성**조선  
무궁토록 번영할 장군님조국  
만복이 꽃피는 태양의 나라  
태양의 나라!



# 앞서가는 발자국



박 원 성

어느 일요일 ××구광산인민병원 구강의사인 오세민은 다섯자식을 이끌고 뒤흘안으로 향했다.

3년터울로 줄줄이 이어진 자식들중에서 넷은 아들이고 한명은 딸이었다.

오세민의 손에는 감나무모가 쥐어져있었다. 그는 방아확처럼 넓게 판 구덩이앞에서 자식들을 멈춰세웠다. 어제 저녁에 구덩이를 파고 부식토를 절반가량 채웠던 오세민은 무릎을 꿇고앉으며 뿌리를 구덩이안에 세웠다.

《자, 이제부터 맏이부터 순서대로 흙을 한삽씩 떠서 이 구덩이에 쏟아라.》

자식들은 삽자루를 제주봉처럼 넘겨주고 넘겨받으며 아버지의 말을 고분고분 따랐다. 마지막으로 막내딸인 오인경이가 삽자루를 받아 쥐었다. 아홉살인 인경이는 힘겹게 삽날에 흙을 담아들었으나 인차 삽자루를 놓치고말았다. 맏이가 동생이 놓쳐버린 삽자루를 쥐고 대신 흙을 담으려 하였다.

《나뉘라. 막내가뭇을 맏이가 도와줄 때가 따로 있다.》

오세민의 조용하면서도 엄한 소리에 맏이는 얼른 삽자루를 인경이의 손에 다시 쥐여주었다. 입술을 앙다문 인경은 간신히 흙을 떠담고 구덩이에 쏟았다. 오빠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다.

《우리 다같이 노력을 바쳐 나무를 심었으니 이제 감이 열리면 따먹을 권리가 있다.》

오세민은 마분지로 패쪽을 만들어 거기에 다섯 자식의 이름을 차례로 써넣었다. 그런 다음 비닐에 싸서 허리까지 오는 가느다란 나무줄기에 매달았다.

며칠후 저녁이었다. 인경이가 아버지의 무릎 앞에 다가앉으며 물었다.

《아버지, 내 이름은 왜 맨 꼬리에 있나요?》

《허허… 형제들중에서 네가 마지막으로 태어나지 않았니.》

《난 싫어. … 첫번째가 될래.》

《허허, 첫번째가 되겠다구 해서 그렇게 되는데냐? 다 순서가 있는거지.》

《응, 그래두…》

인경은 어리광부리듯 몸을 흔들었다.

《꼭 첫번째가 되고싶다?! 허허.》

그런데 첫번째가 되자면 오빠들보다 노력을 많이 해서 공부도 더 잘하구 착한 학생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할수 있겠니?》

《그렇게 할수 있어요.》

인경이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세민은 그러한 막내딸이 귀여워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어주었다.

《우리 인경이가 정말 용쿠나. 그럼 그렇게 써넣자꾸나.》

오세민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인경은 얼른 달려나가 패쪽을 떼왔다. 오세민은 약속대로 다시 패쪽을 만들어 오인경의 이름을 첫자리에 써주었다.

오세민네 가정이 평양으로 이사간 후에도 그의 자식들의 이름이 적힌 패쪽은 새로 온 집주인들의 시선을 유난스레 끌며 매달려있었다.

×

오늘 구강병원 과장인 오세민은 한통의 문물을 받았다. 학위학직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한 성원인 부교수이며 박사인 오세민을 직접 찾아와 문물을 보고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갔던것이다.

때때로 이런 청탁을 받는데 습관된 오세민은 반갑게 수락하였었다. 그런데 론문 결표지에 써여진 집필자의 이름을 들여다본 순간부터 심장이 후두둑 뛰며 속이 뒤편여지는것을 막을길 없었다.

론문집필자의 이름이 《오인경》이었던것이다. 오세민은 자기가 이름을 잘못 보지 않았는가 하여 눈을 비비고 다시 들여다보았다. 분명 딸의 이름이었다. 삼시에 그리움이 북받쳐오르며 애틋한 정이 두눈귀를 지지였다.

딸이 《교》병의 발병원인과 치료방법을 병리학적으로 밝힌 론문을 가지고 평양에 올라왔다는 소식을 오세민은 며칠전에 들었었다. 보건성일군들과 심의위원회성원들이 그에게 알려주었던것이다.

그날부터 오세민은 딸의 론문이 심의에서 통과되어 성공으로 치달아오르기를 기대했었다. 그랬던 론문이 오세민의 손에 와닿았던것이다. 오세민은 고개를 기웃거렸다. 사실 그는 론문집필자의 아버지라는 근거로 이번 론문심의에 망라되지 않았었다.

(심의에서 빼놓았던 나에게 굳이 딸의 론문을 료독시키는 근거는 무엇때문인가.)

갑자기 불안감이 가슴에 엄습하는것을 느낀 오세민은 송수화기를 들고 학위학직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인 의학대학 부학장방을 찾았다. 방이 비였는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오세민은 그제서야 방금전에 구강병원정문을 나선 부학장이 벌써 자기 사무실에 갔을리 없다는 생각이 들어 송수화기를 내려놓고말았다.

퇴근시간이 되자 오세민은 딸의 론문을 가방에 넣고 서둘러 궤도전차를 탔다. 문득 눈앞에는 딸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지였다.

인경은 그다지 아름답다고는 할수 없으나 살갗이 희고 새까만 눈썹밑에 은근히 빛을 뿜는 수정같은 두눈으로 하여 못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그는 다른 처녀들처럼 얼굴을 다스리며 아름다움을 나타내려고 애쓰지도 않았다. 생긴 얼굴을 그대로 내보이고 살려는 거기에 그나름의 매력과 아름다움이 간직되어있었다.

오세민은 그런 딸과 나란히 걸으며 출근할 때가 제일 좋았다. 그렇던 딸의 출근길은 달라지고말았다.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3년전의 어느 여름날에 인경이는 평양의 정든 거리와 작별하고 자진하여 ××구 광산인민병원 구강의사로 내려갔던것이다. 오세민은 딸이 그리울 때마다 그

가 살고있는 고향하늘쪽을 바라보며 속으로 속삭이곤 하였다.

《애야, 우리에게 제일 귀중한것은 재산이나 사치한 물건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이란걸 명심하거라. 너는 네자신이 공허하게 흘러버린 시간을 되찾아야 하며 거기에서 네가 것처럼 갈망하던 자기 자리, 첫자리를 찾아야 한다.》

오세민은 딸을 믿었다. 믿어도 크게 믿고 그에게서 성공의 소식을 알리는 환희의 종소리가 울리기를 바랐었다. 하루를 열흘 맞잡이로 여기며 기다려온 그 환희의 종소리가 드디어 울린것이다.

오세민은 어떻게 궤도전차에서 내렸으며 집으로 왔는지 느끼지 못했다. 안해가 반겨 맞아주며 저녁상을 차려주었을 때에야 그는 집에 들어섰다는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부터 왜선지 그의 눈길은 줄곧 출입문쪽으로만 쏠려졌다. 어쩐지 인경이가 뒤따라 출입문을 열고 집안에 들어오는것만 같은 기쁜 예감이 가슴 한끝을 물고 놓지 않았던것이다.

그는 저녁밥을 드는동안등하고 상앞에서 물러났다. 파도처럼 뒤편여는 속마음을 안해에게 드러내보일것 같은 두려움이 그를 상앞에 더 앉아있을수 없게 만들었다. 인경이가 지금 평양에 올라와있다고 말꼬리만 달아주어도 안해는 그달음으로 집을 나가 딸이 든 숙소를 찾아낼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오세민은 량수책상앞에 다가가 등받이의자를 앞으로 끄당기며 앉았다. 그의 눈길은 저도 모르게 책상우에 놓여있는 석고조각으로 쏠려졌다. 사람의 골격을 형상한 조각에는 침혈도가 세밀하게 표시되어있었다. 인경이가 의학공부를 시작할 때에 오세민은 그를 이 조각앞에 앉히고 침혈을 하나하나 짚어주며 설명해주었었다. 인경이는 침혈을 익히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눈감고도 침혈을 짚을수 있게 손가락끝에 신경을 모으고 수없이 어루만졌다. 조각은 인형처럼 그의 애용품이 되고말았다.

세민은 그 석고조각을 어루만지며 귀여운 막내딸에 대한 추억의 세계에 빠져들어갔다.

오세민은 인경이가 중학교졸업을 몇달 앞두었을때까지만 해도 딸을 구강의사로 키우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었다. 그는 아들 넷중에서 그 누군가가 자기의 바통을 넘겨받기를 원했다. 아들을 쟁쟁한 구강의사로 키워 자기의 경쟁대상자로 삼고 구강의학의 미개척지를 향해 육박하게 하려고

희망하였었다. 그런데 그의 일생의 희망이며 가장 큰 소망을 풀어준 사람은 아들들이 아니라 딸이었다.

인경이는 최우등의 성적으로 의학대학을 졸업하였고 구강연구사가 되었다. 인경이는 인차 실력이 높고 전도가 촉망되는 연구사로 지목되었다.

연구소에서는 《표》병의 발병원인과 치료방법을 병리학적으로 밝힐데 대한 과업을 인경이에게 맡겼다. 그날 인경이는 흥분되어 집으로 들어왔다. 그는 옷을 갈아입을 사이도 없이 곧장 오세민이 있는 서재로 뛰어들어왔다.

《아버지, 저에게 연구과제가 맡겨졌어요.》

오세민은 기쁘게 응수하였다.

《너희 연구소 소장한테서 전화가 왔댔다. 젊어서 해볼만 한 일이지. 한번 세상에 소리쳐봐라. 진짜 창조는 언제나 세계를 누를수 있는것이여야 한다.》

《아버지,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강의학 부문에서 실력있는 년장자들을 내놓고 나를 선정 한것은 아버지의 방조를 받으라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난 그 누구의 그늘 밑에서 서식하는것을 원치 않아요. 물론 아버지가 저에게 그런 서식장을 마련해주지 않을테지요?》

《그야 물론이지. 인경아, 어려운 과업을 받았을 때 비록 어깨는 무겁고 힘에는 부치지만 그럴수록 그것을 수행했을 때의 긍지와 자부심은 더욱 큰것이란다. 또 그만큼 자기 위치도 확고해지고... 연구소에서 굳이 너에게 그 과업을 맡긴것은 너의 얼굴이 고와서가 아니라 너의 실력을 믿기때문이 아니겠니.

허나 믿음을 받기도 힘들지만 그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는것을 실천으로 증명해보이기는 더 힘든거란다.》

인경은 웃음을 지우고 신중한 기색을 떠올리며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였다.

인경은 《표》병에 대한 자료들을 얻기 위하여 국내문헌자료들과 외국의 원서들을 탐독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구강병원과 각 병원 구강과들에 찾아오는 환자들이운데서 《표》병환자들을 찾아내어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그런 까닭에 자주 출장을 다녔다. 그는 집에서 사는 날보다 연구실과 구강병원의 치료실, 출장지에서 사는 날이 더 많았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군인민병원 구강분원에서 파장으로 사업하고있는 오세민의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다.

《오선생, 내 오늘 선생에게 힘든 말을 해도 되겠소?》

《언제나 직사포이던 정선생답지 않게 그게 무슨 소리요?》

《헛참, 그렇게 됐소. 세월이 흐르질 않았소. 칼날갈다던 내 성미도 이제 그만 죽었나보오.》

《에돌지 말구 말해주게.》

《...》

《...》

《자네가 아버지로서 인경이한테 단단히 오금을 박아야 할가보네. 난 처음 인경이가 중요한 연구과제를 맡고 우리 병원에 왔다고 하기에 큰 기대를 가지고 남달리 사랑해주었네. 연구조건도 내 힘껏 보장해주구. 그런데 그 앤 얼마나 교만방자한지, 참...》

《?!...》

《글쎄 인경은 우리가 보장해준 연구조건들을 쏜외보듯 하면서 우리 병원의사들은 실력이 낮아지면서 상대조차 하지 않고있네. 그래도 그 문제는 타고난 성격적결함으로 치부하고 스칠수 있지만 우리의 연구조건을 가지고는 <표>병연구를 할수 없다고 내놓고 말하고 다니는것은 참을수 없네. 나쁜 물이 들어도 단단히 든것 같네.》

오세민은 사뭇 놀랐다. 인경이가 정말 판사람이 되었던 말인가. ...

오세민은 딸이 출장지에서 돌아온 날 점잖게 충고해주었었다.

《난 요즘 너를 생각할 때마다 어쩐지 마음이 놓이지를 앓는구나. 사람이 주어진 조건을 탓하면서 남의것을 환상적으로 대하는것도 나쁘지만 조그마한 차이를 두고 뒤선 사람을 깔보는것은 더욱 나쁘단다. 환상과 교만은 자기자신을 좀먹고 락오자로 굴러떨어지게 하는 나쁜 병집이라는걸 잊지 말아라.》

인경은 아버지의 말에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얼마후였다. 오세민은 시간을 내어 딸이 일하는 연구소로 찾아갔다. 딸의 연구실에는 열쇠가 걸려있었다. 오세민은 한동안 문앞에 서있다가 돌아서고말았다. 인경이가 허송세월할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안정시켰다.

세민이 탄 빠스가 보령관앞을 지날 때였다. 무심결에 보령관쪽을 바라보던 그의 두눈은 등그래졌다. 보령관에서 나오는 여러명의 처녀들속에 인경이가 있었던것이다. 세민의 두눈은 저절로 감겨졌다. 일요일도 아닌 날에 버섯이 보령관에서 지

내다니... 중요한 연구과제를 맡은 사람이 뼈를 바쳐도 모자라는 시간을 도량물 흘려버리듯 할수가 있단 말인가. ...

오세민은 ××군인민병원에서 온 전화내용이 상기되면서 딸이 일시적인 놀음놀이에 유혹되어 보령관에 온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세민은 것처럼 민던 딸에게서 배반을 당한듯 한 아픔이 서슬을 친 웅고물처럼 뭉치며 가슴벽을 압박하는것을 느끼며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내뿔었다.

그날 저녁이었다.

오세민은 서재에 놓인 소파에 앉으며 인경을 불렀다. 딸과 마주앉은 그의 주름잡힌 두볼은 붉게 달아올랐다. 평소에는 깊은 사색과 사려깊은 정이 깃들어있던 그의 두눈은 배반당한 분노로 불타고있었다.

《진심으로 말해봐라. 넌 무엇을 목적으로 구강연구사를 희망했느냐?》

오세민은 이사이로 말을 씹어끓듯 한마디한마디 잘라서 말했다. 그러지 않고서는 격한 감정에 휘말려 자기도 모르게 딸의 뺨을 후려칠것 같았기때문이었다.

인경은 아버지의 서리발어진 기상에 겁을 먹은듯 얼굴이 하얗게 질려 겨우 대답하였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사는 아버지가 몹시 부러웠습니다.》

《그 마음은 뭐지?》

《사람이 태어나 아무런 재능도 소유하지 못하고 또 아무것도 남기는것이 없이 삶을 끝낸다면 그 생의 뒤끝에 남는것은 아무것도 없기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어째서 초기에 다진 결심을 저버렸느냐? 어째서 중요한 연구과제를 포기했는가 말이다. 넌 그 연구를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 아니라는것을 잘 알테지.》

인경은 고개를 들었다. 오세민을 똑바로 바라보는 그의 눈가에는 애절한 빛이 어리었다.

《압니다, 아버지. 하지만 최신식연구설비를 보장받지 않고서는 <표> 병의 발병원인을 밝혀내기가 곤란합니다. 외국에서 출판된 의학잡지들에 <표> 병에 관한 논문들이 여러건 발표되었는데 그 집필자들 대다수가 발전된 나라 연구사들이었습니다.》

《그래 그게 어쨌단 말이나?》

《전 현재의 우리 연구설비로는 제가 맡은 연구를 할수 없다는것을 인정한 다음부터는 탕개가 풀

리며 욕망이 사라지고말았습니다. 이제라도 의학과학원에 제기하여 최신식연구설비를 보장받든가 아니면...》

《아니면 뭐냐?》

세민은 딸의 두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

인경은 입술을 꼭 옥물며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도도룩한 입술을 감빔며 가슴을 들먹이는 그의 얼굴에는 하고싶은 말을 아버지앞에서 차마 터놓지 못하는 괴로운 그림자가 비껴있었다.

딸의 속마음을 들여다본 세민의 얼굴은 점점 컴컴하게 질리기 시작하였다.

《이제 보니 넌 불쌍한 사람이 되었구나. 우리 땅에서 우리의 과학을 배운 네가 남의것이 부러워 그것을 넘겨다보니 말이다.》

《...》

《사람의 어리석음이란 도대체 자기가 어느 정도로 썸이 들었는가 하는것을 알지 못하면서 잘난체 하는데 있다고 하더니 그 말이 널 녀두에 둔가보구나.》

《아버지.》

오인경은 음성이 낮아진 아버지의 얼굴표정을 불안스럽게 지켜보았다. 언제한번 성을 내지 않던 아버지여서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는 그 모든 변화가 범상치 않게 여겨졌던것이다.

《물론 우리의 연구설비가 아직 원만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것만은 사실이다. 난 그걸 타하는게 아니라 그것이 없이는 연구를 할수 없다는 너의 그 관점과 립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넌 어릴적부터 공부에서나 모든것에서 첫번째 자리를 차지해왔지. 그런 너를 이 아버지인 자랑으로 여겨왔구. 하지만 지금의 넌 시대의 마지막자리로 밀려나고말았다.

남의것을 넘겨다보아서는 언제가도 첫번째 자리에 설수 없다. 남의 덕을 입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써만 진정 시대가 요구하는, 조국이 인정하는 첫번째 자리에 설수 있는거란다. 이걸 깨닫도록 너를 가르치지 못한 이 아버지 잘못이 정말 크다.》

오세민은 힘들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입에서는 실망으로 빚어진 한숨소리가 새어나왔다.

《넌 쓸모없는 락엽이 되고말았구나. 나무아지에서 떨어진 락엽은 바람에 불리워 이리저리 뒹굴다가 어느 구석진 흙타기에 박혀 썩고마는 법이다.》

《아버지는 너무해요. ...》

인경은 흑—하고 흐느끼며 얼굴을 싸쥐고 달려 나갔다.

다음날 오세민은 인경이가 일하는 연구소당조직에 찾아가 딸이 말았던 연구과제를 보류시켜줄것을 제기하였다. 오인경의 문제는 의과학학원에 까지 확대되었다. 그리하여 인경은 《표》 병연구에서 손을 떼게 되었다. 비난의 화살이 그에게 쏘렸다. 그는 주눅이 들었고 고민에 빠졌다. 거의 한달을 병어리처럼 지내던 그는 별안간 판사람이 되어 오세민앞에 나섰다. 고향에 내려가 살것을 결심했다는것이다. 그때는 이미 그가 모든 수속을 한 뒤였다. ...

《따르릉...》

오세민은 전화종소리에 와들 놀라 성큼 일어섰다. 전화종소리를 초인종소리로 착각하고 막 달려 나가려 했던것이다. 그는 전화종소리가 다시 울렸을 때에야 안정을 잃고 헤뎀빈 자기를 두고 허거프게 웃으며 송수화기를 들었다. 오세민이 만나려고 하였던 의학대학 부학장이었다.

《선생님, 아가는 면전에서 딸의 문제를 논의할 수 없어 그냥 돌아섰는데 량해해주십시오.

지금 오인경의 논문은 성공이 불가능하다는 딱지가 붙었습니다. 심의위원의 절반이상이 인경이의 논문에 의혹을 표시하고있습니다. 공개심의를 바라는 논문집필자에게 가혹한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선생님이 보시고 출로를 찾아주었으면 합니다. 아버지로서라기보다 구강의학부문의 선배로서 새싹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가능한껏 성공의 방도를 찾아주고 도와주는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전화는 끊어졌다. 오세민은 굳어진듯이 앉아 있었다.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인다면 송수화기에서 울린 목소리가 다시 상기되면서 심장을 짓누를것 같았기때문이었다.

×

강물은 흐르는지마는지 잔잔하였다. 자글자글 내려쬰이는 해빛을 받아 물면은 온통 보석가루를 뿌린것처럼 반짝거렸다. 강줄기를 따라 유보도가 길게 누워있었다. 가랑잎들이 미풍에 불리우고 있는 유보도는 사람들의 래왕이 뜨옴하여 혼자 생각에 잠겨 건기에 안정맞춤하였다.

오세민은 검은색 반외투주머니에 손을 깊숙이 찔러넣고 깊은 생각에 잠겨 유보도를 따라 무거운

걸음을 옮기고있었다.

의학대학강의에 초빙되었던 그는 강의를 마치고 구강병원으로 가는 걸음이었다. 어느때에는 앞선 사람을 연거퍼 따라잡으며 빠르게 걸던 그는 걸음걸음 생각을 쪼아박듯 천천히 그러면서도 무게있게 발걸음을 옮기고있었다.

그의 뇌리에는 인경의 논문에 밝혀있는 《5번》이라는 수자가 풍선처럼 솟구쳐오르고있었다. 《5번》은 《표》 병의 발병원인과 치료방법을 밝혀낼수 있는 핵이었다. 인경이는 끝끝내 그 핵을 찾아냈다. 구강의학에서 빈구석으로 남아있었던 문제를 인경이가 찾아낸것은 참으로 자랑할만 한 성과였다.

하지만 그가 수년간 실험을 거듭하며 연구한 수확물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 근거는 《5번》을 형성한 세포들에 대한 생리학적인연구가 동물실험단계에서 머무른채 막을 내렸기때문이었다. 물론 인경이는 의학적으로 담보를 주기 위하여 실험에 리용한 동물들의 종류와 마리수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그리고 자기가 상대했던 《표》 병환자들의 이름과 《표》 병환자들속에서 《5번》을 수술하지 않으면 위급한 환자를 수술하여 《5번》 세포의 형태와 움직임을 확정한 자료도 논문에 밝혔다. 그런데도 그 자료가 공감을 주지 못하는것은 《5번》 세포가 환자의것이기때문이었다.

《표》 병환자의 《5번》 세포와 건강한 사람의 《5번》 세포를 생리학적, 병리학적으로 대비고 찰해야만 인경의 논문에 과학적인 담보를 줄수 있었다. 하기에 오세민은 어제 학위학직심의회 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오인경의 논문을 돌려주면서 논문의 결점에 대해 명백하게 밝혀주었었다.

오세민은 지금 인경의 신상이 은근히 걱정되었다. 심혈을 바쳐 연구한 논문이 심의에서 부결되었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인경이가 접한다면 쓰러지고말것이다.

이때 등뒤에서 《박사선생님.》 하는 부름소리가 조심스럽게 울렸다. 오세민은 걸음을 멈추었다.

동실한 얼굴에 안경을 낀 젊은이가 그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더니 공손히 머리를 숙이며 인사하였다. 어디서 본듯 한 낯익은 젊은이였으나 누구인지 얼른 떠오르지 않았다.

《전 여러차례 박사선생님의 강의를 받은 제자입니다. 지금은 의학대학 교원으로 있습니다.》

오세민은 빙그레 웃었다.

《허허허... 참 안됐소. 제자도 알아보지 못하는

인사불성이 어디 있겠나.》

오세민은 한순간이나마 기분이 유쾌하여 시름을 놓고 웃었으나 젊은이는 인사를 할 때에만 빙긋 눈웃음을 짓고는 조각처럼 굳어진 표정이었다.

《선생님, 실례되는 말씀이지만 한가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젊은이의 무뚝뚝한 물음에 오세민은 밝은 표정으로 수긍하였다.

《오인경동무의 논문에 대한 선생님의 평가를 듣고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예상외로 심기를 건드리는 젊은이의 도전비슷한 억양에 오세민은 웃음을 거두었다. 그의 동그레진 두눈이 진중하면서도 지체에 어울리는 몸가짐을 하고 서있는 젊은이를 간간스레 훑어보았다. 도대체 이 젊은이가 내 딸과 무슨 인연을 맺었기에 논문에 관심을 가지는것일까? 혹시 의학대학에서 논문을 놓고 무슨 말들이 오간게 아닐까? 무수한 의문표들이 연꼬리처럼 줄줄이 잇달리는데 젊은이의 침착한 목소리가 오세민의 귀전을 파고들었다.

《저는 인경동무와 대학동창입니다. 문용복이라고 합니다.》

《...》

오세민은 사뭇 놀라왔다. 오세민은 젊은이를 물끄러미 여겨보았다. 이제는 남같지 않은, 자기 가정의 한식술같은 혈육의 정이 가슴속에서 파도치면서 오세민을 행복의 무아경으로 이끌어갔다. 그는 젊은이를 오늘 처음 보지만 문용복이라는 이름은 여러번 들었다.

인경이와 대학시절부터 남다른 사이였다는 문용복, 그는 인경이를 사랑했고 인경이와의 결혼을 희망하였다. 어떤 총각일까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만나보니 정말 릉름하고 사내싸게 생긴 총각이었다. 첫눈에 마음에 들었다.

그의 전화를 통해 오세민네 가정에서는 인경의 소식을 종종 들곤 하였다.

인경이가 ××구에 내려갔을 때 광산일꾼들이 오인경이네가 살던 집 한칸을 내여 살게 해준 이야기며 《교》병치료약의 약초를 채취하려고 산에 올라갔다가 벼랑에서 떨어져 운신도 못하고 눈물짓는 그를 마을사람들이 업고 내려와 간호하며 온밤 지새웠다는 이야기...

오세민은 3년이라는 그 나날 자기 가정의 행복을 위해 고맙게 도와준 문용복을 마주하고보니 마치 딸을 만나기라도 한듯 반갑고 기쁘기 그지 없었다. 그는 문용복의 손을 덥석 그러쥐었다.

《나는 동무를 몰랐다고 동무는 나를 알았을

텐데 왜 여적 한번도 찾아오지 않았나?》

《인경동무가 논문을 끝내기 전에는 애인의 자격으로 아버지앞에 나서지 말라고 하기에...》

《허허허... 모를 일이다. 사내가 녀자의 강박에 눌리우다니...》

《어찌겠습니까. 난 이미 인경동무에게 저의 심장을 맡긴 몸인걸요. 선생님은 제가 언제인가 ××구에 한번 내려가주었으면 좋겠다고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그날 선생님에게 전한 저의 의향을 인경동무에게 말했다가 혼쭐났습니다.》

오세민은 두해전 가을날이 생각났다.

오세민이가 출장길에 고향과 릉접한 안신역을 지나가고 지나온다는것을 알게 된 안해는 그에게 간절하게 당부하였다.

《여보, 이번 출장길이 힘들어도 인경이를 한번 보고 오시우. 문용복이란 사람한테서도 한번 내려가달라는 소식이 오지 않았수.》

《허헛 참, 당신은 내가 나들이가는가 하지 않소?》

오세민은 안해에게 이렇게 오금을 박고 집을 떠났지만 돌아올 때에는 딸이 그리워 안신역에서 내려왔다.

광산사무실에 당도하니 낮익은 일꾼들이 그를 반겨맞아주었다. 오세민은 정다운 사람들과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고나서 딸이 생활하는 집으로 향했다.

그가 고향집뜨락에 서서 옛추억을 더듬고있는데 부엌문이 열리며 40대의 녀인이 나왔다. 오세민은 녀인이 제대군인광부의 안해라는것을 대뜸 알아보았다. 오세민네가 평양으로 이사를 가자 광산에서는 그가 살던 집을 이 제대군인광부에게 주었던것이다. 녀인을 마주하고보니 제대군인광부가 생각났다.

오세민네가 평양에 와서 살던 어느해 제대군인광부가 불쑥 찾아왔다. 그의 등에는 묵직한 배낭이 매달려있었다. 어리벉벉해서 서있는 오세민네 가족들앞에서 광부가 배낭아귀리를 풀어헤쳤다. 잘 익은 감알들이 한가득 들어있었던것이다. 광부는 감알들이 상할세라 지함안에 정성스레 넣고 왔던것이다. 평양을 견학하러 오는 기회에 익은 감알들을 나무를 심은 주인에게 주고싶어 가지고 왔다는것이였다. 그날 오세민은 광부와 마주앉아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깊은 인상을 남기고 헤어졌던 광부부부가 광산에 내려온 오인경의 생활을 따듯이 돌봐주고있다

는 이야기를 이미 듣고있었던 오세민은 여인을 보는 순간 가슴이 후두위오르며 깊숙이 허리를 굽혀 절이라도 하고싶은 심정에 휩싸였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인경이의 아버지입니다.》

그제서야 여인은 오세민을 마주 향해 반갑게 인사하며 딸이 들어있는 방으로 안내하였다. 방은 비어있었다.

《인경선생은 삼사일간 약초를 캐고 오셨다면서 어제 아침에 산에 올라갔습니다.》

오세민은 빈방에 앉아있을수가 없어 밖으로 나왔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은 뒤뜰안으로 향해졌다. 그는 키높이 자란 감나무앞에 다가섰다. 오래 전에 온 식구가 함께 심은 감나무였다.

그의 눈길이 굵은 나무가지에 매달려있는 패쪽에 쏠렸다. 하얀 바탕에 빨간색으로 쓴 글자가 유난히 눈길을 끌었다. 패쪽에 써여진 자식들의 이름을 차례로 내려쫓던 그의 눈길은 굳어지며 숨소리가 잦아져버렸다. 패쪽에는 네명의 아들들의 이름만 올라있었던것이다. 인경의 이름은 없었다. 예전에는 맨 옷자리를 차지했던 인경, 언제나 자기를 앞자리에 세우던 딸의 이름은 흔적조차 없어졌다.

오세민은 갑자기 심장을 압박하는듯 한 충격에 흠뻑 놀라 돌아서고말았다. 딸은 자기의 이름을 스스로 지워버린것이다. 언제나 결국하게 살아가는 아버지와 오빠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는다는것이 부끄럽고 혐오스러워 자기 이름을 빼버렸다. 그래서 그는 오빠들은 물론 오세민에게도 편지 한장 보내지 않았다. ...

오세민은 추억을 자아내게 한 문용복을 대견스레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그동안 우리 인경이를 도와주느라 고생이 많았겠구만. 창조과정엔 때로 그 협조자들의 수고가 주인공 못지 않게 클 때가 있거던.》

오세민은 멈춰섰던 걸음을 다시 옮기었다. 뒤따르는 문용복은 좀전과는 달리 심중한 낯색으로 물었다.

《그런데 선생님도 오인경동무의 논문을 절름발이논문으로 규정하였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오세민은 고개를 끄덕이였다.

《숨기지 않겠소. 안타까운 일이지만 인경인 병신자식을 낳았소.》

오세민은 스승답게 일깨워주었다. 숨길 필요가 없었다. 하루빨리 이 소식을 논문집필자에게

알려주어 대책을 세우게 해야 하였다. 허나 그의 이 솔직한 대답은 문용복에게 반발심을 일으켰다.

《전 어떤 리유로 논문이 보류되었는가를 알기 전에 한 인간이 자기의 생에서 가장 뜻깊고 영예로운 날로 빛날 날을 잃어버려 슬픔속에 울고있다는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전 인경동무의 논문이 어떤 힘겨운 경로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는가를 잘 압니다. 그는 나라와 인민앞에 진 빚을 갚기 전에는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동무들에게 얼굴을 드러내지 않겠다고 하면서 연구가 성공하게 될 그날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왔습니다. 그 나날에 인경동무가 겪은 고충을 어떻게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할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논문집필자의 아버지까지 반대하실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문용복은 얼굴을 피빛으로 달구며 흥분하기 시작하였다.

《흥분하지 마오. 논문은 어디까지나 논문인 것만큼 인정을 기대하는것은 오산이요. 과학에는 값늑은 인정이 금물이요.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만 논문의 가치가 규정되요. 그리고 우린 지금 논문집필자가 논문의 완성을 위해 바친 수고를 계산할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완성되지 못한 원인을 논해야 하오.》

《그럼 선생님은 인경이가 〈표〉병치료약으로 제조한 백송봉대고약도 부정하십니까.》

《난 백송봉대고약의 우점을 배제하는게 아니요》

오세민은 백송봉대고약의 우점에 대하여 설명을 듣지 않고도 잘 알았다. 오인경은 고약의 원료를 우리 나라에 흔한 약초들로 썼다. 하루도 아니고 긴긴세월 산벼랑을 뚫아오르며 《표》병치료약의 원료를 채취하느라고 흘린 땀방울을 그 무엇으로 셀수 있으랴. 때로는 지쳐 쓰러져 별과 함께 새날을 맞은적도 있었으리라. 모진 고생과 아낌없는 정열로 마련한 논문이어서 성공의 그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였을것이다. 그런데 그 논문을 이 아버지는 지지하지 않았다. 아니, 지지할수가 없었다. 그래서 문용복이 분격해하는것이다.

《전 논문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에서 긍정이 결점보다 우세를 차지한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구강의학부문의 권위자가 아닙니까. 우리도 논문이 100프로짜리가 못된다는것을 인정합니다.》

《뭐요?!》

오세민의 두눈은 등그래지더니 속눈썹이 경련을

일듯 바르르 떨어졌다. 믿어지지 않았다. 믿을수 없는 일이어서 그는 다시 물었다.

《그러니 론문의 빈구석을 인경이도 알고있었던 말이요?》

《…》

오세민은 갑자기 탕개가 풀리며 온몸이 매시근 해졌다. 오히려 알지 못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실망하지 않았을것이다. 그러니 인경이는 병신자식도 제 자식이라고 고와하는 《너그러운》 어머니로 되자는것인가! 자기 결점을 알면서도 어떻게 버젓이 공개심의에 나서려 했는가. 이해할수 없었다.

오세민의 표정이 서늘하게 번져지는 까닭을 열린 눈치챈 문용복은 사연을 설명하였다.

《선생님도 아시다싶이 <요>병의 발병원인을 밝히는데서 핵이라고 할수 있는 <5번>에 대한 실험을 전적으로 동물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더이상 할수 없었기때문입니다. 우리가 할수 없은것은 하지 못할 한계가 있기때문입니다.》

《…》

《선생님, 건강한 사람을 수술대에 올려놓고 <5번> 세포를 떼낼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요구는 부모도 할수 없습니다.》

오세민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문용복이가 하는 말들이 세민에게는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 오세민의 고막은 벌둥지를 달아맨듯 웅웅거릴뿐이었다. 그의 걸음발은 떠졌다. 문용복이가 따라오는지마는지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는 지금 속으로 인경이가 론문의 결점을 알고있으면서도 론문을 제출했다는 그 말마디만을 곱씹어 뇌이고있었다.

아니, 아니다. 인경아, 그것은 진정으로 첫번째 앞자리에 서는 길이 아니다. 그것은 잃었던 자신을 되찾는 길이 아니다. 그것은 과학자로서의 랑심을 저버리는 길이고 자기자신을 속이는 길이다. 자기의 모든것을 깡그리, 지어 생명을 바쳐서라도 과학적인 담보를 주어야 참다운 과학자로서의 자기를 되찾고 조국이 바라는 자리, 첫번째 자리에 설수 있는것이다. …

세민은 문득 문용복이 따라오지 않는것을 느끼고 돌아섰다. 저쯤 떨어진 곳에 서서 자기를 지켜보던 문용복이 고개를 떨구고 돌아서서 반대방향으로 가고있었다. 그가 별스레 측은하게 여겨졌다. 론문을 완성한 다음 결혼을 하자고 약속하고 기다린 그였으니 가슴에 불이 일다못해 재가 있지 않았다고 누가 단정하랴!

내가 박정하고 몰인정한 사람이라고 저주받아도 좋다. 후배들앞에서 스승이 베풀수 있는 도량이 이제 전부인가고 타매해도 나는 명실공히 론문을 완벽하게 완성시켜주어야 한다. 바로 그것이 인경의 아버지로서, 선배과학자로서 내가 지켜야 할 량심이고 의무이고 도리인것이다.

용복이 이사람, 날 용서해달라구. 이제 인경이도 자네도 날 이해할 날이 꼭 있을걸세. …

×

며칠후 저녁이었다. 오세민은 송수화기를 들고 의학대학 구강강좌에 있는 문용복을 찾았다.

《난 론문집필자가 미지수로 남겨놓았던 <5번>을 동무들의 손으로 해결할 기회를 주기 위해 찾았소.》

문용복이쪽에서 대뜸 반응이 일어났다.

《그러니 선생님은 건강한 사람을 수술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소. 우린 진정한 연구를 목적으로 이 길에 발을 내디딘 사람들이 아니요. 론문집필자에게 알려주시오. <5번>을 수술받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말ियो.》

《선생님, 그건 안됩니다. 안전을 담보할수 없습니다.》

《아직은 겁먹을 필요가 없소. 그리고 서둘러 소문을 내지 마오.》

본인이 그걸 담보로 하여 수술에 응한것만큼 래일 아침 9시에 구강병원 수술장에서 수술을 하자구. 수술집도자는 론문집필자요. 나도 그 시간에 수술장으로 가겠소.》

오세민은 송수화기를 놓았다. 말을 더 하지 못한것이 서운하였다. 내가 무슨 말을 하자고 했을가. 아, 이제야 생각났다. 그들 문용복이와 인경이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지 못했다. 이제 머지않아 론문이 완성되면 결혼을 하고 잘살아야 한다는 아버지의 인사를 전해준다면 그들은 더없이 기뻐했을것이다.

오세민은 창문너머 하늘을 바라보며 입속으로 속삭였다.

《애들아, 재능과 헌신은 나루배와 물파의 관계와 같이 뗄수 없는것이다. 왜냐하면 헌신이 없는 재능은 무익하기때문이다. 과학연구일반이 다 그러하지만 의학은 사람의 생명과 잇닿은것이어서 더 절박한것이다.》

자기 생명을 아끼면서 어찌 남의 생명을 살릴수



있겠느냐. 무한한 자기희생, 이것이 우리 시대 의 학자들이 자기를 세워야 할 첫번째 자리이다. 앞으로 너희들은 자기를 서로서로 합쳐가며 다정히 합심하여 과학의 세계를 향하여 마음껏 날거라.》

다음날 오세민은 문용복이와 약속한 시간보다 먼저 수술장옆에 있는 대기실에 들어섰다. 양복을 환자복으로 갈아입은 그는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다. 인경이와 용복이의 행복한 앞날을 그려보며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대기실은 고즈넉한 정적속에 잠겨있었다. 그는 마음을 불안스럽게 짓누르는 그 정적이 싫었다.

이제 집도자가 자기의 입안에서 《5번》을 떼내면 이발이 뿌리채 드러나며 극단한 경우 중태에 빠지게 된다는것을 모르지 않았다. 바로 이 문제로 하여 인경이도 용복이도 용단을 내리지 못했을 것이다. 오세민은 지금 자기의 신상에 미칠 아픔보다도 집도자가 수술에 응하겠는지 그게 더 걱정되었다.

얼마후였다.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대기실문이 열렸다. 문용복이를 따라 인경이가 들어오고있었다. 불시에 세민의 입에서는 《인경아—》하는 반가운 웨침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 소리는 입안에서 잦아들었다. 오세민은 애써 그 부름을 삼킨것이다.

의자에 앉아있는 오세민을 향해 두 청춘남녀의 반짝이는 눈빛들이 동시에 쏘렸다. 점차 인경의 영채도는 두눈이 커지더니 별안간 긴 눈썹이 떨렸다. 동시에 《아버지!!》하는 부름이 뜨직 뜨직 새어나왔다. 식은땀이 그의 얼굴에 돌으며 한동안 일어나간 사람처럼 멍청해졌다. 그의 눈귀에서는 눈물이 샘솟듯 솟아오르더니 점차 두볼을 적셔놓았다.

《그럼 아버지가... 안돼요. 아버지는 안돼요.》

오세민은 딸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었다.

《애야, 그러지 말아. 아버지 이미 결심했다. 《5번》을 네것으로 만들어야 할게 아니냐. 담보가 없는 논문, 리론으로만 증명된 창조는 창조가 아니다.》

《난 못해요. 절대로 아버지를 수술할수 없어요.》

오인경은 고개를 꺾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다음 황급히 돌아서서 대기실문을 향해 걸어갔다.

《애야, 돌아서거라. 그 누구든 이렇게 해야 진짜 《5번》을 찾을게 아니냐. 넌 돌아설수 없

는 몸이야.》

인경은 멈춰섰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우리가 오늘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이 길을 걷게 된다. 이왕 걸음을 땀으면 종착점까지 앞서 걸어야 할게 아니냐. 어서 마음을 다잡고 수술장으로 들어가자.》

인경은 가까스로 본래의 자세로 돌아섰다.

《아버지—》

오세민은 딸의 부름소리를 정겹게 들으며 수술장으로 들어갔다.

×

오인경의 학위논문에 대한 공개심의를 성과적으로 끝난 며칠후 저녁이었다. 오인경은 책상앞에 앉아 책을 읽고있는 아버지곁에 다가섰다. 그는 어리광부리던 소녀시절처럼 속눈썹을 깜빡거리며 아버지의 한손을 두손으로 더듬어쥐고 가슴앞으로 끄당졌다.

《난 어릴 때 아버지의 두손중에서 한손만 잡아도 마음이 든든했었어요. 내가 이제 아버지의 이손을 놓치면 언제 다시 잡아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허허허... 원 애두. 그래 언제 내려가겠느냐?》

오세민은 안경너머로 미소를 보내며 다정하게 물었다.

《태일 아침에 떠나겠어요.》

《...》

《전 아버지가 저의 장래를 걱정하신다는것을 다 알아요. 제가 다시 평양에 올라와 살았으면 하는 부모님들의 심정을 어찌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 광부들에게 정이 들었어요. 광부들은 나를 기다릴거예요. 보름이면 돌아온다고 떠났는데 벌써 한달이 넘었으니 광부들이 나를 얼마나 욕하겠어요. 난 우리 병원을 선군시대의 본보기로 꾸려놓겠어요.》

《그래 너의 그 동창생총각은 어찌느냐? 너의 결심을 그도 찬성하느냐?》

《아이 참, 아버지두...》

인경은 얼굴을 발갛하게 붉혔다.

《이건 그 동무와 이미 다 토론이 있는거예요. 우리 장군님께서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광부들을 위해 우린 한생을 바치기로 했어요.》

《애야.》

오세민은 딸을 와락 껴안았다.

오인경은 떠나갔다.

# 나는 영예군인의 딸

진 춘 근

내 어린 그 시절  
이 딸의 눈동자에 익힌것은  
언제나 아버지의 앞가슴에  
소박하게 빛나던 영예군인메달

내 무릅없이 무릎에 앉아  
그 휘장을 매만질 때면  
조용하면서도 근엄히 하시던  
아버지의 그 말씀  
오늘도 잊혀지지 않는  
옛말 아닌 그 이야기

한해 두해 나이들어도  
잊을수 없는 그 이야기  
이제는 나의 온넋에  
피가 되고 숨결이 된 그 이야기

아, 지금도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아요  
강물이 끓고 모래가 타는 락동강전투에서  
적탄에 두손을 잃으면서도  
반땅크수류탄을 안고 배밀이하어  
미제의 땅크를 날려보낸  
아버지의 그 후더운 숨결이...

그 숨결로 아버지는 오늘도  
탄우속을 두렵없이 헤치던 그 마음으로

날마다 출근길을 다그치고  
불타는 고지에서 중기압철 누르던 그 정신으로  
기대의 동음소리 세차게 울리고있기에  
아버지의 그 숨결  
그 박동이 이 가슴에도 높뛰고있어요

진정 나의 아버지  
이 딸의 두손 잡고  
결음마 배워주진 못했어도  
조국에 대한 남다른 사랑으로  
원췌에 대한 남다른 증오로  
이 딸의 심장에 복수의 불을 달아주었어요

영예군인의 딸  
이렇게 조용히 불러볼 때마다  
락동강의 물소리 나를 부르고  
아버지가 못다간 결전의 길로  
내 마음 달리고달려요

정녕 조국앞에 준엄한 시각이 오면  
결사전에 펼쳐나서  
복수의 총대를 쥐고 먼저 달려가  
대를 이어 쌓인 원췌 다 갚기 전에는  
고향집대문을 열수 없는  
아, 나는 영예군인의 딸이에요

~~~~~

오세민이가 책상우에 놓인 인경이의 편지를 발견한것은 그가 떠난 날 저녁이었다.

《...평양을 떠나자니 생각이 깊어집니다. 제가 남들한테 뒤지지 말자고 이악을 부리며 살아온 스물다섯해는 제가 자기 설 자리를 모르고 살아온 나날들이였습니다. 재생의 마음을 가다듬고 한고패한고패 뿔아오른 3년은 저에게 인간수업을 다시 시킨 잊을수 없는 나날이였습니다.

아버진 늘 우리 자식들에게 앞서 걷는 사람만이 이슬을 찬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거기에 제가 그처럼 갈망하던 만족과 기쁨, 희망과 미래가 있다는것을 생활속에서 체험하였습니다. 이 딸은 어디

에 가든 저의 눈에 비낀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며 살겠습니다. ...》

오세민은 별스레 가슴이 후터워나 창문을 열었다. 밤하늘에 둥근달이 떠서 은은한 빛을 뿌리고있었다.

세민은 그 달빛속에 멀리 고향집뜨락에 서있을 감나무를 그려보았다. 그 감나무의 패쪽에 이제는 인경의 이름이 당당히 앞자리에 오를것이다. 인경은 앞으로도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걸어갈것이다.

세민은 딸애의 밝은 앞날을 그려보며 미소를 짓고 오래도록 달빛속에 서있었다.

# 영웅의 위훈

김 윤 결

오붓한 산골마을  
학교운동장엔  
들꽃향기 넘친다  
렐지은 아이들은  
모교의 영웅병사를 기다리고있다

기쁨으로 오르내리는 꽃테프  
초롱초롱한 선망의 눈빛  
영웅의 이야기로 설레는 아이들  
그 애들의 기쁨을 터치며  
병사가 들어선다  
금별이 그의 가슴에 번쩍인다

축하의 렐은 어디 갔느냐  
아이들은 날아오르는 새무리처럼  
벌써 엄숙한 대렬을 흐트러뜨렸다  
와— 소리치며 달음박쳐  
학교의 자랑을 부둥켜안았다

언제나 마음속에 그려보던 영웅  
원췌에게 끌려가는 기관 멧은 배우에서  
날이 선 도끼로 열백번  
언 바줄을 끊어버리며  
총든 원췌의 무리와 뿔뿔이 맞서 이긴 영웅  
그의 품에 안긴 아이들은 소리치고싶었다  
—우리 학교 영웅이다!—

어느새 영웅은 고향의 들꽃에 물혔다  
유년시절 그의 꿈이  
이슬처럼 맺히던 동산의 꽃이다  
그가 소년시절 사랑하던 꽃이기에  
순진한 아이들이 아릅아릅 안고온  
아름다운 꽃이다  
영웅을 따르는 아이들의 마음이다

그래 영웅의 금별은 아이들의 별

그 별아래 아이들은  
래일의 꿈을 속삭였고  
마음속 그 별결에  
자기의 작은 별을 새겨도 보았다

영웅은 별처럼 멀지만 않았다  
그가 앓던 책상은 수수했고  
그가 심은 나무는 푸르러  
서늘한 그늘아래 아이들을 불렀다  
고향에 대한 사랑의 노래 배워주었다

아, 희망을 나누며 오르던 배움의 층계여  
가득나무 잎사귀에 담아쥐던 빨간 딸기여  
영웅이 아침저녁 오가던 들길이어!  
그날에 소중히 간직했던  
영웅의 꿈은 아이들의 꿈

그가 군복을 입고 모교를 떠났던 이 길로  
아이들은 자라 또 떠나리  
그가 금별을 안고온 이 길로  
위훈 없이는 뿔뿔이 들어서지 못하리  
아이들이 그에게 안겨준 꽃은 시들지 않으리

아, 영웅이 꽃속에 물렸는가  
꽃속에 아이들이 물렸는가  
한번 힘껏 차면 공이 담도 넘을  
오붓한 산골마을 이 작은 운동장에  
산골아이들의 티없는 마음이  
오구구 다 모였다

내 이 순간 생각하노라  
영웅이 영웅들을 키워내며  
조국앞에 세우는 또 하나의 위훈을  
온 나라가 자랑하는 저 영웅도  
어린시절엔 저 애들과 다름없는 아이였으리  
산촌의 들꽃과 못 떨어진 아이였으리

# 나의 벗들에게

김 철 혁

세월은 빨리도 흘러갔구나  
홍안의 그 시절이 어제같은데  
귀밑머리엔 벌써 흰오리가 섞이누나  
중년기 나의 벗들이여

전초선의 눈비도 맞아본 어깨로  
발전소언제도 받들어 세우며  
선군시대의 벅찬 나날에  
너와 나의 청춘시절도 가는것인가

우리 달려온 생의 길에  
저마다의 자랑이 있다 하자  
한시절에 있는 자서전의 땀자욱을 자부하며  
이미 받은 훈장 메달에 묻혀 살라

버쩍 머리 들고 앞을 보아라  
거침없는 지평선을 마주한듯  
한가슴 탁 열리지 않는가  
강성대국 그날이 눈앞에 보인다  
위대한 령장의 힘찬 발걸음소리  
젊은 날의 우리 심장 뿔뿔여주나니

이제는 다 큰 자식들이 대견하다고  
달리던 발걸음을 늦추라  
경험도 쌓을만큼 쌓은 나이  
아직은 열정의 피가 끓고  
가장 많은 일 할수 있는 이 시절에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참전자라는

이 얼마나 크나큰 행운이나

위훈은 한시절만이 아닌  
조국에 바치는 영원한 우리의 삶  
하거늘 어이 주춤거리랴  
이 벽찬 투쟁의 한복판에 뛰어들기를

불도가니속에 쇠물이 익듯  
심장속 열정의 불길 더 황황  
너나없이 번쩍이는 열매 익혀낸다면  
우리 또한 이다음에  
머리에 흰서리가 서글프지 않으리

자신만을 위해 살면 거품인생  
시대의 격류속에 한몸 잠그고  
끓으며 솟음치며 내달리며  
열정에 사는 인생은 영원히 늙지 않으리  
조국과 함께 언제나 젊어지리라

## 내 어디서 떠나왔는가

리 호

어스름이 깃드는 이 저녁  
전호가 잔디벽에 가슴을 대고서니  
스스로의 물음이 심장을 울린다  
내 어디서 떠나 여기 섰는가

수행해야 할 임무를 두고  
지휘관의 목소리 엄숙히 울리던 곳  
믿음어린 눈빛들이 뜨겁던  
증대의 마당가 그곳만이던가

한자욱 두자욱 발걸음 옮겨가는  
나의 마음속엔 비껴오누나  
빨간 령장 어깨우에 살구꽃잎 내리던  
떠나온 고향집 그 트랙이

배낭속에 말없이  
영웅의 시도 넣어주던 선생님앞에  
심장의 언약 거수경례에 답아 하던  
추억깊은 모교의 그 길도

애뜻이 젖어오누나  
아카시아울바자새로 파수원에 새여든  
장난꾸러기 나를 불러세운 누나

타이름과 함께 주머니에 열매 가득 채워줄 때  
민망스러워 얼굴 붉히던 그날도

총잡고 전호가에 설 때면  
어려오누나  
파철 지고 찾아갔던 용해장에도  
내 마음 다시 서보고

꽃나무 안고갔던 만경대와 더불어  
평양의 거리와 무수한 창가들이  
이 고지의 령길에 다 이어진듯  
소중히 다 안겨오나니

아 마음에 간직한 귀중함이 없이야  
지키여 육탄될 그 시각이 있으랴  
눈 와도 비 와도 한모습으로  
묵묵히 지새가는 긴긴밤이 있으랴

그렇다 오늘도 이 땅을 노리는  
원썬들과 총부리 맞대고선 이 병사  
소중한 그 모든것을 다 안아 지키라고  
사랑과 정과 애뜻함을 더해주는  
조국의 모든 곳에서 떠나온것이여라

## 공감이 가세, 진실하게...

—지난해 하반기에 《조선문학》 잡지에 발표된 단편소설들을 두고—

리창유

우리 조국의 혁명력사에서 또 하나의 위대한 전환이 일어난 장엄한 투쟁의 해 지난해 하반기에도 우리 작가들은 사상예술적으로 비교적 우수한 단편소설들을 《조선문학》잡지에 발표하였다.

그가운데서도 주체문학건설의 기본의 기본인 수령형상단편소설들이 높은 사상예술적풍격을 갖고 편이여 창작발표된것은 그 성과의 중요한 일단이라고 당당히 말할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주체문학건설의 기본의 기본이다. 우리의 문학에서는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을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수령형상단편소설들인 《열다섯번째 해》(백보흠 작, 7호), 《우리 수령님》(신용선 작, 9호), 《봄소나기》(백남룡 작, 10호)는 지난해 단편소설사를 빛나게 장식한 대표적인 작품들이라고 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도이쉴란드의 이름있는 녀류작가인 루이저 린저를 여러차례 만나주신 력사적 사실을 소재로 하여 수령님의 탁월한 예지와 비상한 기억력, 만민을 감화시키는 고매한 덕망을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서 형상한 단편소설 《열다섯번째 해》는 참으로 감명깊게 읽히우는 작품이다.

소설은 시종일관하게 상대인물인 린저가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식견과 인류사가 알지 못하는 고매한 덕망에 매혹되는 과정을 이채로운 세부형상을 통하여 형상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우리 수령님은 진정 탁월하고도 위대하며 더없이 인자하신 위인중의 위인이시라는 깊은 감동을 받아안게 하여준다.

단편소설 《우리 수령님》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80고령에 이르신 몸으로 생신날에도 편히 쉬지 않으시고 시험포전이며 주변구역의 농장벌을 현지지도하시며 더없이 뜨거운 사랑을 베푸신 단 하루동안에 있는 력사적사실을 중심에 놓고 담담하게 이야기를 펼친 작품이다.

작품의 특성은 평범한 농장원처녀들에게 색깔을 비닐비옷 등을 몸소 해결해주신 뜨거운 아버지

사랑에 대한 혁명영화 하나를 중심에 놓고 그 하루동안에 있는 가지가지의 일들을 집약시켜 섬세하게 묘사한것이다.

작품은 우리 수령님의 시점과 작가의 시점을 엮바꾸어가면서 아버지수령님의 뜨거운 인간애를 내면심리묘사를 통하여 잘 형상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단 한차례의 현지도과정을 특색있는 사건과 결부시켜 의의있고 절실한 사회적문제, 인간문제를 풀어보인 단편소설 《봄소나기》 역시 작품의 높은 형상기교를 잘 파시한 수령형상작품이라고 할수 있다.

우에서 언급한 수령형상단편소설들의 특성은 수령을 형상체계의 중심에 확고히 세우고 이야기를 펼침으로써 종전의 일부 작품들에서와 같이 측근인물이나 상대인물들 호상관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보다 많은 몫을 차지하는 경향을 철저히 극복하고있다는 점이다. 다시말하여 풀기 어려운 문제를 놓고 이여의 상대인물들이 많은 고심을 하고있는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다가 수령을 등장시켜 이야기를 역전시키는 구성수법이 아니라 이야기의 첫시작부터 수령을 등장시켜 위인의 손길에 의하여 이 땅에 세기적변혁이 창조되고 우리 인민 모두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과정을 깊이있게 펼쳐보일수 있는 구성수법을 잘 활용하고있는것이다.

지난해 하반기에 단편소설창작에서 거둔 성과에서 반드시 평가해야 할 작품의 하나로는 항일의 녀장군 김정숙동지의 뜨거운 혁명적동지애와 의리의 세계를 감명깊게 형상한 단편소설 《새봄의 메아리》(조창근 작, 12호)이다.

이채로운 하나의 열레빗세부로 이야기를 이어나가다가 독자들의 예상을 뒤집는 높은 형상력, 능란한 어휘구사와 섬세한 묘사 등은 작품의 높은 창작기교를 잘 말하여준다.

우에서 본 백두산3대장군을 형상한 이 모든 단편소설들은 그 한편한편이 사상예술적풍격에서 자기의 독특한 형상세계가 있는 우수한 작품들이다.

지난해 하반기에도 조국해방전쟁주제, 현실생활주제를 비롯한 다양한 주제의 일만단편소설창작에서도 비교적 우수한 작품들이 적지 않게 발

표되었다.

여기서 눈에 띄게 나타난 혁신적성과는 한마디로 말하여 지금까지 문단에 잘 알려져있지 않은 작가들에 의하여 비교적 높은 사상에술적풍격을 가진 단편소설다운 작품을 써낸것이다.

그러한 작품들로서는 단편소설 《들국화 서른일곱송이》(김혜인 작, 7호), 《처녀의 사진》(양건작, 11호), 《관측원들은 보고한다》(김순철 작, 7호), 《군고구마매대》(김승제 작, 10호) 등을 들수 있다.

단편소설 《들국화 서른일곱송이》와 《처녀의 사진》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를 배경으로 하여 수령결사옹위정신에 기초한 인민군전사들과 후방에 있는 인민들의 불굴의 투쟁정신,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뜨겁게 형상한 작품들이다.

이 소설들의 우점은 들국화나 처녀의 사진 등과 같은 생동하고 특이한 하나의 세부를 중심에 놓고 이야기를 집약시켜 펼쳐보인것이다. 이것은 참말로 단편소설다운 단편소설을 내놓은 비결의 하나라고 말할수 있다.

단편소설 《들국화 서른일곱송이》에서 들국화로 인연이 맺어진 처녀군의 최남순과 《나》(후에 비전향장기수로 됨.)와의 깨끗한 사랑의 세계와 뜨거운 혁명적동지애는 뜨겁고도 감동적이다.

항일의 혈전에서 일제놈들을 죽치다가 위기일발의 순간에 자폭으로 영웅적위훈을 세우고 희생된 부모들의 령혼이 깃든 들판에 피어난 들국화, 묘소조차 남기지 못한 부모들의 넋이 들국화로 피어난것이라고 생각하는듯 최남순은 늘 들국화를 사랑하였다. 들국화로 처녀군의 최남순과 총각군관 《나》의 인연이 맺어지고 사랑이 움트며 이야기는 극성이 있게 시종일관 독자들의 가슴을 조였다풀었다하면서 매혹과 감동의 련속으로 견인력있게 엮여져나간다.

작품에서 주인공 녀군의 최남순의 영웅적인 최후는 비극적이지만 그것이 주는 사상미학적감화력과 양상은 혁명적비극인것으로 하여 그지없이 숭엄하며 어둡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공화국영웅 최남순군의 영웅적최후는 독자들에게 눈물을 자아내나 그 눈물은 숭엄한것에 대한 동경과 미제원췌놈들에 대한 증오와 아름다운것을 잃은 아쉬움, 아름다운것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오는 눈물이라고 할수 있다.

단편소설 《처녀의 사진》은 길지 않은 작품이지만 처녀의 사진 한장을 놓고 전선과 후방에 있는 인민군병사와 그가 사랑했던 처녀와의 사랑의 이야기를 통하여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용감히 싸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높은 정신세계와 참다

운 조국애를 감명깊게 펼쳐보인 작품이다.

작품의 특성은 구성이 치밀하며 종군기자를 측매인물로 선정하고 전선과 후방의 여러 갈래 일들을 서로 밀착시켜 재미있게 엮어 이야기를 펼친것이다.

우에서 든 4편의 단편소설들은 선군시대가 제기하는 절실하고도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비교적 높은 형상화의 수준에서 이야기를 잘 꾸며내고있다.

그것은 조국해방전쟁시기를 취급한 작품들도(《들국화 서른일곱송이》, 《처녀의 사진》)그러하지만 현실생활을 취급한 단편소설 《관측원들은 보고한다》와 《군고구마매대》의 경우를 놓고 봐도 그렇게 평가할수 있다.

단편소설 《관측원들은 보고한다》는 외진 초소에서 사철 변함없이 강의 물흐름량을 관측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수문관측소의 소장인 백학철의 형상을 중심에 놓고 누구나 당이 맡겨준 초소에서 자신의 혁명임무를 성실히 수행해나갈 때 나라의 재부를 튼튼히 지켜낼수 있으며 부강번영에 이바지할수 있을뿐아니라 영웅적위훈도 세울수 있다는 문제를 선군시대 일군들의 혁명적량심에 대한 사상으로 승화시켜 풀어보인 작품이다.

지난 시기 외진 초소를 누가 보전말건 말없이 지켜가는 참된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재로 하여 쓴 단편소설들이 적지 않게 나왔지만 이 작품은 선군시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지녀야 할 혁명적군인정신과 결부시켜 이야기를 펼쳐나간것으로 하여 특색있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다.

단편소설 《군고구마매대》는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이 혼연일체가 된 우리 나라에서 사람들 호상간에 서로 돕고 이끄는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얼핏 스쳐지나쳐버릴수 있는 범상한 생활장면을 통하여 우리 사회 인간들의 참모습을 뜨겁게 느끼게 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깊은 사랑에 의하여 수도의 곳곳에 차려놓은 군고구마매대, 오가는 사람들이 군고구마를 기쁨에 넘쳐 맛보는 이러한 생활 《풍경》을 두고 작품에서는 어느 한 매대의 봉사원인 주인공 옥향이와 그의 일을 도와나선 여러 인물들의 형상을 통하여 장군님의 품속에서 마음껏 행복을 누리는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야말로 얼마나 좋은 사회인가 하는것을 폐부로 감득하게 하고 있다.

인간관계를 점차 폭이 크게 하면서 다양한 생활세부를 통하여 이야기를 즐기치게 별려나간 작품의 구성이나 감칠맛이 있게 구사한 언어형상도 특색이 있다. 굳이 부족점을 언급한다면 주인공 옥향이와 《나》의 관계가 일부 비진실한 장면들로

설정된것이다.

지난해 하반기에도 발표된 단편소설들가운데는 우에서 언급한 《군고구마매대》, 《관측원들은 보고한다》를 비롯하여 《이 땅은 넓다》(박경철 작, 10호), 《별들이 웃는다》(김영선 작, 10호), 《초소》(김홍균 작, 11호), 《퇴근길에서》(김기범 작, 11호), 《노을은 불탄다》(김달수 작, 12호), 《옛 작업반장의 모습》(김상현 작, 12호) 등과 같이 현실생활을 취급한 작품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이 작품들에서는 선군시대 인간들의 새로운 사상정신적품모를 많은 경우 혁명적군인정신과 결부시켜 형상하고있으며 비교적 밝은 양상속에서 이야기를 펼쳐치고있다.

선군시대 인간들의 생활을 밝게 형상하는것은 강성대국건설의 휘황한 래일을 앞당겨오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굳센 신념과 의지,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열풍을 반영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강성대국건설도상에는 미제국주의자들과 사대매국노들의 고립압살책동과 경제《제재》, 반동적행위로 하여 의연히 커다란 난관이 가로놓여있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오계시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신념과 락관에 넘쳐 이 난관을 웃으며 뚫고나가고있다.

이러한 모습을 밝게 그려야 독자들로 하여금 용기백배, 기세드높이 강성대국건설에서 나서는 혁명임무수행에서 새로운 기적을 창조할 새힘과 용기를 받아안게 할수 있다.

현실주제작품창작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로서는 또한 사람들에게 주인공들의 생활이 진실하게 느껴지도록 형상수준을 높이는것이다. 이것은 현실생활에 대한 깊은 체험과 탐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측면에서는 적지 않은 부족점들이 나타나고있다.

단편소설 《별들이 웃는다》만 보더라도 17명의 부모없는 어린이들을 자진하여 맡아 키우면서 여러가지 색깔의 건물외장재를 자체로 만든 제대군인출신노동자 최진호를 형상하면서 그를 장가간 아이아버지로 오해하다가 오해가 풀리자 제격 그와 일생을 함께 하겠다고 나선 처녀판매원 애정이를 등장시켜 이야기를 끌고나가고있는데 소설을 다 읽고나서도 그닥 감동이 크게 안겨오지 않는다.

소설에는 참신한 생활세부도 인입하고있지만 이야기가 한갓 미담의 경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담당한 상점이 아니라 다른 상점에 가서 무더기

로 아이신발을 사자고 하는 최진호의 행동이며 그가 깊은 파악도 없는 처녀판매원 애정에게 선보려오는 행동, 애정이는 그를 장가간 아이아버지로 오해하고 피해달아났다가 이러한 오해가 풀리자 아무런 마음속 동요도 없이 제격 최진호를 찾아가는것 등 생활과 사건을 파지 않고 건성건성 펼쳐주다보니 작품의 형상수준이 높지 못하여 감동을 주지 못하고있다.

현실주제작품창작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로는 다음으로 뒤떨어진 상대인물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펼치는 단편소설들이 류형적으로 나타나고있는것이다.

상대적으로 사상정신세계가 뒤떨어진 상대인물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펼치면 작품의 지성도를 높이는데서 적지 않은 제약성을 가지게 된다. 우에서 언급한 단편소설들을 살펴보자. 그러면 대체로 이러한 경향이 류형적으로 나타나고있음을 쉽게 느낄수 있을것이다.

단편소설 《이 땅은 넓다》만 보더라도 작품은 선군시대 농촌현실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를 두고 이야기를 근기있게 파헤쳐 펼쳐보이고있지만 시점문제로 하여 더 거들수 있는 사상예술적성파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생각한다.

이 작품은 실리의 원칙에서 새것을 개척해나가는 분조장 류순애의 생활을 부정인물인 작업반장 리훈섭의 시점에서 그리다보니 소설의 이야기가 높은 지성도를 보장 못하는 부족점을 나타내고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도 발표된 단편소설가운데는 일부 논의할 점들이 적지 않은 작품들과 사상예술적 풍격에서 저조한 작품들도 있다. 그러한 작품들로서는 단편소설 《가풍》(량정수 작, 8호)과 《세월의 물음앞에》(배경휘 작, 8호) 등이다.

단편소설 《가풍》에서는 제3차 《전국어머니대회》에 대표로 참가하게 된 모성영웅 한종순이 자기는 40년전에 열린 제1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가하여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파분한 치하를 받았다는것, 그때는 부모없는 열일곱명의 아이들을 키웠으니 수령님께 보고드릴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아이들이 이제는 다 자라 나라의 중요한 일군으로 자랐으니 위대한 장군님께 보고드릴 해놓은 일이 없다며 대회참가를 포기하고 회의가 열리는 그 시간에 산에 심을 나무모를 가꾸는 이야기가 펼쳐져있다.

이것이 과연 진실한가. 상급에서 취한 조치를 제 마음 내키는대로 참가하고싶으면 참가하고 싫으면 그만둔단 말인가. 동당지 않는 행동이 아닌가.

또 이 작품에는 다 자란 자식들이 어느 한명으로동자, 농민은 없고 당일군이나 높은 급의 행정 일군으로 등장한다. 군대에 나간 자식은 장령으로 된다.

물론 좋은 일이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믿기 어렵다.

단편소설 《세월의 물음앞에》는 한마디로 말하여 어떻게 사는 삶이 인생을 값있고 보람있게 보내는 삶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전쟁참가자인 제대군인출신의 인물인 수의학연구사 리준성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 시대 과학자라면 웅당 현실에서 제기하는 절실한 문제를 틀어쥐고 그것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참된 삶을 누릴수 있다는것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작가의 창작의도는 수궁할만 하다.

그러나 작품에서 주인공 리준성이 시대가 요구한다고 해서 자주 전공을 바꾼다든가 그런것으로 하여 애인에게서까지 오해를 사는 이야기들은 비진실하다. 뿐만아니라 소설에서는 주인공 리준성을 제외한 그 나머지 인물들은 다 당이 제시한 절실한 과학적문제를 푸는데서 우유부단하거나 강건너 불보듯 하는 부정기가 있는 인물들이다.

이것은 시대를 외곡하여 반영할수 있는 전제로 된다.

작품에서 특히 부족점의 하나로 제기되는것은 전쟁이 우리의 승리로 끝난 그 이튿날에 인민군병사가 전투입무를 수행할데 대한 전투명령을 받고 가다가 물에 빠진 송아지를 구원하고 불어난 강물

을 따라 내려오던 통나무에 머리를 다쳐 희생되는 세부를 인입한것이다.

인민군병사의 목숨을 송아지와 바꾸다니,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말하려는것인가.

그럼에도 소설에서는 이렇게 쓰고있다.

《그가 자기의 임무 하나만을 생각했다면 그리고 자기의 생을 먼저 생각했다면... 죽지 않았을거요. 허나 그랬다면 마음속엔... 량심의 가책으로 인한 그림자가 늘 자리잡고있었을거요.》

여기서 우에 든 인용문에 대한 분석은 덮어두기로 하자. 하지만 세부형상의 저조성과 애잡잘한 감정을 자아내게 하는 인간관계의 제시와 시공간적화폭(전쟁이 승리한 이튿날, 고향에는 사랑하는 애인도 있는 총각병사의 설정)... 작품에서는 이런 세부를 놓고 과학자의 참된 삶에 대한 문제를 풀려고 하였으니 이러한 논의점이 있을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상에서 지난 하반기에도 《조선문학》잡지에 발표된 단편소설의 우점과 부족점을 간단히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주체101(2012)년에 기어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려는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세찬 봉화가 온 나라를 진감하고있는 이 시각 우리 작가들은 시대가 요구하는 단편소설들을 더 많이,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서 창작해냄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의 세찬 진군을 적극 고무추동하여야 할것이다.

## 상 식

# 전자도서관

도서관의 발전력사를 놓고볼 때 전통적인 도서관을 제1세대도서관이라고 한다면 전자도서관은 제3세대도서관이라고 할수 있다.

제1세대도서관은 장서자원이 모두 종이매체형식이고 도서관의 업무도 목록에 의한 수동작업으로 진행되었다.

제2세대도서관은 장서자원의 대부분은 종이매체형식이고 여기에 얼마간의 축소필립과 색인자료가 있다. 제2세대도서관의 특징은 업무를 컴퓨터화한것이다.

제3세대도서관인 전자도서관은 장서자원을 모두 수자화하고 망을 통하여 세계의 어느 곳에서나 임의의 책을 볼수 있게 하기 위한 컴퓨터망체제라고 말할수 있다.

전자도서관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있다.

- ① 도서관장서의 자원을 모두 수자화함으로써 장서구조를 변화시킨것이다.
- ② 장서자원의 수자화와 업무의 컴퓨터화가 실현되면서 작업대상이 책으로부터 컴퓨터로 변화된것이다.
- ③ 독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던 봉사환경이 컴퓨터망에 의한 봉사환경으로 변화된것이다.
- ④ 열람실과 서가로 이루어졌던 도서관실체가 가상화되고 세계에 분산된 정보자원을 임의로 원격호출할수 있게 된것이다.
- ⑤ 도서관사서들이 여러가지 전문지식(컴퓨터정보처리, 기지망)을 소유해야 한다는것이다.





# 스무차량의 화물

리 명 훈

또 하루가 시작되었다. 동산마루에 금방 얼굴을 내민 아침해가 붉은 빛살을 뿌리는데 건설장은 거세찬 활기에 휩싸였다.

자동차소리, 혼합기소리, 용접소리, 기중기소리... 기계동음의 대관현악반주속에 온 구내가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었다. 여기에 방송선전차의 힘있고 박력있는 경제선동과 곳곳에 걸려있는 150일전투에로 부르는 전투적구호들과 선전화들, 세차게 나뭇기는 붉은기들은 들끓는 분위기를 한층 더 부각시켰다.

모두가 뛰고 달렸다. 사람도 기계도...

화학공장건설장은 이렇게 시간을 다투며 변모되어가고있었다. 착공한지 반년남짓한데 벌써 여기저기에 덩치 큰 건물들이 솟아올라 웅자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자재보장정형을 알아보기 위해 건설장을 돌아보던 화학건설사업소 자재과장 임영제는 젊었을 때의 혈기가 되살아남을 느끼며 자기 사무실에 급히 들어섰다. 건설이 일정계획보다 빨리 나가다니 어디서나 걸리는것이 자재설비였다. 특히 당장 들여앉혀야 할 대상설비들이 그러했다. 련판단 위들에 나가있는 부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상설비생산정형을 알아보고 독촉해야 했다.

(이러다간 대상설비를 제때에 보장 못해 건설이 늦어진다는 소리가 나오겠군.)

보통키에 다부진 체격, 갓 벗어지기 시작한 윤기도는 이마, 불기우리한 혈색... 매일모레가 60인 그를 두고 사람들은 이팔청춘처럼 젊어보인다고들 한다.

그가 책상앞에 다가갔는데 전화종이 울렸다.

《과장동지, 야단났습시다. 낮 2시경에 스무차량의 설비화차가 도착한답니다.》

역주재인 유미의 목소리였다.

역주재란 기업소를 대표하여 역과의 사업을 전문 맡아보는 사람이다. 그 일은 임무의 중요성과 책임성으로 하여 아무 사람이나 시키는것이 아니다. 영민하고도 성실한 사람만이 할수 있다.

때문에 영제는 이번 대상건설을 시작하면서 눈썰미있고 이악하기로 소문난 처녀부원인 유미를 새로 역주재로 임명했다. 다년간 함께 일하면서 깊이 파악한 처녀였다.

《야단은 무슨 놈의 야단! 자재설비가 많이 들어오면 좋은거지.》

영제는 입귀를 귀밀으로 끌어올리며 기뻐했다. 산업건물이 완공되어가는것을 보면서 은근히 걱정하던 설비들이 이렇게 갑자기 도착할줄은 꿈에도 생각못했던 그였다.

(하긴 대상설비를 맡은 기업소들에서도 150일 전투로 들끓고있겠으니... 요즘은 그저 일이 얼음판에 박밀듯이 죽죽 잘 풀려나가거던. 확실히 일할 맛이 있어.)

송수화기에서는 갑자기 유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런데... 역에서는 하차를 세시간동안에 끝내라는겁니다.》

어지간히 당황한 말투였다.

《정신나가지 않았다고요? 그걸 어떻게 세시간 동안에...》

영제의 목소리가 단박에 높아졌다.

하지만 다년간 자재과장을 하면서 역과의 이러루한 일에 어지간히 미련이 든 그는 점잖게 유미를 안심시키려들었다.

《어쨌든 당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오. 때리면 우는척이라도 해야지.》

《그렇게 어물쩍해서 넘겨보낼 일이 아닌것 같습니다. 진철동무의 말이 이번에는 건인기판차를 대기시켜놓았다가 짐을 부리는 즉시 끌어내간답니다. 월말 철도국수송계획이 긴장하기때문에 하차시간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순간 영제는 이마살이 절로 찌프러졌다. 건인기판차의 대기요, 철도국수송계획이요 하는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진철의 이름을 들어서였다.

진철은 역화물원이다. 성미가 메마르고 규정을 놓고는 자그마한 에누리도 모르는 사람, 바늘로 찔러도 피 나올데 없다는 말은 그를 놓고 지어낸 말인것 같았다.

(제길, 옆친데덮친다더니 하필이면 그가 근무할 때 방통이 들어올건 뭐람.)

영제의 얼굴에서 좀전의 반가운 기색은 가뭇없이 사라졌다.

《알겠소. 하차조직은 내가 하겠으니 동무는 거기에 남소. 어떻게 해서든지 화물원을 붙들고 시간을 좀 늦춰보오. 다문 한시간이라도 말이요.》

《진철동무한테 그런 말이 통할게 뭘니까. 계약서엔 도착한 짐을 세시간에 부린다고 밝혀져있는데.》

유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사정이나 흥정도 진철이한테는 통할수 없다는, 그의 요구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그런 기분이 짙게 어려있었다.

영제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다급하게 두드리며 말을 이었다.

《허허, 몇달동안 역에 다니더니 이제 철도사람이 다된것 같구만. 이것 보오, 동무는 우리 기업소의 전권대표요. 그러면 웅당 역과의 사업에서 기업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게 아니요.》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저는 괜히 시간만 낭비할 일을 하고싶지 않아 그러합니다.》

영제는 아연해졌다.

여적 이런 발언을 한적이 없는 유미다. 맡겨진 일에 대해서 흥정과 타박이란 말도 모르던 처녀다. 매몰찬 그앞에서 손들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런 처녀가 진철이앞에선 영 맥을 쓰지 못한다.

《유미동무, 역에서 급한건 방통이지 설비가 아니요. 우리도 지금은 건설이 더 중요한거구. 동무도 우리 인입선의 하차능력을 잘 알지 않나.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 화물원을 잘 설복해보오.》

하여튼 진철이 그 사람 까다롭거던. 무슨 총각이 그런지. 젊은 사람이라는데 좀 융통성도 있어야지. 이건 그저 끝은목이라니까. 아무때 봐야 그저 규정, 규정 하면서...

《과장동지도 참, 수박을 절반 보고 속을 어떻

게 압니까?》

유미의 말에 영제는 입을 반쯤 벌린채 한동안 다물지 못했다.

처녀의 입에서 총각을 비호하고 두둔하는 말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사실 유미에 대한 영제의 관심은 각별했다. 부서책임자로서만이 아니라 대학동창생이었던 그의 아버지로부터 딸에 대한 부탁을 받아서였다.

날씬한 키, 생기넘치는 까만 눈동자, 상큼한 목, 탄력있는 몸매... 나이가 찰수록 점점 더 세련되고 고와지는 유미였다.

부드럽고도 도고한 처녀의 매력은 젊은 청년들의 눈길을 자석처럼 끌어당겼다. 사랑의 금선을 울려보려고 은근히 원심을 쓰는 총각들도 많았다. 하지만 지내보니 유미는 그저 굵기만 한 처녀가 아니었다. 장미에 가시라 할가, 하여간 굵다고 함부로 꺾으려들던 청년들은 하나같이 덴겁하여 물러섰다. 그는 항상 자기 주위에 《고압전기마당》을 형성해놓고있었다. 그런데 총각들과의 관계라면 야박하다고 할만치 매정스럽던 처녀의 입에서 스스로없이 진철을 변호하는 말이 튀어나왔으니 영제가 놀랄만도 했다.

(혹시?...)

그는 자기가 젊은이들의 관계에 체신머리없이 신경을 쓰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고 처녀의 아버지 부탁을 외면할수는 없지 않는가. 또 자기 개인적인 견해로 볼 때에도 그렇게 꼬장꼬장한 사람과 무슨 재미로 한생을 살텐가. ...

《하나 묻지요. 진철동무에 대해서 잘 아나?》

《그건 저... 제대군인이라는것밖에는...》

유미는 수집은듯 기여드는 목소리로 떠들거렸다.

《이것 보라구, 내 주체넘는 참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미동무나이엔 사람을 잘 가려보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오. 아차 실수하면 일생을 후회할수 있거던. 특히 동무처럼 타기관사람들과 련계가 많은 경우엔 더욱 그렇소. 물론 동문 여주재니까 사업상 진철이와 자주 상종하겠지. 그러나 진철이는 철도사람이지 우리 기업소 사람이 아니라는걸 명심하오.》

그리고 규정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 규정도 일을 더 잘하자고 만들어놓은거란 말이요. 물론 규정이야 지켜야지. 하지만 지나치게 철도규정에 구속되면 본의아니게 사업에서 피동에 빠지게 되오. 알겠소?》

영제는 일부러 그루박았다.

《알았습니다.》

송수화기를 내려놓은 영제의 표정은 어두웠다. 유미의 대답속에 억지로 옹해나서는 기미와 자신 없는 불안이 스며여있었던것이다.

진철이때문일것이다.

그가 진철을 처음 알게 된것은 건설이 시작되어 얼마간 지나서였다.

그때가 골재가 떨어져 공사가 중지되느냐 마느냐 하던 때였다. 건설장 주변에는 질 좋은 골재가 없어 하는수없이 수백리 먼곳에서 골재를 날라오고있었다. 그때 역에 나가있던 유미로부터 골재화차가 도착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왔다. 그런데 그뒤로 차갈이기관차가 긴장하여 당장 인입선에 들이밀기 곤란하다는 절망적인 통보가 따랐다.

때마침 들어온 골재가 역에 와서 지체되고보니 영제는 감질이 나서 앉아 기다릴수가 없었다. 그는 만사를 제치고 역으로 나갔다.

역 앞마당에 이른 그는 서성거리는 유미를 만났다.

《왜 여기 나와있소?》

영제는 의아한 눈초리로 보았다.

《차갈이기관차를 기다리고있는중입니다.》

유미는 어쭙게 대답했다.

《여기 나와 기다린다고 차갈이기관차가 오겠소? 화물원을 만나 대책을 세우게끔 독촉해야지. 지금 현장에서는 골재가 떨어져가고있는데... 어서 화물원실에 가지요.》

이 말을 남기고 몇발자국 걸던 그는 멈춰서고 말았다. 인차 따라설줄 알았던 유미가 머뭇머뭇하며 그냥 서있었기때문이다.

《무슨 일이 있었소?》

《현재 역에 차갈이기관차가 없습니다. 차갈이기관차가 긴장하기때문에 계획에 맞물린대로 해야 합니다.》

《유미동문 역주재사업이 처음이니 잘 몰라서 그럴수 있는데 철도사람들한테 언제 사정이 없는 때가 있는줄 아오? 그런 사정에 귀를 기울이다나면 역주재사업을 못하오. 그저 단단히 늘어붙어서 조여대야 한대니까.》

《아무리 사정해도 어디 통합니까. 어찌나 딱딱하고 몰인정한지 소귀에 경읽기입니다.》

《독투에도 용수가 있겠지.》

생기를 잃은 유미의 얼굴표정에서 사태를 짐작한 그는 더 강요하지 않았다.

화물실에 들어서니 서튼살안팎의 청년이 의자에 앉아 전화를 하고있었다.

그가 마주한 책상에는 여러대의 전화기와 함께

두툽한 기술서적이 펼쳐져있었다. 그옆에 손바닥크기의 수첩이 놓여있는것을 보아 좀전까지 무엇인가 발취하던 모양이었다.

《예, 온 나라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해 부글부글 끓고있는데 그 공장이라고 가만있겠습니까. 압니다, 알기때문에 사정하는것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 예? 그건 지내 늦습니다. 최대한 빨리 보내주십시오. ... 빈번히 손을 내밀어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송수화기를 놓은 청년은 그제서야 고개를 들었다.

《안녕하십니까. 화확건설사업소 자재과장입니다. 화물원동무겠지요?》

데면데면한 성격인 영제는 푸뜩이 좋고 교제수완이 높기로 소문난 사람이였다. 그는 일부러 환한 웃음을 지으며 자기소개를 했다.

청년은 일어서며 인사를 했다.

《화물원 진철입니다.》

청년의 대답은 생각외로 투박했다. 얼굴도 무표정이였다.

부지중 불쾌한 감정이 살아났지만 영제는 짐짓 느슨한 태도를 보였다.

《우리 역주재동무를 만나보았겠지요?》

《유미동무 말입니다. 예, 여기서 막무가내로 앉아버티기를 하는걸 겨우 돌려보냈습니다.》

진철의 말에서는 그 어떤 양보도 있을수 없다는 주장이 강하게 울렸다. 메마르고 딱딱한 사람일것이라는 느낌이 절로 들었다.

오래동안 자재사업을 해온 영제에게 있어서 이런 사람을 만나기도 흔치 않았다.

물론 역에서 화물원은 여러 공장, 기업소들을 대상하기때문에 대체로 코대가 높기가 일쑤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거야 초면에 너무하지 않은가.

도고하고 영악한 유미가 물러난것이 우연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영제의 어성이 높아졌다.

《역주재야 역과의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쫓아보냈다는건 무슨 소리요?》

《제 말을 잘못 들으셨군요. 쫓아보냈게 아니라 돌려보냈습니다. 역이 뭐 건설사업소만 대상합니까? 화물원이 화주의 말에 복종하는 사람이 아니라는것을 과장동지도 알지 않습니다. 우리 역에는 차갈이기관차가 없습니다. 이제 다른 역에 가있는 차갈이기관차를 불러오느라면 계획이 형클어지고 혼란을 주게 됩니다. 기관차는 자동차가 아니지 않습니다. 알아들음만큼 설명을 해주었는

데도 줄곧 따라다니며 아이보채듯 하니 답답하지 않습니까.》

《화물원동무, 누구보다 수집어하고 부끄럼을 타는게 처녀들이요. 오죽하면 자존심 높은 처녀가 그런 행동을 했겠소? 화물원동무도 우리 기업소가 어떤 중요한 대상을 맡아 건설한다는걸 잘 알지 않소. 남들은 우리 기업소를 돕지 못해 애쓰는데 철도에서는 도착한 물동을 제때에 인입선에 들이 밀기라도 해주어야 할게 아니겠소.

화물원동무가 어떻게 좀 도와주요.》

영제는 능글거리며 지긋게 달라붙었다.

진철의 낯색이 표표해졌다.

《처음 만나는 자재과장동지한테 이런 말을 하면 실례인줄 압니다. 사실말해서 차갈이기관차가 긴장해진게 누구때문인줄 아십니까. 어제 그 건설사업소에서 집부림시간을 2시간이나 초과하는 바람에 다른 역과 맞물려있던 차갈이기관차 리용계획이 튀어나갔단 말입니다. 그 후파가 오늘 건설사업소에 차례진것이고... 이런 일이 어디 처음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건설사업소가 너무합니다. 우리 역이 건설사업소때문에 화물수송계획수행에서 얼마나 지장을 받고있는줄 아십니까.》

손때묻은 수첩을 펼쳐든 진철은 그동안 건설사업소에서 초과한 집부림시간과 차량수, 화차관리정형 등을 일일이 펼쳐했다.

영제는 그가 론박할수 없는 자료와 수자를 들자 속이 다 좋아들었다. 눈귀에는 굵은 주름살이 잡히고 벗어진 이마에는 진땀이 내돈았다.

청년의 덜통한 작풍을 책망하려다가 오히려 그한테서 한방망이 되게 얻어맞은것이다. 흑을 떼려다가 하나 더 붙인셈이다.

영제는 진철이와 더 상대하고싶지 않았다. 규정밖에 모르는 그에게 골재를 빨리 넣어달라는 말이 통할것 같지 않았다.

후끈해진 목덜미를 문지르며 화물실을 나섰다. 그에게 유미가 다가갔다.

《어떻게 됐습니까?》

《영 요지부동이구만. 여태 저 청년과 대상했소?》

《...》

유미는 말없이 영채도는 눈만 깜박거렸다.

《그걸 알았으면 제격 다른 대책을 세웠어야지, 역장을 만나던지. 하여간 건설에 지장없이 방통을 끌어들여야 하지 않소.》

영제의 시선은 줄곧 구내선에 서있는 골재화차에서 떨어질줄 몰랐다.

(기관차때문에 건설이 중지되다니?!)

분한 감정이 더욱 살아나며 그의 가슴을 허비었다. 그럴수록 진철에 대한 의견과 노여움이 심술긋게 살아났다.

영제의 눈에 단호한 빛이 어렸다. 그는 한손을 뻗 내저으며 말했다.

《별수 없소. 역에서 부리는 수밖에. 자동차들을 동원하여 단거리수송을 해야지.》

유미의 눈이 울롱해졌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각 직장에 배속되어 일하는 자동차를 돌린다는것도 그때, 기름사정도 그래 아무래도 아이보다 배꼽이 큰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속수무책으로 기관차만 기다리겠소? 건설이 죽는데두! 긴팔할게 없소. 내가 자동차운반조직을 할테니 그동안 동무는 골재방통을 역에서 부리도록 역에다 통지하고 사업조직을 하시오.》

격한김에 두서없이 말을 내뱉고난 영제는 허겁지겁 기업소로 돌아왔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전화기에 매달렸다. 경황없이 분주탕을 피우던 그는 불안간 송수화기를 놓고 귀를 강구었다. 인입선쪽에서 기적소리가 들려왔던것이다. 그 기적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다.

무슨 기적소리일까? 흑시?... 아니, 그럴수 없어. 그 막대꼬치같은 화물원이 무엇이 안타까와 기관차를 해결한단 말인가. 영제는 머리를 절레절레 저었다.

그러면서도 어쩔수 없는 호기심에 끌려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을 내다보던 영제는 눈을 크게 뜨고 굳어져버렸다. 골재를 실은 화차가 인입선을 따라 기운차게 들어오고있었던것이다. 화차우에 진철이와 유미가 나란히 앉아 밝게 웃으며 무슨 이야기인가 나누고있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영제는 고개를 기웃거렸다.

문이 벌췌 열리더니 유미가 뛰어들어왔다. 긴머리를 꽃수건에 감아넣은 그의 흰 얼굴은 빨갭게 상기되었다. 그는 송골송골 내뉘는 땀을 손수건으로 연방 닦아냈다. 가쁜숨을 몰아쉬는 그의 봉긋한 가슴은 몹시 들먹거렸다.

《과장동지, 골재가 들어왔습니다.》

《가망없다던 기관차가 어떻게 생겼소?》

《진철동무가 ××공장의 구내기관차를 끌고 왔습니다. 빨리 잡시다.》

(공장구내기관차란 말이지. 참 모를 일인걸.)

그는 허구쁜 웃음을 지으며 유미의 뒤를 따라 밖으로 나왔다.

그때부터 영제는 진철이와 직접 마주서기를 피해왔다.

이제는 그의 사람됨을 알고도 남음이 있다. 그는 규정과는 타협없는 청년이다. 일단 작업을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시간을 독촉한다. 화물원이면 할 일도 많겠는데 건설사업소의 방통이라면 한사코 해보는듯싶다.

영제는 초조해났다. 발잔등에 불이 떨어진것이다.

그 불을 끄자니 방안과 대책이 묘연하기만 했다.

인입선은 신설이어서 아직 상하차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져있지 못했다. 그러다나니 화물작업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었다. 이따금 들어오는 중량물은 립시로 설치한 기둥기중기와 기중기차를 동원하여 부렸다. 조립중에 있는 덩지 큰 문형기중기가 돌아가면 지금처럼 먹은 살이 내리도록 걱정하지 않아도 되련만...

영제의 가슴속에는 그득 차올랐던 환희가 가셔지고 걱정이 중압으로 내려앉았다.

영제는 구내전화기를 들었다. 지배인에게 정황을 보고하고 대책을 세워야 했다. 신호는 들어가나 받는 사람이 없다.

그는 피륙 벽시계를 쳐다보았다. 그제서야 지배인이 현장에 나갈 시간임을 알았다.

영제는 급히 교환수를 찾았다.

교환수의 대답에 영제는 저으기 실망했다. 지배인이 합성직장으로 나갔다는것이였다. 방대한 면적의 건설장의 한끝에 있는 그곳까지는 한참 가야 했던것이다.

영제의 마음은 바늘방석에라도 앉은듯 불안했다.

어쨌든 이렇게 가만 앉아있을수는 없었다. 무슨 대책이든 세워야 했다.

표표해서 짐부림초과시간을 따지고드는 진철의 얼굴이 떠오르자 영제는 더는 견딜수 없어 벌떡 일어나 밖에 나섰다.

새벽에는 선기가 나는듯싶더니 지금은 재글재글 땡벌이 쏟아져내린다. 그 광선에 눈시울을 좁히며 주춤거리던 그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걸었다. 기중기차를 찾아보려는것이였다.

그는 산업건물사이를 꺾지르며 다급하게 걸었다. 아무리 주위를 살펴야 기중기차는 보이지 않았다.

가스발생로직장건설장에 이르니 우뚝 솟은 탑식기중기가 눈에 띄었다. 이름 못할 층동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걸음을 멈춘 그는 탑식기중기를

새삼스레 바라보았다.

《강성대국》이라는 글발을 쓴 붉은기를 쫓은 탑식기중기의 긴 팔이 잉그르르 원을 그리며 돌아간다.

권양대차에서 내리드리운 갈구리에 두명의 로동자가 숙련된 동작으로 쇠바줄을 걸어준다. 이윽고 푸른 기발을 든 신호공이 운전공처녀에게 신호를 보낸다. 그러자 육중한 강철트라스가 서서히 들리우기 시작한다. 점차 쇠바줄이 팽팽히 켜기였다. 드디어 강철트라스가 허공중에 떠올랐다. 기중기는 철길보다 폭이 넓은 선로를 따라 움직이면서 강철트라스를 산업건물의 지붕우에 들어올렸다.

영제는 탑식기중기의 작업모습을 한동안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육중한 강철거물을 아이들 장난감 다루듯 하는 저 기중기만 있었으면 한개 열차편성이 아니라 그 곱절이 들어온대도 걱정할게 없을것이다.

(저놈이 자행기중기라면?)

부지중 영제는 쓴 입을 다시였다. 허황하고 부질없는 공상으로 공연히 시간만 지체한것이 어처구니 없었던것이다.

그는 밀진 시간을 단축하려는듯 걸음을 다그쳤다.

영제는 합성직장건설장에서 여러 시공일군들과 무슨 일인가 토론하고있는 지배인과 맞다들렸다.

《어딜 가요?》

그의 심상치 않은 거동을 보고 지배인이 물었다.

《안녕하십니까. 저, 방통이 들어온다고 해서...》

영제는 말끝을 맺지 못하고 씨근거렸다.

《내 그런줄 알았소. 파장동무가 뛰어다니는 거야 그런 일때문이겠지. 도대체 무슨 짐이요?》 거쿨진 체격의 지배인은 소탈한 미소를 머금었다.

《대상설비들입니다.》

《뭘, 대상설비가?》

지배인은 대뜸 반색하며 주변의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보오. 강선의 봉화가 어떤 기적을 낳고있다. 한달후에 들어오게 된 설비들이 벌써 도착한다오. 우리도 박차를 가해야겠소. 지금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말이요. 선군시대의 천리마를 탄 기세로 새로운 건설속도를 창조해야 한단 말이요. 그래서 150일전투기간에 기본적인 대상설비조립을 끝내야겠소.》

그래 자재파장동문 어떻게 할 생각이요?》

《스무차량의 방통을 역에서는 세시간동안에 부

리라고 합니다.》

미간을 좁힌 그의 어조에는 역에 대한 불만이 어려있었다.

《어이쿠, 스무방통씩이나... 도착시간은 언제요?》

지배인은 자못 놀라며 어깨를 으쓱 솟구었다.

《오후 두시경입니다.》

《허허, 비상정황이 생겼구만. 자재과장동무가 긴장해질만도 하겠소. 사업소에 있는 기중기차 석대를 다 동원시키면 될것 같소?》

《확신은 없습니다.》

영제는 얼떠름하게 대답했다. 안된다는것을 뻔히 알고있었던것이다.

설비는 인력으로도 부리울수 없는 화물이다. 어떤건 중량과 부피가 커서 기중기차 한대로 들지 못할수도 있다.

《그렇지요. 어쩐다... 역에서도 무척 신경을 쓸텐데... 무슨 대책이 있어야겠소.》

지배인은 심중해졌다.

《좋기는 시간을 조절받는것인데 근무 서는 진철화물원이 승인할것 같지 않습니다.》

《진철화물원? 항상 수첩을 가지고다니는 청년이지.》

조직사업을 잘해야겠소. 전번처럼 시간을 늦잡다가 봉변을 당하지 않게 말이요. 운수과의 기중기차를 다 동원시키시오. 그외 기중기에 대해선 나도 힘껏 주선해보겠소.》

지배인과 헤어진 영제는 그 길로 운수과에 들렀다. 그는 기중기차들이 배정된 직장들을 알아보았다. 그런데 어느 직장 할것없이 만부하 걸린 기중기차들을 선뜻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 언제봐야 직접 찾아가기 전에는 해결하기 힘든것이 기중기차다.

서둘러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공사장을 돌아치는 로상에서 시간을 다 보낼수 있었다.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요즈음 영제는 이전과 같은 사업태도로 일해서는 안되겠다는것을 느끼고있었다.

그전 같으면 자재구입을 위해 며칠이나 몇주일씩 현지에 나가있어야 했다. 그러면서도 계획된량을 만족하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확실히 일하는 재미가 느껴지군 했다. 한두번 찾아가고 전화로 해도 척척 보내주었고 오늘과 같이 예전치 않았던 물동이 앞당겨 도착하기도 했다.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총공격전으로 들끓는 시대의 분위기가 어디서나 느껴지고있

었다.

그처럼 밝던 영제의 얼굴이 오늘은 점점 어두워졌다.

이제 벌어질 하차작업에 대한 위구심과 우려에서 오는 심리적고충인것이다. 정확히는 스무차량의 화물작업을 땅 짚고 헤엄치기처럼 치부하는 진철의 태도에서 받은 감정의 표현인것이다.

물론 자기 직무에 대한 진철의 높은 자각성과 책임성은 리해된다. 규정에 대한 요구도 옳은것이다. 하지만 생활에서는 례외라는것도 있을수 있지않는가. 더우기 우리 기업소는 중요한 대상을 맡아 건설하고있지 않는가. 그런 기업소를 철도가 좀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인입선이 신설이나니 상하차설비들이 아직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다는걸 리해해줄수 있지 않는가.

그러나 진철은 그 어떤 화물이 들어오든지 관계없이 무조건 철도규정을 지킬것을 요구한다. 그가 근무서는 날이면 망돌에 끼운 돌마냥 달달 볶이운다.

젊은 남자가 자질구레하고 융통성이 없다. 60톤, 100톤짜리 화차를 취급하는 사람답지 못하다. 이견 치마 두른 통계원처럼 미주알고주알 따지며 사리를 밝힌다.

화물취급에 조금이라도 늦장부리면 가루비누 풀듯 온 기업소를 휘젓는다.

실지 그런 일이 있었다.

어느날 영제는 지배인에게 불리워갔다.

지배인의 책상우에는 수첩이 놓여있었다. 지배인이 그 수첩을 손으로 다독이고있는데 기색이 자못 심중했다. 무슨 일이 생겼는가. 그런데 그 수첩이 어텐가 낮익어보였다. 기억을 더듬어보았으나 얼른 짚이지 않는다.

《역과의 사업을 잘해야겠소. 우리 기업소의 자재설비의 대부분을 철도수송에 의거하고있는데 우리 일만 일이라고 하면서 철도규정을 잘 지키지 않아서야 되겠소?》

방금전에 화물원동무가 날 찾아왔댔소. 진철이라구. 안타까운 심정을 털어놓더군.

우리가 짐부림시간을 철저히 지켜야 철도수송이 정상화되고 철도수송이 정상화되어야 우리에게 필요한 자재설비가 제때에 들어올게 아니겠소. 철도라는건 어느 한 고리만 막혀도 전반수송에 큰 지장을 줄수 있는거요.

그러니 우리도 정신을 차리구 인입선의 상하차설비에 관심을 돌려야겠소.》

지배인의 자세는 신중했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어안이 병병해있던 영제는 열결에 대답했다.

《그리구 이 수첩을 화물원동무에게 좀 전해주오. 내앞에 펼쳐놓았던건데 몹시 흥분했던 모양이요. 잊어먹고 그냥 간결 보니.》

방을 나서는 영제의 심기는 좋지 않았다.

교만해도 분수가 있지 않는가. 이젠 지배인까지 찾아다니! 속이 뒤틀렸다. 거만스러운 진철의 모습이 눈앞에 얼른거린다.

인입선하차장을 향해 영제는 철길을 따라 걸었다. 철길로 걷는것이 습관되지 않아 뒤뚱거렸다. 일정한 간격의 침목에 보폭을 맞추려니 이번에는 속도가 떠진다.

그런 속에서 수첩을 퍼들었다. 가늠이 닳아진 종이장에는 깨알같은 글자와 수자가 여백없이 찍여져있었다. 여러 공장, 기업소들의 전용선들에서의 작업정형과 대책적문제 그리고 도해와 수학계산까지 적혀있었다.

정신없이 수첩을 훑어보던 영제는 갑자기 몸의 균형을 잃고 비칠거렸다. 하마트면 엎어져 무릎이 깨질뻔 했다. 자기 기업소의 자료를 보는 순간 울컥해진 감정이 다리에까지 뻗쳐 침목을 헛짚었던 것이다.

하차장에서는 원목하차가 한창이었다. 한절반 내려앉은 원목방통우에 얼핏 눈에 띄우는 사람이 있었다. 철도제복을 입은 진철이었다. 그는 정모를 어데 벗어놓았는지 맨머리바람으로 원목하차를 지켜보며 도와주기도 했다.

《나오셨습니까?》

어느새 나타난 유미가 영제에게 인사를 했다. 밤색잠바를 맵시나게 걸친 그는 청초한 함박꽃처럼 밝은 웃음을 담고있었다.

《진철동무랑 도와주어서 오늘은 원목하차를 제 시간에 끝낼것 같습니다.》

불편을 실룩거리며 피땀 스쳐보던 영제의 눈길은 갑자기 쏘박해졌다. 유미의 손에 철도정모가 쥐여져있었던것이다.

《허허...》

웃음인지 신음인지 모를 소리가 영제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저 사람이 지배인을 찾아갔던걸 알고있나?... 모를테지. 그래 화물원이 도대체 뭐길래 역주제나 파장을 제쳐놓고 지배인까지 찾아다니면서 그런다오? 우리 할 일은 우리가 하지 않으리. 중뿔나게 나서서...》

증을 내던 영제는 갑자기 말을 끊었다. 놀람과 의혹이 한껏 실린 처녀의 눈빛을 보아서였다. 그

의 두손은 등뒤에 감추어져있었다.

영제는 큰소리친것이 게면스러웠다. 화난김에 돌부리 찬다고 주책없이 자기 딸같은 처녀에게 화를 낸것이 후회되었다.

유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운수과와 직장들에서 제 말을 어디 들습니까. 매번 건설이 긴장하다고 우는 소리만 할뿐이지. 우리가 짐부림시간을 지키지 못하는거야 사실이 아닙니까. 이렇게 철도수송을 소홀히 대하다간 경찰것 같습니다.》

안타까움이 한껏 어린 유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영제는 그가 측은하게 여겨졌다.

그에게 무슨 잘못이 있단 말인가. 진철이가 돌아친게 잘못이지.

《너무 걱정마오. 내가 수습할테니까.》

화차결으로 간 그는 진철을 불렀다.

화차에서 뛰어내린 진철은 즐겁하게 내뺐 땀을 연방 문지르며 다가왔다. 금방까지 하차성원들과 어울려 웃고 떠들던 그의 표정은 밝지 못했다.

《이게 동무거요?》

영제는 손에 쥐고있던 수첩을 내밀었다.

《아니?!》

진철은 제복주머니를 죄다 만져보았다.

《그 수첩을 어떻게 파장동지가 가지고있습니까?》

수첩을 받아들인 진철은 이리저리 살펴보고나서 소중한 물건이나 되는듯이 안주머니에 건사했다.

《하나 묻기요. 동무가 우리 사업소에 자주 찾아오는 리유가 뭐요?》

《화차때문입니다.》

진철의 몸가짐에서는 무게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진중성이 엿보였다.

영제의 신경은 더욱 살아났다. 얼굴은 수수떡빛으로 변했다.

《내가 보기엔 그것만이 아닌것 같소. 짐부림시간을 초과하면 그 벌금을 사업소가 물지 역에서 물어주진 않겠지. 그런데도 동문 제집일이나 되듯이 여기저기 다니며 소란을 피우지 않소. 다른 화물원들은 그렇지 않소. 역주제와 나는 로보트요? 왜 그렇게 생색을 내오?》

진철의 얼굴이 차거워졌다. 눈은 이글이글 탔다. 자신을 다잡는것이 알렸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난 누구를 무시한적도 없고 생색을 낸적도 없습니다. 전번에도 이야기했는데 건설사업소가 철도수송에 대한 관점을 바로 가지면 됩니다. 충분한 상하차기계를 설치하고 운영

을 정상화하면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내가 말하자는게 그거요. 우리 사업소가 공사를 벌려놓은지 얼마나 됐소? 솔직히 말해서 지금이 제일 급한 때요. 이 고비만 넘기면 기업소도 숨을 좀 돌리게 되오. 우리는 그 시간에 문형기중기를 비롯해서 상하차설비를 그쫌하게 차려놓자고 하오. 그때까지 참아주면 못 쓰오?》

《그래 이것이 제혼자 리해하고 참아주는것으로 끝날 문제입니까. 시간은 세울수도 잠을수도 없습니다. 시간을 저축했다가 다시 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국 손해는 누가 봄니까. 전 이제 안타까워서 그러는겁니다.》

의견을 토설해버린 진철은 다시 통나무화차에 올라갔다.

영제는 가슴을 치받는 흥분으로 하여 말은 못하고 넘적한 그의 잔등만 뚫어지게 쏘아보았다.

이제는 그의 이름만 떠올라도 진절머리가 났다.

그는 이 직장, 저 직장으로 바빠 뛰어다녔다. 얼굴은 온통 팍투성이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만 조급해났다. 아무리 타산해도 기중기차로만은 어림도 없었다. 다른 방법을 모색했으나 실통한 궁냥이 떠오르지 않았다.

돌아다니는데 지쳐버린 그는 무거운 다리를 끌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소리나게 의자를 끄당겨 앉으니 맞은편 담벽에 걸려있는 벽시계가 눈에 안겨왔다. 벌써 12시가 다 됐다.

설상가상으로 속타게 기다리는 유미의 소식도 없다.

방안에는 답답한 정적만이 배회했다. 침울해진 그는 가슴이 조여드는 압박감에 진정할수가 없었다. 눈앞에는 한정없이 멎어서있는 화차가 얼른 거린다. 화차를 끌어가겠다고 독촉하는 견인기 관차의 요란한 기적소리도 들리는듯싶다.

이번 일은 연체료를 무는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건설사업소와 철도국관계로 번져지는것이다.

영제의 불기우러한 얼굴은 내심의 피로움으로 하여 검어졌다.

영제는 지금껏 자신을 능력있는 일꾼이라고 자부해왔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오늘 스무차량의 화물앞에서 바닥이 드러난것이다.

《따르릉...》

끝없는 상념에서 깨어난 영제는 송수화기를 들었다.

밝고 명랑한 유미의 목소리가 그의 고막을 간지럽혔다.

《과장동지, 빨리 가스발생로직장 건설장으로 오십시오.》

별안간 영제의 눈이 커지며 번뜩이였다.

《방통이 안 들어온대?!》

《호호... 안 들어올게 뭇니까. 정시에 도착한답니다.》

호들갑스러운 유미의 말은 성급한 그의 마음에 키질했다.

《그런데도 웃어! 울어도 씨원치 않겠는데...》

청높은 그의 어성은 김빠진 맥주처럼 기운이 없었다.

《지금 지배인동지가 찾습니다. 빨리 오시랍니다.》

의기소침해있던 그는 지배인이 찾는다는 소리에 벌떡 일어났다.

혹시 기중기차가 해결됐는가. 그런데 가스발생로직장으로는 왜 오라는걸가. 그곳은 인입선 하차장에서 멀리 떨어져있지 않는가. 그곳에서 어찌자는건가.

영제는 긴장과 촉박감에 못이겨 사무실에서 나왔다.

혈금씨금 목적지에 당도했다. 턱에 닿은 숨을 가쁘게 내쉬던 그는 자기 눈을 의심했다.

뜻밖에도 진철이가 보였던것이다. 그는 손에 권수첩을 펴들고 열성적으로 이야기하고있었다. 그 주위에 지배인을 비롯한 여러명의 일꾼들과 함께 유미도 있었다.

《...저 탑식기중기들을 써먹자는것입니다. 기중기선로를 철길쪽으로 조금만 더 이어주면 됩니다. 여기에 기중기차까지 동원하면 세시간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줄일수 있습니다.》

그는 진철이가 가리키는 쪽을 보았다. 철길을 사이두고 마주한 건설장에 거인처럼 버티고선 두대의 기중기가 부재와 강철타라스를 물고 돌아갔다. 철길에서 기껏해야 150미터정도의 거리다.

지배인은 고개를 끄덕거렸다.

《참, 그럴듯 하오. 자재과장동무생각엔 어땡소?》

창황중에 질문을 받은 영제는 당황하여 미처 대답하지 못했다. 섬팡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감탄과 의혹이 그의 정신을 어정쩡하게 흐려놓았다.

기술과장이 한걸음 나서며 말했다.

《기발한 착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중기로반과 침목이 문제입니다. 이 지대는 지층이 무릅니다. 이제 로반을 닦으려면 굴착작업을 한다쳐도 술한 혼석을 날라다 깔아야 합니다. 한번 리용



하기에는 로력과 자재의 낭비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단 말이지. … 또 다른 방법은 없겠소?》

누구에라없이 묻는 지배인이었다.

《웁습니다. 여기는 지반이 약한 곳입니다. 기존방법대로 로반정리를 하면 실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초블록크를 임시 가져다가 로반 겸 침목대용으로 쓰자는것입니다. 기중기가 지층에 주는 압력과 설비를 들어올릴 때 받는 중심의 력학적계산도 해보았습니다.

얼마든지 기중기가 일할수 있습니다.》

진철은 그이상 말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판결을 기다리는듯 수첩만 들여다보았다. 몸에서 순간도 떼지 않고 가지고다니는 수첩이다.

영제는 비로소 그 수첩의 진가를 알은듯싶었다.

여백없이 찌여진 수자와 자료는 벌금을 위해 적어놓은것이 아니다. 강성대국건설의 지름길을 모색하려는 그의 피타는 노력과 정열, 끝없는 사색과 탐구가 깃든 정신력의 기록장이다.

영제는 또다시 뜨끔한 충격을 받았다. 이어 그의 심장이 세차게 다듬이질을 했다.

《동무들은 어떻게 생각하오?》

놀라움과 기쁨에 찬 지배인이 물었다.

사람들은 탄복과 경탄이 비낀 얼굴로 마주보며 공정을 표시했다.

《화물원동무 무슨 대학을 나왔소?》

《지금 일하면서 철도대학에 다니고있습니다.》

약간 주저하던 진철이 대답했다.

《그렇게지.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보석도 껌야 보배다. 우린 보석을 가지고있으면서도 리용할 생각도 못했소. 보오, 얼마나 대조적이지요. 탐구와 사색이 없는 사람은 사물에 대한 판조자, 순응자가 되고마오. 나도 그런 사람이었소. 다른 기관의 기중기차를 불러들일 생각만 했단 말이요.

화물원동무,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소?》

회심의 미소가 지배인의 얼굴에 떠올랐다.

진철은 얼굴을 붉히며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저야 철도사람이 아닙니다. 철도에서 시간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하차설비가 변변치 않은 사업소에서 제 시간에 못 부릴것을 뻔히 알면서도 방임하면 규정은 어떻게 지킵니까. 그렇게 해서 손해와 지장을 받는것이 과연 기업소나 철도뿐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짐을 부리지 못해 늦어지는 한두시간이 무언가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두시간도 다 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되어야 할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심장을 울리는 진철의 목소리는 침착하면서도 차분했다.

정모의 채양에 그늘진 그의 얼굴은 수수하고 평범했다. 첫눈에 안겨드는 청년이라고는 할수 없다. 다만 뼈마디가 굵고 든든한 체구가 혈기왕성한 그의 젊음을 말해주고있을뿐이었다.

영제는 투박하고 고집스럽다고만 보아온 그의 가슴속에 그런 열렬하고 뜨거운 애국의 녀이 간직되어있을줄은 미처 몰랐었다.

《화물원동무가 그래서 스스로 나섰구만. 이거 정말 면목이 없소. 동무의 말이 웁소. 규정은 집행하라고 만든것이지 책임과 시비를 따질 때 필요한 문구가 아니요. 모든 초소, 모든 단위, 모든 부문에서 서로 돕고 이끌어 집단적혁신을 일으킬 때만이 강성대국건설을 앞당길수 있는거요. 이것이 우리 식의 투쟁방식이며 창조방식이 아니겠소.

화물원동무, 고맙소. 철도를 도울대신 오히려 도움을 받고있으니 말이요.》

영제는 진철을 마주보기가 민망했다. 가슴이 답답해나고 얼굴이 달아올랐다.

나는 진정 진철이처럼 그렇게 시간을 아껴가며 시간의 의미를 생각해보며 일했던가. 짐부림시간의 초과로 잃어지는 시간을 그저 어쩔수 없는것이라고만 생각지 않았던가. 잃어지는 그 시간으로 하여 강성대국으로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전진속도가 그만큼 떠진다는것을 생각 못하고있었다.

이제부터라도 자신을 돌이켜보고 폭풍쳐달리는 조국의 시간에 자신을 맞추어야 한다.

…

현장에서는 치열한 로반정리전투가 벌어졌다.

불도젤이 땅을 깎으며 흙باط을 밀고나간다. 그 뒤로 로라다짐차가 로반을 다지며 뒤따라간다. 자동차에 실려온 기초블록크를 탐식기중기가 물어올려 자기가 나갈 자리에 내려놓는다. 그우에 침목이 놓여지고 레루가 뻗어나간다. 그 길을 따라 탐식기중기가 전진해간다.

진철이도 그속에 어울려 걸싸게 일했다. 체복을 벗어제긴 그는 마치 건설사업소사람 같았다. 실박한 어깨와 넘적한 잔등으로는 땀이 샘솟듯 흘러내렸다.

그에게로 다가간 영제는 뜨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진철동무, 이제 그만하오. 우리가 마저 끝내겠소.》

그제서야 허리를 편 진철은 습관처럼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이크!》

그는 놀라며 옷을 찾았다.

《왜 그래요?》

## 눈물로 한생을 산 시인

칠보산줄기가 흘러내려 움푹 패인듯 한 골안에  
오봇이 자리잡은 함경북도 명천땅에도 봄은 왔다.

사래긴 발을 어루쓸며 아침안개가 해빛을 받으며  
피어오르는 그 발머리 한쪽끝에 한 소년이 시  
름겹게 앉아있다. 그가 바로 시인 박아지였다.

한식경이 되어 아버지가 보리종자가 든 조롱박  
같은 자그마한 자루를 움켜쥐채 호미를 들고 발  
으로 나온줄도 모르고 그는 그 자리에 그냥 굳어  
진채 앉아있다.

깊은 생각에 잠겨 그는 울고있는것이다. 눈물이  
많은 소년, 그래서 동네아이들은 《울보》라고 놀  
려주었는지 모른다.

《애 아지야, 또 우느냐. 아침부터 궁상맞게스  
리.》

아버지의 지청구에 아지는 《아버지, 이자 방금  
뒤집 용세네가 떠나갔어요. 살데를 찾아 어디론가  
간대요.》라고 말하면서 또 흐느끼는것이였다.

《어찌겠느냐. 그렇다고 눈물로 신세를 바꿀  
수야 없지 않느냐. 어서 보리나 심자.》

그래도 아지는 보리를 다 심을 때까지 울었다.

보리종자와 함께 눈물을 땅에 심었다.

조국해방전쟁이 끝난지도 몇해가 지난 어느날  
시인 박세영이 평양시 교외에 현지체험을 나왔을  
때였다.

여기에 시인 박아지선생이 나와있단 말을 듣고  
박세영이 그를 찾았다.

소방울소리 왈랑절랑 울리는 발머리 한쪽편에  
물끄러미 앉아있는 박아지를 발견하고 반가움에  
넘쳐 그리로 달려갔던 박세영이 놀라지 않을수 없  
었다. 그가 소리없이 눈물을 흘리고있지 않는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하며 그에게

다가간 박세영은 그의 어깨를 살며시 흔들었다.

《여보게, 어찌된 일인가?》

그러자 박아지는 손수건으로 흐르던 눈물을 짖  
어내며 금시 울던 사람같지 않게 밝은 미소를 짓  
는것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박세영이 물었다.

《일이야 무슨 일, 그저 좀...》

그제서야 박세영이 짐작이 가는듯 이렇게 말하  
는것이였다.

《여보게, 자네. 그저 한생을 눈물로 살겠네.  
무슨 눈물이 그리 많은가. 전쟁도 이겼잖아, 땅도  
우리 땅이요. 이제는 좀 활짝 웃으라구.》

《박세영선생!》 박아지는 언제나 박세영을 선  
생이라고 불렀다.

《박세영선생, 해방전에는 땅이 없고 봄이 없어  
눈물을 많이 흘렸지요. 땅 없는 농군의 신세를 한  
탄하면서 말이요. 그런데 이제는 제땅을 가지고  
마음껏 농사를 짓게 됐으니 이 고마움을 무슨 말  
로 다하겠나. 그저 눈물뿐이네. 목놓아 우짖는 저  
종다리처럼 내 진정으로 이 고마운 내 나라, 어머  
니당의 은덕에 보답하지 못하는것이 안타깝네.》  
이렇게 말하는 박아지의 눈에서는 또다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내렸다. 시인 박세영도 울었다.

그후 박세영은 시문단에 첫발을 들여놓은 신인  
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참 눈물로 한생을 산 시인이었소. 그렇다고  
천성은 아니였어. 그래서인지 그는 시를 손끝으로  
쓰지 않았거던. 슬픔의 눈물, 기쁨의 눈물로 시  
문단을 적시었지. 정말 진정을 쏟았어. ...》

고 련 실

유미가 재빨리 그의 옷을 집어주며 의아한 눈길  
로 물었다.

《털차가 도착할 시간이 됐소.》

《땀이나 식히고 가지.》

감동에 젖은 영체의 목소리였다.

《역에 들어오는 짐들을 확인하는것은 화물원의  
임무입니다.》

진철은 여전히 규정을 해설하듯 말했다. 그에게  
는 그런 말투와 동작이 꼭 배인듯 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려고 자기를 바라보는 유미에게 영

체는 고개를 끄덕여보였다.

진철은 땀을 닦을새도 없이 바람을 일쿠며 떠나  
갔다.

얼마나 미덥고 훌륭한 청년인가!

영체는 가슴속에서 뜨거운것이 북받쳐오르는  
것을 느끼며 진철의 뒤모습을 이윽도록 바라  
보았다.

철길가운데로 걸음을 맞추고 나란히 걸어가는  
한쌍의 남녀가 점점 멀어져갔다.

그들의 뒤로 두줄기레루가 눈부신 빛을 뿌렸다.

# 정훈시절과의 약속



김진경

도 전자업무연구소 프로그램개발실은 도서관의 전자열람실을 방불케 했다. 다른것은 《독자》들이 대다수 20대의 연구사들이라는것이다.

체계연구실장 김철진은 날씬한 키에 곱살하고 살결이 흰 청년이었다. 목소리도 온후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엔 간파할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연구소에 배치되었던 대학졸업생들가운데 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력으로 따라가기 힘들어 나간 사람도 있고 〈발전〉하고싶어 다른 기관으로 간 사람도 있으며 또 혈한 직업으로 옮겨간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한때 친구의 권고로 ××무역회사 통역으로 가려고 한적이 있습니다.

친구인 대춘이는 저와 평양제1중학교 동창생이고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졸업한 수재였지만 여기 연구소에 들어와 이렇다하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끝내 1년전에 그곳 무역회사로 가버리고말았지요.

뭔가... 이야기가 빗나가는군요.》

그는 다시 이야기의 본선을 탔다.

《사람은 때로 모순되는 생각속에 살아갈 때가 있다고 할가. 특히 우리 연구사들 경우에는 자신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자긍심도 있지만 욕망에 실천이 따라서지 못하는데 대한 환멸 비슷한 감정에 잠길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자신의 무재능, 무능력이라고 간주하며 자기자신을 규탄하지요.

이렇게 두 감정의 부단한 싸움속에 전진하는것이 창조사업인가 봅니다. 그때 저에겐 부정적인 생각이 더 우세했다고 해야 할지, 당시 〈ㅎ〉연

구과제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아 진통을 겪고있었지요.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늘 사색에 젖눌려있었지만 차례지는건 수치뿐이었습니다.

그렇바엔 차라리 그만두고 통역을 하는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친구의 점질긴 권고는 끝내 저의 마음을 흔들어놓았지요.

헌데 이 말을 안해에게 선뜻 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하루이를 미루어오는데 퇴근무렵에 친구한테서 또 전화가 왔지요. ...》

《철진이, 우리 사장한테 네 말을 했어. 나무랄데 없는 인물체격에 네개 나라 말을 정통하고 또 김일성종합대학 졸업생이라는것도 말이야.

사장이 한번 만나보겠다고 하더구나. 그래 시간을 낼수 있겠지?》

《헌데— 처와 토론 못했어.》

《토론하나마나 제 남편이 잘되면 좋아하지 나빠하겠어?! 기회는 놓치면 다란 말이야.》

철진이 말이 없자 대춘은 답답하다는듯 혀를 찼다.

《친구사이에 털어놓고 말해서 연구사직업도 좋지만 통역을 해선 손해볼게 없단 말이야.

그리구 직업도 옮기려면 젊었을 때 옮겨야 해. 나무도 지내 크면 떠옮기기 힘들거던.》

《알겠어, 그건 그렇구. 래일이 우리 애 돌생일이란걸 잊지 않았겠지?...》

철진은 웃으며 송수화기를 놓았다.

퇴근하여 집에 들어가니 안해가 먼저 직장에서 돌아와 밥을 짓고있었다. 구수한 닭고기냄새가 부엌에 꽂 찼다.

《상점에서 또 닭고기랑 준 모양이구만.》  
《그래요. 옆집 할머니가 우리것까지 타왔더군요.》

안해는 상글상글 웃으며 밥상을 차렸다. 기름진 통닭은 보기만 해도 배가 불렀다.

강제시에 닭공장이 두개씩이나 서면서 요즘은 고기와 알을 정상적으로 공급하고있다.

흐뭇한 마음에 안해가 부어주는 포도술까지 한 잔 마시고난 철진은 기분이 떴다.

《당신하고 한가지 토론할게 있소. 아무래도 크게 성공하지 못할바엔 무역회사 통역같은것을 하면 어떨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안해는 놀랍게 반문하며 철진의 얼굴에서 무엇이 읽으려고 했다.

《대춘아저씨가 무슨 바람을 불어넣은것 아니에요?》

《그럼 내가 대춘이 하자는대로 한단 말이요?!... 사람은 능력이 없으면 제때에 그루바꿈도 할줄 알아야 해.》

안해는 입술을 깨물었다.

《능력이 없다는건 무슨 말이에요?! 난 방금 전에도 옆집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청송이 아버지에게 대해 얼마나 긍지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당신은?》

《옆집 할머니가 뭐라고 했기에?》

《상점에서 녀인들이 닭공장이 콤퓨터화되어 고기와 알이 짹짹 나온다고 좋아들 했대요. 할머니 그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옆집에 산다고 자랑하구요.》

그랬더니 글썽 녀인들이 할머니를 맨앞으로 떠밀면서 그 연구사에게 가정부인들의 이름으로 인사를 전해달라고 했다질 않아요.》

(그랬단 말이지!...)

철진은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다. 안해의 심정도 이해되었다. 하지만 고심참담한 사색과 피라는 노력을 요구하는 과학탐구의 순란치 않은 길을 순박한 녀인들이 어찌 다 알랴.

연구사업이란 의지와 열성만으로 되는것이 아니다. 지혜와 재능이 없다면 언제까지도 빛을 못 볼수 있다고 할가. 그래서 지식은 가르쳐도 지혜는 가르칠수 없다고 하지 않는가. 이름을 남기지 못할바엔 일찌감치 그만두는것도 현명한 처사지.

그러나 안해는 찬성하지 않는다. 조용히 남편을 달래었다.

《좀더 생각해보세요! 사람은 자기에 대한 높은

요구때문에 그런 번민을 할 때도 있지 않나요. 그리구... 과학자로서의 자존심마저 버리고 이 길에서 물러서는건 하나의 배신행위나 같은게 아닐가요?!》

《뭐?! 배신행위?》

철진의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리었다. 그러나 반박할수 없었다. 언젠가 안해가 자존심에 대해 물을 때 엄지손가락을 펴보이며 이것이 과학자의 자존심이라고 했던 생각이 났던것이다.

헌데 이제는 엄지손가락이 아니라 새끼손가락이 되었던 말인가. 그래서 수치감에 못이겨 물려서려 하고... 어쩐지 자신이 가공해보이면서 보잘것 없는 인간으로 여겨졌다.

안해는 그릇들을 거두어 들고 부엌으로 내려갔다. 설겅이를 하는지 달가닥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인차 들어오지 않고 또 무엇을 하는지 칼도마 소리를 낸다.

어쩐지 철진에게는 안해가 안타까움에 자기 가슴을 두드리는것 같이 느껴졌다.

안해에게 고통을 주었다는것이 그에게는 괴로운 일이었다. 그는 남달리 안해를 사랑하고있었다. 그럴만한 까닭이 있다.

철진은 옷방 책장속에 보관되어있는 《가보》(안해가 그렇게 불렀었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었다.

...회천의 어느 기계공장에서 설계원으로 있다가 여기 연구소로 오게 된 철진의 심정은 막혔던 숨길이 열린듯 했다. 한것은 드디어 전공분야로 가게 됐다는 기쁨과 환희로 인해서였다.

도에 올라온 그는 한동안 합숙에 있었다. 합숙 생활은 어려웠다.

힘겨운 연구과제를 맡고있는 철진에게는 마음을 의지하고 생활을 의탁할 녀인의 손길이 필요했다. 더우기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온 그로서는 더더욱 살뜰한 정이 그리웠던것이다.

그러던 어느날 합숙으로 한 처녀가 찾아왔다. 감실감실한 얼굴에 약간 오목눈인 처녀는 활달하면서도 귀여운 인상을 주었다.

《철진동무지요? 전 피복공장에 있는데 동무의 옷치수를 재오라는 과업을 받고왔어요.》

철진은 얼떨떨해하면서도 그대로 응했다. 헌데 양복을 해가지고 다시 찾아올줄이야.

《제가 동무에게 옷 한벌 해주면 안되나요 뭐.》

처녀는 찌리처럼 얼굴을 붉히면서도 그냥 생글 생글 웃었다. 옷을 입혀놓고 이리저리 바로잡아주는것이 다심한 어머니같았다.

철진은 불쑥 솟구치는 후더움에 눈곱이 뜨끈해졌다. 처녀도 기뻐서인지 눈물이 가랑가랑해졌다.

《전… 연구소회계원의 사촌동생이에요. 언니한테서 동무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는 과학자에게 옷 한벌 해입히는것이 제 소원입니다. 이젠 저의 진심이에요.》

그때의 오목눈처녀가 안해이다.

결혼 첫날 신부는 다소곳이 고개를 숙인채 연분홍보자기에 싼것을 내밀었다.

펼쳐보니 그리 크지 않은 함이었다. 바닥엔 빨간 비로도천을 깔았다. 투명하고 맵시있는 함은 하나의 세공품처럼 안겨왔다.

《저— 동무의 대학졸업증을 여기에 보관하자고…》

《대학졸업증을?!》

어쨌선지 가슴이 몽클했다. 그가 그토록 대학졸업증을 높이 사주는것이 고맙기도 하고 금지스럽기도 했다.

철진은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이 모셔진 **김일성** 종합대학졸업증을 꺼내놓았다.

신부는 희고 보동보동한 손으로 그것을 살며시 쓰다듬는것이였다. 두눈엔 행복감이 차랑차랑 고여 흑진주처럼 반짝이였다.

《동문 이 졸업증에 반해 결혼을 결심한것 같은데 이것이 결코 인간을 대신할수야 없지. 너무 서둘렀다고 생각되지 않소?》

신부는 살래살래 머리를 저었다.

《물론 난 동무에 대하여 다 몰라요. 하지만 알려고 하지 않아요. 동무가 어떤 사람이라는것도, 또 앞으로 어떻게 살리라는것도 여기에 다 켜여져 있는걸요 뭐.

이 졸업증은… 우리 집안의 〈가보〉로 될거예요. 만나자마자 이런 말을 한다고 탓하지 마세요.》

그때 철진은 심장이 세차게 뛰는것을 감촉하였고 그것을 꺼내보고싶은 심정이였다.

첫밤 철진은 뜬눈으로 새우며 결혼에 대하여 생각해보았다.

결혼이란 사랑을 주고 자기를 주는것이 아닐까. 자기의 심신은 물론 모든 능력과 재부까지도 깡그리 주는것… 주는데 결혼의 본질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다.

나는 안해에게 무엇을 줄수 있는가? 나에겐 아직 명예도 재부도 없다. 남편에 대한 금지감은 줄수 있지 않을까. 그러자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물론 안해에 대한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 자기의 사회적직무에 충실함으로써 뚜렷한 자욕을 남겨야 한다. 이를테면 안해가 소중히 여기는 졸업증의 《값》을 높인다고 할가.

이것이 안해와 말없이 나는 《결혼약속》이기도 했다.

결혼후 그들은 행복했다. 철진은 생활의 안정을 느끼였고 자기 사업에서도 전진을 가져왔다.

6개월만에 한동안 헤어지게 되었다. 철진이 《人》과제(국가적으로 중요하게 제기되는 프로그램으로서 ××정보센터와 공동개발하게 되어있었다.)를 받고 평양으로 올라가게 되었던것이다.

신혼의 꿈이 깨기도 전에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한 1년 걸릴지도 몰라.》

《그럼 한해농사를 잘 지어놓고 가을에 가서 만나자요. 수확이 없으면 멍텅구리 한가지!》

헤어지면서도 생글생글 웃는 안해의 친진하고도 명랑한 모습을 보며 철진은 함께 웃지 않을수 없었다.

몇달후 수도의 거리에 새해의 복눈이 호합지게도 내렸다. 러관방 창가에서 밖의 전경을 내다보는 철진의 앞엔 귀인성스러운 안해의 얼굴만 얼른 거렸다.

결혼후 처음으로 맞는 설을 갈라져 원다고 생각하니 쓸쓸한 감정을 금할수 없었다.

그 마음을 위로하듯 안해의 편지가 날아들었다. 헌데 편지엔 커다란 엄지손가락만 그려져있을뿐 아무런 글도 없었다.

(엉?! 이젠 뭐야?)

다음순간에야 깨도가 된 철진은 호탕하게 웃었다. 장난스러우면서도 바라는 마음이 꼭진한 안해의 그림편지앞에서 새로운 결심을 가다듬게 되었다.

꽃피는 4월 뜻밖에도 안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농사작황〉은 어때요? 여기는 가을이에요.》

《가을? 무슨 흥두개같은 소릴…》

《호호, 수확의 계절이지요. 그러니… 한해농사는 내가 먼저 지었군요. 아들이예요!》

《뭐, 아들이라구?!》 철진은 펄쩍 놀랐다. 말할수 없는 기쁨이 온몸으로 전류처럼 짜릿이 흘렀다.

(고 감쪽한게… 그래서 헤어지면서도 생글생글 웃기만 했구나.)

당장 달려가고싶은 욕망이 온몸을 태웠다. 다음순간 수확이 없으면 멍텅구리 한가지라고 하던

안해의 말이 떠올라 빙그레 웃었다. 갓 태어난 아들앞에 뿔뿔한 모습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굴뚝처럼 치솟았다.

1년만에 평양에서 돌아오는 그의 가슴엔 처음으로 받은 국기훈장이 빛나고있었다.

희천공작기계종합공장에 경영업무체계프로그램개발을 위해 나가있을 때였다.

연구소에 볼 일이 있어 올라왔다가 집에 들린 철진은 그만 문앞에서 굳어졌다. 안해가 잘 들지 않는 도끼로 나무를 패느라 땀을 뻘뻘 흘리는데 그 정상을 보는 순간 무딘 도끼날이 가슴에 와박히는것 같았다. 언제 도끼를 집어보았던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내가 무슨 세대주람. 알량한 《손님》이지.)

그날저녁 철진은 안해에게 물었다.

《나같은 남편을 둔걸 후회하지 않소?》

《아이참, 무슨 말을...》 아이의 담요깃을 여며 주던 안해는 곱게 눈을 흘겼다.

《남들은 남편의 그늘밑에 호강하는데 남편을 두고서도 혼자 집일을 맡아하잖니 그때마다 왜 후회가 없겠소.》

안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렇게 말했다.

《그만한 각오도 없이 어떻게 연구사의 안해가 될 결심을 했겠나요.

집일을 못하는건 흠이 아니니 그저 말은 일에만 전념하세요. 큰 대학을 나온 당신의 리상이 한 가정에 머물러서야 안되지요.》

《그래두 한두해도 아니고 한생 어떻게 이런 고생을 시키겠소. 아마... 나자신이 후회할거요.》

《청송이 아버지!》 안해는 웃음을 담고 바라보았다.

《진정한 사랑은 싫증을 모른다고 했어요. 이젠 우리 할머니의 말이예요.

할아버진 17살때 조국해방전쟁에 참가하여 한팔을 잃었는데 그것때문에 한생 할머니의 보호속에 살아왔어요. 할머니 가정의 무거운 짐을 조국이 자기에게 준 〈고정분공〉이라고 하면서 극성스레 안팎일을 돌보았지요. 녀자의 애국심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나요. ...

난 인생이 무엇인지 다 몰라요. 그러나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 한생 충실히 복무하는것이 인생이라는것만은 알아요.

자기가 바치고싶어 바치는데 무슨 힘든 일이 있겠나요. 난 그저 당신이 성공하기만을 바랄뿐이에요.》 ...

이렇게 연구사인 자기를 리해하고 떠밀어주는

안해여서 더 지극히 사랑해온것이 아닌가.

그러고보면 저 졸업증엔 자기들의 사랑의 언약, 과학탐구의 길에서 언제나 함께 있으리라는 심장의 약속이 새겨져있었던것이 아닌가!

그 졸업증을 무시하고 판길을 걷는다는것은 곧 안해에 대한 배신을 의미한다.

철진은 벌떡 일어나 책장앞으로 다가갔다. 그 졸업증을 꺼내들고 한동안 내려다보았다.

결혼첫날 그것을 살며시 쓰다듬던 안해의 수줍은 얼굴이 나타났다.

《당신이 어떻게 살리라는것이 여기에 다 써여져있어요.》 하고 속살거리는데.

문득 철진은 거기에 비껴있는 안해의 념원을 보았다. 분명 이렇게 써여져있는것 같았다.

《과학은 세계라는 광활한 무대에서 벌어지는 두뇌의 대결, 실력의 파시인것만큼 과학자의 상대는 만만치 않으며 그로 하여 누구보다 야심만만한 투지와 자존심을 가지고 달라볼지 않으면 안된다.

선군조선 청년과학자의 존엄과 배짱을 가지고 맞설대신 왜 물러서려 하는가.

이것은 전투에서의 퇴각을 의미하며 나아가서 조국의 운명은 어떻게 되든 자기 하나만 건지려는 나약하고 비렬한 배신행위나 같다.

분발하라! 성공의 열쇠는 자기 힘을 믿고 끝까지 공격하는 강毅한 인간에게 쥐여지는 법이다.

조국의 명예를 떨치라! 참된 민족의 궁지속에 가정의 궁지도 있고 개인의 행복도 있는것이다. ...》

가슴이 달아오른 그는 부엌에서 올라온 안해가 자기를 지켜보고있다는것을 알지 못했다.

다음날 철진의 집은 명절처럼 흥성거렸다. 청송이의 첫돌상을 차려주었던것이다.

희천에서 아버지도 왔다.

아버지는 곱게 단장시킨 손자를 안고 기뻐 어쩔 줄 몰라했다. 그걸 보니 더 어머니생각이 났다.

청송이를 큰상앞에 앉혔을 때이다. 그앞엔 학습장과 연필, 알락달락한 공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물건이 놓여있었다.

저마다 연필을 집어라, 공을 집어라 하며 애의 앞날을 축복하였다.

이때였다. 안해가 불쑥 일어나더니 책장에서 유리함에 든 졸업증을 가져오는것이였다.

그 졸업증을 아들앞에 놓아주었다. 순간 곁에서 짹짹 박수소리가 터졌다.

《그래, 그 이상 훌륭한게 없지.》

《아버지처럼 과학자가 될거야.》

《미래의 종합대학학생이로구만!》  
청송이가 푸른색졸업증을 덩석 쥐자 사람들은  
야! 환성을 올렸다. 철진이도 안해도 기쁨에 겨워  
서로 마주보았다.

소장이 두눈을 습벅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아흔  
들었다.

《손자가 참 영특합니다! 제 아버지를 닮았는  
지. ...》

《아니, 제 엄마를 닮았지요. 허허허.》

아버지가 흐뭇하여 하는 말이였다.

《자기 머느리라고 칭찬하는건 아니지만 얼  
마나 생각이 깊은가보오.

그래야지. 사람이 근본을 잊지 말아야지.

소장선생,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난  
과학자의 근본은 저 졸업증에 있다고 생각하  
우다.》

주위가 조용해졌다. 아마 처음 보는 청송이 할아  
버지가 무슨 말을 할가 귀기울여지는 모양이였다.

《타고난 과학자란 없지요. 그 바늘귀같은 싹을  
찾아내고 키워준 고마운 사람들이 없었다면 어떻  
게 오늘이 있을수 있겠나요.

사실 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의 재능이 무엇인지  
도 다 몰랐습니다. 그런걸 나라에서 하나하나 가  
르쳐 **김일성**종합대학에까지 보내주었지요.

장군님의 그 은덕을 잊지 말라고 우리 머느리가  
저걸 쥐여준게 아닌가요?!》

《웁습니다. 아버님!》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철진은 가슴속에서 뜨  
거운것이 치밀어오르는것을 느끼였다.

(아버지의 말이 옳다. 토양이 없는 열매를 바랄  
수 없듯이 훌륭한 밑거름이 되어준 그 많은 사람  
들의 수고를 떠나 오늘의 나를 상상이나 할수 있  
단 말인가. ...)

어느새 추억은 인생의 오솔길을 거슬러 멀리 소  
학교시절에 가있었다.

...

평양학생소년궁전의 천문대참관을 온 소학교 1  
학년생들, 머리위에 펼쳐진 별나라, 유유히 떠가  
는 별 하나...

《저 별이 무슨 별입니까?》

모두 입을 다물고있는데 철진이가 큰소리로 대  
답했다.

《인공지구위성입니다!》

선생님이 반짝 불을 켜다.

《철진이, 인공지구위성이라는데 뭔지 알아  
요?》

《예, 그건 사람들이 만든 별인데 떨어지지 않  
고 지구둘레를 뱅뱅 돕니다.》

그날 선생님은 철진의 손을 잡고 《자연소조  
실》이라고 쓴 방으로 데리고갔다.

《홍선생님》이라고 불리우는 나이 많은 선생님  
이 철진이에게 물었다.

《100미터구간에 전기선을 늘여야겠는데 몇  
미터 있어야 할가요?》

그는 200미터라고 제격 대답했다.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전기선을 늘일 때 두줄로 하는걸 보  
았습니다.》

홍선생님은 환하게 웃으며 철진을 꼭 껴안아주  
었다.

그때부터 수업후에 따로 과제를 주고 다 한 다  
음에는 집에까지 데려다주기도 했다. 놀음놀이  
에 공부까지 하다나면 뿔아떨어져 선생님의 등에  
업힌줄도 모르고 집에 올 때도 있었다.

소학교를 졸업하고 평양제1중학교에 입학하는  
날 홍선생님은 철진에게 까만 만년필을 쥐여주며  
말하였다.

《언젠가 어버이수령님께서 아이들을 만나  
신 자리에서 이다음 크면 무엇이 되겠는가고 물으  
신적 있었어요.

한 아이는 예술인이 되겠다고 하고 또 다른 아  
이는 과학자가 되겠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때 수령님께서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  
는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과학자들  
은 금방석에 앉히고싶다고 하셨어요. ...

철진이! 철진이는 꼭 과학자가 되어야 해요.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아시는 훌륭한 과학자  
가 말이에요!》

그후 평양제1중학교 졸업증과 **김일성**종합대학  
입학통지서를 쥐고 정든 교문을 나설 때 선생님들  
은 따라나오며 말하였다.

꼭 20대의 청년박사가 되라고!

대학시절은 또 얼마나 보람찼던가! 한번은 문학  
대학 녀학생이 대학신문에 널 기사감을 《취재》  
하겠다고 찾아왔다. 대학 3학년에 벌써 학위론문  
을 거의 완성하였다는 《정보》가 편집부의 관심을  
끌었던 모양이다.

철진은 같은 대학생의 취재를 《당하는》것이  
싱겁기도 하고 또 신문에 난다는것이 잘 믿어지지  
도 않아 묻는 말에 건성건성 대하였다.

그런데 보름후에 정말 신문에 났다는 말이 들려  
왔다. 그날 철진은 도서관으로 달려갔다.

자기에 대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보는 순간 뿌듯한 긍지와 자부심이 온몸을 휩쓸었다.

드디어 문자인식프로그램에 대한 학위논문이 통과되었다. 그날 철진은 차오르는 격정을 이길수 없어 막 뛰어서 집 층계를 올랐다.

집에 들어서니 이날따라 아버지도 일찍 퇴근했었다.

《내 학위논문이 통과됐어요!》

그날에 그리도 기뻐하고 흥분했던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그후 상급기관의 조치로 아버지가 지방기업소로 조동되시었을 때에도 아버지, 어머니는 너의 재능을 꽃피워준 당의 고마움을 잊지 말고 공부를 잘해서 꼭 성공해야 한다고 늘 고무해주곤 하였었다.

어머니는 인편이 있을 때마다 간식과 학용품 그리고 참고서를 구해 보내주곤 하였다. 졸업하기 몇달전에는 산골의 특산이라며 다래를 한지함 부쳐오기도 했다.

졸업후 부모가 있는 곳으로 내려왔을 때이다.

이제 어머니를 만나게 된다는 생각에 철진의 가슴은 막 뛰놀았다. 집이 이사한 후 처음 보게 되는 어머니이다.

《어머니!—》 그는 마당에서부터 소리쳤다.

문이 벌럭 열리며 아버지가 달려나왔다. 무척 늙어버린듯 한 아버지이다.

(어머니는?)

부엌이 썰렁해 보였다. 방안에 옷가지들도 되는데로 걸려있었다.

아버지의 얼굴엔 침통한 빛이 어리었다.

《네 어머니... 두달전에 갔다. 졸업시험에 지장이 된...다고 알리지 못하게... 하더구나.》

철진은 눈앞이 아찔했다. 겨우 자기를 억제했다.

(심장병으로 고생하시더니 끝내... 어머니님 마지막 순간에도 이 아들의 학업만을... 생각하셨군요.)

그는 눈물을 머금고 졸업증을 꺼내었다.

《아버지,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을 모신 종합대학 졸업증입니다.》

《**김일성**종합대학》이라는 금박의 글자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친필로 새겨진 푸른빛의 졸업증을 받아친 아버지의 손이 후들후들 떨리었다.

《너의 어머니가... 그토록 보고싶어하더니...》

철진은 어머니의 사진앞에 졸업증을 정히 펴놓았다.

《어머니! 우리 장군님께서는 이 아들에게도

수령님의 영상이 모셔진 졸업증을 안겨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웃고만 계시나요. 어서 가까이 와서 단 한번만이라도 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것이 후둑 후둑 떨어져내렸다. ...

다음날 졸업증을 들고 아버지가 일하는 기계공장으로 간 그는 설계실에 배치되었다.

설계실엔 너자들이 많았다.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부지런히 화구를 살피고 유순히 말도 받아주는 젊은 총각을 모두 좋아했다.

어지간히 정은 붙일수 있었으나 마음은 번거로웠다.

(조통속의 새는 절반은 새가 아니다. 전자계산기를 떠나 여기 설계실에 갇힌 나에게 무슨 앞날이 있을텐가.)

밥도 넘어가지 않고 잠도 오지 않았다. 어길수 없는 일과처럼 되어있던 명곡감상도 잊은지 오래다.

그날도 철진은 혼자서 터벌터벌 집으로 오고있었다. 마주오던 사람이 자세히 살피는 눈치였으나 개의치 않았다.

《혹시— 철진동무가 아니요?》

《저를 어떻게...》

단정하게 빚어넣긴 머리에 상냥한 미소를 띤 사나이는 구면친구처럼 철진의 손을 잡았다.

《맞구만! 내 전자업무연구소 소장이요. 동무와 손잡고 일해보자고 해서 왔소.》

철진은 번쩍 정신이 들었다. 소장이 허허 웃으며 자초지종 말하는것이였다.

《이곳 당위원회에서 추천하고 **김일성**종합대학 리문구선생이 편지를 보내왔더구만.

동무의 실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최첨단과학기술의 전초선에 세워달라고 부탁해왔소. ...》

아, 론문지도교원이었던 리문구선생님, 그러니 선생님은 멀리서도 제자의 아픔을 다 알고계셨구나. ... 철진은 너무도 고마와 길옆의 나무를 불안고 세차게 어깨를 떨었다.

...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속에 과학자로 된 철진이었다.

헌데 이제 와서 그들을 잊는단 말인가. 예제는 그들이 나를 위해 바쳤지만 오늘은 그들을 위해 깡그리 바칠 의무가 나에게 있다.

철진의 귀가에는 어제 안해가 하던 말이 쟁쟁했다.



《난 인생이 무엇인지 다 몰라요. 그러나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 한생 충실하는것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것은 알아요.》

언젠가 아버지도 이렇게 말했었지.

《인간이 보답하는 리치는 우선 가까운 사람들에게 충실해야 하는거다. 그것은 자기가 딛고선 땅을 사랑하는거나 같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충실하는것이 바로 당과 조국에 충실한 기초로 되는 법이다.

인간이 자기의 근본을 잃으면 자기자신을 망하게 할수 있다는것을 언제나 명심해야 한다!》

그러니 보답과 배신의 시금석은 바로 가까운 사람들과의 의리에 있는것이 아닌가.

배반은 언제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의리를 저버리는데서부터 시작되는 법이다.

철진은 자기가 얼마나 큰 과오를 저지른번 했는가를 통절히 깨달았다.

반대로 안해야말로 얼마나 훌륭한가. 그가 남편을 받드는 근저에는 조국에 대한 뜨거운 애착과 보답의 감정이 맥맥히 흐르고있는것이 아닌가.

안해를 다 모르고 사랑한다는것은 한갓 뜬소리에 불과하지 않는가.

철진이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데 안해가 가까이 다가왔다.

《이젠 사진을 찍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 찍자구. 청송이의 사진은 내가 찍겠소.》

철진은 사진기를 들었다. 렌즈를 아들한테 맞추었다. 그러나 인차 찍을수가 없었다. 아들의 손에 들려있는 푸른색졸업증만이 크게 확대되어왔던 것이다.

그것의 의미가 새롭게 감득되었다.

정녕 그것은 그 어떤 자격을 말해주는 단순한 증서가 아니라 자기를 키워주고 내세워준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며 부탁이고 조국이 준 사랑과 믿음의 증서이다.

대학교문을 나설 때 그 《졸업증속의 많은 사람들》과 약속하지 않았던가.

보답하겠다고, 성공하겠다고. ...

인생의 봄시절에 맺은 약속, 조국앞에 다진 이 맹세를 어떻게 한시인들 잊을수 있단 말인가.

만약 자기처럼 약속을 어기려 한다면, 저 하나의 부귀와 공명, 출세를 위해 어려운 일을 피하려 한다면 어머니조국의 운명은 어찌 되겠는가.

저 졸업증의 푸른빛처럼 내 조국을 영원히 빛내이라고 당에서는 귀한 자금을 써가며 공부시켜주지 않았던가.

졸업증에 새겨진 이름, 이것이야말로 우리 장군님과 나는 마음의 약속, 성공을 맹세한 심장의 수표가 아닌가!

약속은 지킬 때 빛이 난다.

청춘시절에 산다고 청춘이라, 청춘시절과의 약속을 지킬 때 그 청춘은 빛나는것이다!

철진은 한껏 부풀어오른 마음으로 샤타를 눌렀다,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말하였다.

청송아! 재능도 자존심도 타고난것이 아니다.

불덩이같은 심장을 지닌 사람에게는 이것이 절로 찾아들지만 싸늘하게 식은 심장에 허영과 동요밖에 없다.

청춘은 곧 사랑이다. 사랑으로 열지 못할 문이란 없다.

《엄지손가락》, 이것은 욕망이기 전에 조국에 바치는 불타는 사랑이며 여기에 청춘의 진정한 가치가 있는거란다!...

돌아서던 철진은 아이의 장난감을 사들고 뒤늦게 나타난 대춘이를 알아보았다.

×

《그때로부터 2년이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은 하늘같지만 실지 우리 연구소에 모시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

그날의 감격이 되살아난듯 김철진은 조용히 두 눈을 적시었다.

그날의 보도는 온 나라가 들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능률적인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있는 체계연구실장 김철진동무를 비롯한 기술자들을 만나시여 연구정형을 알아보시고 여러 학교들의 전자계산기 수재반을 졸업한 젊은 기술자들이 벌써 정보산업부문의 중진으로 자라났다고 기뻐하시면서 이 자랑찬 현실은 전자계산기 수재 양성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우리 당 조치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웅변으로 보여주고있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

보도가 전해지자 철진을 알고있는 많은 사람들한테서 축하전화가 걸려왔다.

그가운데 다른 성격을 띤 전화도 있었다.

《철진이, 요즘처럼 생각이 많은 때는 일찌기 없었어.

너와 나는 평양제1중학교에도 같이 다녔고 전자계산기라는 하나의 토양에서 지식의 나무를 자라웠지. 꼭 같이 심은 나무지만 지금 성장의 키는 너

무도 차이가 크거던.

내가 남의 토양으로 옮겨가 〈모살이〉를 하는 사이 넌 거목으로 자랐어. 하긴 자길 키워준 그 〈토양〉을 버린 인간에게 무슨 참다운 성공이 있을수 있겠니...

난 오늘에야 인생의 높이는 곧 성공의 높이이며 진정한 성공은 우리 장군님께서 아시는 과학자가 되는것이라는것을 심심히 깨닫게 되었다.

난 지금까지 자신을 조국을 위해 불태우려고 하지 않았다. 수재라고 해서 다 인재로 되는것은 아

니지.

이제부터라도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련다. 래일 다시 연구소로 돌아가겠어. ...》

철진이와 대춘은 다시 진정한 친구로 만난 것이다.

그들은 자신을 성공했다고 생각지 않는다.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그들의 피타는 사색속에서 《고고성》을 터뜨릴것인가!

청춘시절과의 약속은 이렇게 지켜지고있다.

## 자 료

# 시인 김상훈의 시집 《흙》에 대하여

시인 김상훈은 생애의 전기간 5권으로 된 시집을 내놓은 시인이지만 독자들속에 잘 알려져있지 않고 조선고전문학선집들인 《가요집》, 《한시집》, 《리규보작품집》 등을 만들어내놓은 고전문학전문가로 인정되어있다.

그는 8.15해방후 남녘땅에서 25살 홍안의 청년으로 첫 시집 《대렬》과 장편서사시 《가족》을 출판하였고 《전위시인집》들에 여러편의 시들을 발표하면서 미제와 그 주구 리승만피괴역도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차게 벌렸다. 그러던중 그는 농들에게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다가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긴 후 본격적인 시창작의 길에 들어섰다. 그는 70나이에 행복한 창작생활을 마치는 순간까지 수백편의 시와 수많은 예술산문들, 2편의 장편소설을 창작하는 한편 생애의 전기간 고전문학번역사업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출판된 시집 《흙》을 통하여 시인의 시적재능과 개성을 더잘 알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에서는 서정적주인공의 모습이 뚜렷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대신할수 없는 독특한 정서세계가 펼쳐져야 한다.》

이 시집에는 시인이 해방전에 창작한 시 《연》〔주체32(1943)년〕, 《이민선》〔주체33(1944)년〕, 해방직후 남조선에서 철천지원췌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쓴 시들인 《농군의 딸》, 《아이에게 밥이 있어야 한다》, 《짓밟힌 고향

아》〔주체36(1947)년〕, 《혈액은행》, 《옥문》, 《보리고개》〔주체37(1948)년〕, 《양자》, 《새벽비》, 《매》, 《소야 뿔을 찌라》〔주체38(1949)년〕 등과 의인화의 수법으로 씌여진 여러편의 시들을 묶은 동물시초가 들어있다.

그리고 전쟁시기 적구투쟁속에서 체험한 생활을 노래한 《나의 노래여 불길이 되라!》, 《배낭의 노래》, 《습격조의 노래》〔주체39(1950)년〕, 《봄비》, 《소녀빨찌산》, 《훈장》〔주체40(1951)년〕 등과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시기에 쓴 적지 않은 현실주체의 시들이 있다.

그가운데서 시 《배낭의 노래》는 지금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 비치되어있으며 전쟁시기에 쓴 시인의 대표작이라고 할수 있다.

시인은 생애의 전기간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을 노래한 수많은 송가작품들을 창작발표하였는데 시집 《흙》에도 《위대한 수령님께 삼가 드리는 노래》〔주체54(1965)년〕, 《백두산》〔주체71(1982)년〕, 《소식》〔주체73(1984)년〕, 《2월의 송가》〔주체64(1975)년〕, 《향도의 별님》〔주체65(1976)년〕, 《남녘의 철창속에서도》〔주체65(1976)년〕, 《축원》〔주체64(1975)년〕, 《흙》〔주체59(1970)년〕 등의 송시가 들어있다. 그가운데서 시 《흙》은 시인의 대표작이라고 할수 있다. 이 시에는 위대한 수령님께 남조선의 한 농민이 정성어린 손길로 써서 올린 한 줌의 흙을 두고 조국통일의 그날을 위해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전사로 살며 싸울 남녘땅 인민들의 굳센 결의가 잘 반영되어있다. 작품에는 격동적인

웨침도, 현란한 문구도 없으나 남녘땅 농민의 구체적이며 섬세한 생활정서로 환기된 절절한 감정과 조국통일을 학수고대하는 남녘땅 인민들의 간절한 념원이 뜨겁게 담겨져있어 독자들의 가슴을 울린다. 서정적주인공인 남녘땅의 한 농민은 한줌의 흙을 두고 자기들의 지나온 피눈물나는 고역과 비참한 생활을 읊조리기도 하고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싸운 농촌청년들의 투쟁에 대하여서도 그리고 조국해방전쟁시기 해방의 그날 땅을 분여받고 난생 처음으로 제땅에서 농사짓던 기쁨에 대하여서도 아뢰이기도 한다. 하기에 한줌의 흙, 그것은 서정적주인공의 피눈물나는 한생의 증견자이며 간절한 희망을 말없이 알아주는 생활의 상징적인 동반자이기도 하다. 작품에서는 서정적주인공의 이러한 사상감정을 조국통일을 바라는 남녘땅 인민들의 간절한 지향과 결부시켜 노래하다가 통일의 그날 어버이수령님을 자기 마을에 모실 미래의 랑만적화폭으로 승화시켜 이채로운 시의 세계를 펼쳐놓는다.

이른 봄철이나 늦은 가을날에  
수령님께서 뜻밖에 마을에 들리시여  
늙은이는 백발숙여 절을 하옵고  
철부지 어린것은 손길에 매달리며  
거리와 집집마다 자랑이 넘치고  
온 산천이 눈부시게 밝아올  
그 가슴 저리도록 황홀한 순간을  
농토와 농군들이 함께 꿈꾸나이다

원췌 미제와 그 괴뢰들을 족치고 통일된 조국의 파사로운 품속에서 세상이 보란듯이 잘살뿐아니라 앞집 뒤집이 서로 불러가며 흥겹게 일할 그 신명나는 새세상을 그리는 남녘땅 농민들의 간절한 희망, 위대한 수령님을 자기 마을에 모시고 축원의 절을 삼가 올릴 그날을 그러보며 살며 싸울 불타는 지향으로 하여 시의 세계는 랑만적이며 밝은 색조로 일관되어있다. 여기에 바로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파사로운 손길아래 조국통일의 그날이 이룩되기를 바라마지 않는 남녘땅인민들의 절절한 마음을 민족최대의 숙원과 의지로, 시대의 량심으로 승화시켜 노래한 시인의 독특한 시적개성이 있고 주체시문학의 화원에 소담히 피여 은근한 향기를 풍기는 시집 《흙》의 진가가 있는것이다.

시집 《흙》에는 조국통일주제의 시들이 수십편이나 들어있는데 그가운데서 시초 《어머니에 대

한 생각》에 수록된 시 《어머니를 생각하면》, 《돌아가오리다》, 《열무김치》〔주체69(1980)년〕와 시 《달》〔주체76(1987)년〕 등은 섬세한 생활정서로 하여 사람들의 가슴을 울린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물레질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부엌문 여닫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을앞 오솔길에 매화꽃이 가득 핏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세월이 그 자리에 멈춰섭니다

...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머니는 언제나  
어김없이 나를 바라보시는듯  
속눈섭 가지런히 눈시울을 좁히시며  
그 갈앓은 목소리로  
조용히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

어머니를 생각하면  
통일될 조국이 더욱 가까워지고  
은혜로운 빛발을 받으며  
통일된 그날 위해 싸워가는 이 몸이  
더욱더 자랑스러워집니다

시인은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린시절 고향집의 귀익은 물레질소리며 부엌문 여닫는 소리, 동구밖의 매화꽃이며 재너머 능수버들 우거진 고향마을 모습이 떠오르고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더 억세게 투쟁할 결의를 굳게 다지게 된다고 노래하고 있다. 서정적주인공의 이 노래속에는 장장 수십년 세월 조국통일의 그날을 바라며 살며 싸워온 시인의 가슴아픈 생활체험과 조국통일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섬세한 시적감정으로 표현되어있는가. 참으로 몇백마디의 웨침보다 더 강하게 독자들의 심금을 울린다.

이것은 한편의 시를 써도 시인이 얼마나 시대를 안고 몸부림치면서 시의 독특한 세계를 창조하기 위하여 모태기였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시인은 시적이며 극적인 생활적계기를 포착하여

그것을 담시와 같은 이야기형식으로 엮는 작품들도 썼다.

시집 《흙》에 들어있는 시초 《단야공의 노래》〔주체48(1959)년〕, 《언약》〔주체48(1959)년〕, 《탄실이》〔주체44(1955)년〕, 《숲》〔주체44(1955)년〕, 《집들이》〔주체47(1958)년〕, 《웃으며 걸으며》〔주체47(1958)년〕, 《무등산의 봄》〔주체71(1982)년〕, 《공범자》〔주체69(1980)년〕, 《어머니》〔주체69(1980)년〕, 시초 《혁명가부부에게》〔주체64(1975)년〕 등이 그러한 작품들이다.

이야기형식의 시란 곧 서사성이 강한 시작품을 의미한다. 이런 형식의 시들은 그것이 비록 담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무르익은 시적감흥과 여운을 주고있다는 점에서는 서정시의 본도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평가해야 한다.

시집 《흙》에 수록된 적지 않은 시작품들에는 구수한 고향의 흙냄새와 같은 향토미가 짙은 시적 묘사로 일관되어있다. 이것은 시인의 고유한 개성적인 얼굴을 드러내게 한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다.

향토미가 짙은 시인의 시작품들에 일관되어있는 시인의 개성적인 얼굴은 우리 인민의 미풍량속과 고향의 향수를 자아내게 하는 자연풍경을 노래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그를 통하여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을 더욱 절절히 승화시켜 그려내고있는데서 그 특색을 찾아볼수 있다.

참으로 시인 김상훈은 시집 《흙》을 통하여 자기의 독특한 개성을 잘 드러낸 시인이었다고 할수 있다.

주 설 화